전략연구 2023-11 CHUNGNAM INSTITUTE

충남 농촌지역 활성화를 위한 관계인구 창출 및 활용 전략

저자
유학열 · 조소진

충남연구원
ChungNam Institute

주요연구내용 및 정책제안

▣ 주요 연구내용

최근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서도 농촌인구 문제 해법 가운데 하나로 '관계인구'를 주목하고 있으며 관련 연구들도 활발하다. '관계인구'에 대한 정의는 국가 및 학자에 따라서 약간 다른 점은 있지만 '실제 농촌지역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농촌지역과 어떠한 형태로든 관계를 맺고 있는 인구(사람)'라는 공통점이 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도시민과 농촌주민 간의 단순한 관계성이 아닌, 쇠퇴·소멸 위기에 놓여 있는 농촌지역이 활기를 되찾을 수 있게끔 더욱 밀접하고 긴밀한 관계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분명 기존의 농촌지역 주민만으로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으며, 농촌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외부로부터의 인적 공급이 필수적이다. 결국 관계인구를 통해 농촌지역과 도시지역 간의 새로운 사람(人的), 새로운 정보(物的) 흐름이 생겨나며, 농촌-도시 상호보완적인 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연구배경을 바탕으로 쇠퇴·소멸 위기에 놓여 있는 농촌지역 활성화 및 재생을 위해 필요한 인적자원을 관계인구라는 관점에서 접근하였다. 연구의 주요 내용은 관계인구와 유사한 생활인구, 교류인구 등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였으며, 농촌지역주민과 도시지역주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관계인구의 필요성 등 정책 수요를 도출하였다. 또한 실제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관계인구 창출을 위한 다양한 시도에 대한 사례 조사를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관계인구 창출을 위한 전략을 몇 가지 유형에 따라 충남 도농상생 주말농장 조성 사업, 충남 체류형 Weekend-House 조성 사업, 충남 농촌 Enjoy-Study 사업, 충남&경기 도농상생 한마당의 날, 충남 관계 서포터즈, 충남 도농상생 관계 플랫폼 구축을 제시하였다.

▣ 정책 제안

본 연구에서 제안한 관계인구 창출 및 활용을 위한 방안이 충청남도 또는 충남도 기초자치단체가 정책화(사업화)를 위한 기획 단계에서 고려해야 할 점은 아래와 같다.

첫째,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소멸 위기 처해 있는 자치단체의 인구정책 방향을 인구의 양적 증가 전략과 함께 본 연구에서 강조하고 있는 인구의 질적 증가 즉 관계인구 창출 전략을 이원화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그 이유는 절대 인구를 늘린다는 것은 국가 전체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볼 때 결코 쉽지 않다는 점이다. 한편 관계인구가 지역사회의 다양한 측면에서 활성화를 시킬 수 있다는 사실이 여러 사례에서 실증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관계인구 창출의 의미는 단순히 인구문제를 해결하는 것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도시민들에게 농촌농업에 대한 중요한 가치를 인식시켜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둘째, 관계인구 창출 방안은 여러 측면에서 다양한 접근이 가능하다. 따라서 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는 특성과 실정을 고려하여 독특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른 지역의 성공사례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자치단체의 형편에 맞게 실천할 수 있고 실효성이 담보될 수 있는 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 예를 들어 본 연구에서 제시한 도농상생 주말농장 조성사업의 경우 지역의 특성에 따라 농촌형, 어촌형, 산촌형을 선택할 수 있으며, 충남 체류형 Weekend-House 사업도 지역의 실정에 맞게 정원형, 소규모 스마트 농업형, 휴양형, 자연농법형 가운데 선택할 수 있다.

셋째, 충청남도 민선 8기 핵심 정책 가운데 하나인 '충남&경기 Bey Valley 메카시티 구축'에 양 지역 주민 간의 인적교류 사업을 포함할 것

을 적극적으로 제안한다. 충청남도와 경기도가 다양한 연계협력 사업을 발굴, 추진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양 지역 주민 간의 교류 협력은 매우 의미가 크다고 본다. 충남의 농촌지역과 경기도의 도시지역과의 인적 교류가 활성화된다면 관계인구 창출 및 확대에도 분명 큰 역할을 할 것이다.

넷째, 관계인구 창출 및 확대를 위한 재원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고향사랑기부제에서 확보한 기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관계인구 창출을 통해 소멸 위기에 처해 있는 고향(농촌)을 지키고 활성화하는 것이 고향사랑기부제의 본연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고향사랑기부제의 효시인 일본의 경우에도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확보한 재원으로 교류인구 창출, 관광인구 창출, 시민활동 지원 등 관계인구와 관련된 분야에 많이 활용되고 있다.

목 차

제1장 서 론 ····· 1

1. 연구 배경과 목적 ····· 3
2. 연구 방법과 범위 ····· 6
3. 주요 연구 내용 ····· 10
4. 연구 흐름도 ····· 13

제2장 이론적 고찰 ····· 15

1. 용어 정리 ····· 17
2. 선행연구 검토 ····· 28

제3장 관계인구 수요 및 사례 분석 ····· 35

1. 관계인구 인식 및 수요 분석 ····· 37
2. 관계인구 사례 분석 ····· 74
3. 소결 ····· 114

제4장 관계인구 창출 및 확대 전략 ····· 117

1. 기본 방향 ····· 119
2. 세부 전략 ····· 122

제5장 결론 ····· 145

1. 요약 ····· 147
2. 정책 제언 ····· 149

참고문헌 ····· 151

부록 ····· 155

표 목차

〈표 1-1〉 연구방법 기본틀 ····· 8
〈표 1-2〉 국내외 사례지역(예시) ····· 11
〈표 1-3〉 연구 흐름도 ····· 13

〈표 2-1〉 국내 인구개념 비교 ····· 21
〈표 2-2〉 체류인구와 관련된 개념 정리 ····· 25
〈표 2-3〉 관계인구 관련 용어 비교 ····· 27
〈표 2-4〉 선행연구 검토 ····· 33

〈표 3-1〉 설문조사 개요 ····· 37
〈표 3-2〉 설문조사 개요 ····· 38
〈표 3-3〉 응답자의 성별 및 연령대 ····· 39
〈표 3-4〉 응답자의 마을 내 역할 ····· 40
〈표 3-5〉 외부의 조직과 자매결연 여부 ····· 41
〈표 3-6〉 최근(작년) 1년 동안 교류 정도 ····· 42
〈표 3-7〉 교류 조직 유형 ····· 43
〈표 3-8〉 교류활동 유형 ····· 44
〈표 3-9〉 교류가 마을발전(활성화)에 기여하는 정도 ····· 45
〈표 3-10〉 출향민 모임 유무 ····· 46
〈표 3-11〉 학교 동창회 모임 유무 ····· 47
〈표 3-12〉 외부인 참여 행사, 축제 유무 ····· 48
〈표 3-13〉 외부인들과의 교류 및 이주에 대한 인식 ····· 49
〈표 3-14〉 외부 주체와의 교류 필요성 ····· 50
〈표 3-15〉 외부로부터 필요한 지원 ····· 51
〈표 3-16〉 마을 공동체 활동 활성화를 위한 지원 요청 의향 ····· 52

〈표 3-17〉 응답자의 성별 및 연령대 ····· 53
〈표 3-18〉 직업 ····· 54
〈표 3-19〉 거주지 ····· 55
〈표 3-20〉 관계인구 개념 인지 여부 ····· 56
〈표 3-21〉 관계인구 필요성 ····· 57
〈표 3-22〉 관계인구 필요 이유 ····· 58
〈표 3-23〉 농촌거주 경험 ····· 59
〈표 3-24〉 출향민 모임 참여 여부 ····· 59
〈표 3-25〉 학교 동창회 모임 참여여부 ····· 60
〈표 3-26〉 농촌지역과 맺고 있는 관계유형 ····· 61
〈표 3-27〉 농촌지역 방문 횟수 ····· 63
〈표 3-28〉 지난 1년간 농촌지역 활동 ····· 64
〈표 3-29〉 향후 농촌지역과 관계 지속 의향 ····· 65
〈표 3-30〉 향후 농촌지역과 맺고 싶은 관계 ····· 66
〈표 3-31〉 향후 농촌 지역에서 하고 싶은 활동 ····· 67
〈표 3-32〉 향후 농촌과 관계를 지속할 의향이 없는 이유 ····· 68
〈표 3-33〉 농촌지역 활성화와 관계인구 ····· 69
〈표 3-34〉 1차 전문가 자문회의 주요 내용 ····· 70
〈표 3-35〉 2차 전문가 자문회의 주요 내용 ····· 71
〈표 3-36〉 3차 전문가 자문회의 주요 내용 ····· 72
〈표 3-37〉 4차 전문가 자문회의 주요 내용 ····· 73
〈표 3-38〉 국내외 사례지역 ····· 74

〈표 4-1〉 충남 도농상생 주말농장 조성 사업 개요 ····· 122
〈표 4-2〉 어장별 수산동식물의 포획·채취방법 ····· 125
〈표 4-3〉 주말산림 농장 재배 가능 임산물 종류 ····· 126
〈표 4-4〉 충남 체류형 Weekend-House 개요 ····· 129
〈표 4-5〉 Weekend-House의 유형별 특징 ····· 131

〈표 4-6〉 유렵의 체류형 주말 주택 ····· 132
〈표 4-7〉 충남 농촌Enjoy-Study(유학;遊學) 사업 개요 ····· 135
〈표 4-8〉 “충남&경기 도농상생 한마당” 개요 ····· 137
〈표 4-9〉 충남&경기 도농상생 한마당 날 행사 예시 ····· 138
〈표 4-10〉 “충남 관계 서포터즈” 개요 ····· 139
〈표 4-11〉 충남 관계 서포터즈 개요 ····· 141
〈표 4-12〉 충남 도농상생 관계 플랫폼 구축 개요 ····· 142

그림 목차

[그림 1-1] 농촌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관계인구 필요성 개념도 ····· 5
[그림 1-2] 관계인구 거주 지역에 따른 공간적 범위 체계도 ····· 9
[그림 1-3] 국외사례 예시 ····· 11

[그림 2-1] 관계인구의 도식(좌)과 관계인구의 단계(우) ····· 18
[그림 2-2] 지역과의 관계성에서 본 관계인구의 형태 ····· 19
[그림 2-3] 관계인구 유형 및 개념화 ····· 19
[그림 2-4] 생활인구의 구성 ····· 20
[그림 2-5] 교류·관계·정주인구의 단계별 위치 ····· 23
[그림 2-6] 방문-체류-정주 단계의 개념도 ····· 24
[그림 2-7] 거주구분-관계성에 따른 관계 인구 관련 용어 체계도 ····· 26
[그림 2-8] 농산어촌 관계인구 확대·활용의 필요성 ····· 28

[그림 3-1] 응답자 성별과 연령 ····· 39
[그림 3-2] 응답자의 마을 내 역할 ····· 40
[그림 3-3] 외부의 조직과 자매결연 여부 ····· 41
[그림 3-4] 최근(작년) 1년 동안 교류 정도 ····· 42
[그림 3-5] 교류 조직 유형 ····· 43
[그림 3-6] 교류활동 유형 ····· 44
[그림 3-7] 교류가 마을발전(활성화에) 기여하는 정도 ····· 45
[그림 3-8] 출향민 모임 유무 ····· 46
[그림 3-9] 학교 동창회 모임 유무 ····· 47
[그림 3-10] 외부인 참여 행사, 축제 유무 ····· 48
[그림 3-11] 외부인들과의 교류 및 이주에 대한 인식 ····· 49

[그림 3-12] 외부 주체와의 교류 필요성 ····· 50
[그림 3-13] 마을 공동체 활동 활성화를 위한 지원 요청 의향 ····· 52
[그림 3-14] 응답자 성별과 연령 ····· 53
[그림 3-15] 응답자의 직업 ····· 54
[그림 3-16] 거주지 ····· 55
[그림 3-17] 관계인구 개념 인지 여부 ····· 56
[그림 3-18] 관계인구 필요성 ····· 57
[그림 3-19] 관계인구 필요 이유 ····· 58
[그림 3-20] 농촌거주 경험 ····· 59
[그림 3-21] 출향민모임 참여 여부 ····· 60
[그림 3-22] 학교 동창회 모임 참여여부 ····· 60
[그림 3-23] 농촌지역과 맺고 있는 관계유형 ····· 62
[그림 3-24] 농촌지역 방문 횟수 ····· 63
[그림 3-25] 지난 1년간 농촌지역 활동 ····· 64
[그림 3-26] 향후 농촌지역과 관계 지속 의향 ····· 65
[그림 3-27] 향후 농촌지역과 맺고 싶은 관계 유형 ····· 66
[그림 3-28] 향후 농촌 지역에서 하고싶은 활동 ····· 67
[그림 3-29] 향후 농촌과 관계를 지속할 의향이 없는 이유 ····· 68
[그림 3-30] 농촌지역 활성화와 관계인구 ····· 69
[그림 3-31] 1차 전문가 자문회의 모습(23년 4월 20일) ····· 70
[그림 3-32] 2차 전문가 자문회의 모습(23년 4월 28일) ····· 71
[그림 3-33] 3차 전문가 자문회의 모습(23년 6월 7일) ····· 72
[그림 3-34] 별빛사회적 협동조합 ····· 79
[그림 3-35] 청년마을 비전 ····· 81
[그림 3-36] 별무리학교 전경 ····· 84
[그림 3-37] 토고미 마을 ····· 89
[그림 3-38] 별빛사회적 협동조합 ····· 90
[그림 3-39] 파도살롱&강릉살자 ····· 92

[그림 3-40] 서울농장 지역체험 프로그램 ····· 94
[그림 3-41] 서울농장 워케이션 ····· 96
[그림 3-42] 인천섬 도도하게 살아보기 홍보 ····· 100
[그림 3-43] 인천 옹진섬 도도하게 살아보기 사례 ····· 100
[그림 3-44] 제주 글로벌제주문화협동조합 ····· 102
[그림 3-45] 문경 작은정원 사업(온데이팜) ····· 104
[그림 3-46] 성주 작은정원 사업(가야산 그리네마을) ····· 105
[그림 3-47] 일본 야치요 시민농원 ····· 106
[그림 3-48] 일본 야치요 시민농원 홍보용 팜플렛 ····· 107
[그림 3-49] 운난시 지역인재 육성사업과 지역 서포트 사업 ····· 112
[그림 3-50] NPO법인 '오찌라보'와 지역조직 간의 연계 ····· 113

[그림 4-1] 관계인구 창출 및 확대전략의 기본 방향 ····· 121
[그림 4-2] 주말체류형 농장 예시(농촌형) ····· 129
[그림 4-3] 유럽의 체류형 주말 주택 ····· 132
[그림 4-4] 체류형 Weekend-House 사례 ····· 134
[그림 4-5] 시-도간 관계인구 협력 사례 ····· 139
[그림 4-6] 전남사랑 서포터즈 사례 ····· 141
[그림 4-7] 충남 도농상생 관계 플랫폼 구축 체계도 ····· 144

제 1 장

서론

1. 연구 배경과 목적
2. 연구 방법과 범위
3. 주요 연구 내용
4. 연구 흐름도

1. 연구 배경과 목적

1) 연구 배경

충남은 물론 전국의 농촌지역에서는 마을 소멸, 지방 소멸이라는 용어가 이제는 귀에 익숙할 정도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농촌지역의 인구 문제는 단순히 절대인구가 감소하고 있다는 양적 문제에 그치지 않고, 청년층 인구 비율의 급감 및 고령인구 비율 급증에 따른 인구구조 불균형이라는 질적 문제도 함께 존재한다. 이러한 인구구조의 불균형에 대해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의 보고서[1]에 따르면 비수도권에서는 이미 '인구감소 → 내수 위축 및 인프라 축소 → 지역경제 침체로 인한 일자리 감소 → 인구유출' 이라는 나선형 악순환 구조가 고착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악순환 구조가 지속됨에 따라 농촌마을(지역)이 가지고 있는 본연의 기능인 농산물 생산 기능, 공동체 유지 기능, 환경생태 보전 기능 및 전통문화 계승 기능 등의 공익적 기능들이 상실 또는 소멸 위기에 처해 있다.

그동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서는 이러한 농촌인구 문제 해결을 위해 농업·농촌인구 유입(귀농귀촌, 창업창농 등)정책 및 인구 유출 억제(출산, 보육, 교육 지원 등)정책 등 다양한 시도를 해 왔지만 뚜렷한 효과 없이 정책적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농촌인구 문제 해결에 있어 인구수를 늘리는 방안이 최선책이라 할 수 있으나, 국가 전체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인구 늘리기

1)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2021), 농어촌 정책의 새로운 방향과 과제

정책은 분명 녹록하지 않으며 그 실효성도 높지 않다.

최근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서도 농촌인구 문제 해법으로 '관계인구[2]'에 주목하고 있으며 관련 연구들도 활발해지고 있다. '관계인구'에 대한 정의는 국가 및 학자에 따라서 약간 다른 점은 있지만 '실제 농촌지역에 거주(주민등록)하지 않으면서 농촌지역과 어떠한 형태로든 관계를 맺고 있는 인구(사람)'라는 공통된 정의가 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도시민과 농촌지역의 단순한 관계성이 아닌, 쇠퇴·소멸 위기에 놓여 있는 농촌지역이 활기를 되찾을 수 있게끔 더욱 밀접하고 긴밀한 관계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최근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2023~2027 농업·농촌 식품산업 발전계획'의 5대 전략에서도 '쾌적하고 매력적인 농촌 조성' 부문에 관계인구 확대 전략을 제시하고 있어 정책적으로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성주인(2022)은 도농상생 균형발전전략으로 농산어촌의 '관계인구'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관계인구는 농산어촌 마을의 잠재적 정주인구로 마을사업 운영을 위한 인적 자원이자, 마을 활성화를 위한 외부 지원 주체가 될 수 있다"며 코로나19 이후 귀농·귀촌 의향이 높아지고 농업농촌 생활을 추구하는 문화가 확산되고 있다는 점은 관계인구 확대 정책의 가능성을 보여 준다"고 강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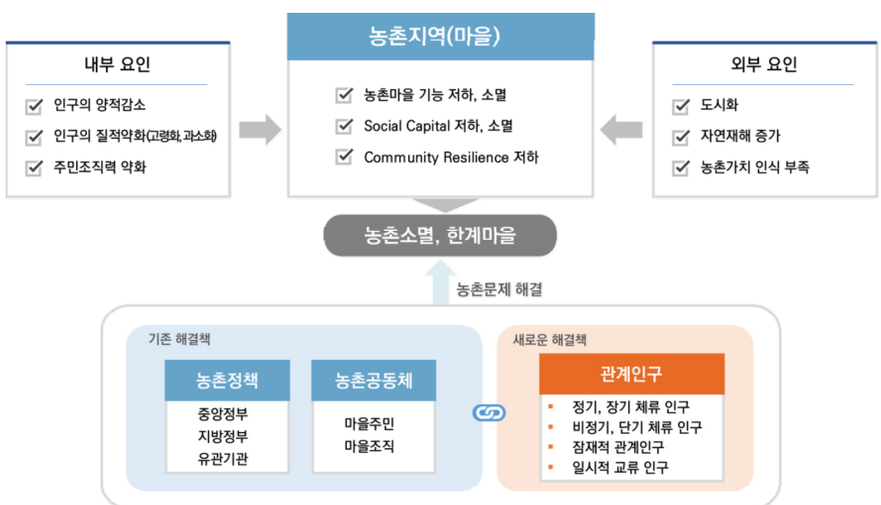
분명 기존의 농촌지역 주민만으로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으며, 농촌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외부로부터의 인적 공급이 필수적이다. 이런 현실에서 관계인구에 대한 관심은 신규 농업인 및 농촌활동가 등 농촌지역 활성화에 필요한 인적자원을 확보할 새로운 기회를 만들 수 있다. 결국 관계인구를 통해 농촌지역과 도시지역 간의 새로운 사람(人的), 새로운 정보(物的) 흐름이 생겨나며, 농촌-도시 상호보완적인 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

---

2) 관계인구에 대한 개념 및 본 연구에서의 조작적 정의에 대해서는 제2장에서 구체적으로 다룸

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궁극적 목적은 쇠퇴·소멸 위기에 놓여 있는 농촌지역 활성화 및 재생을 위해 필요한 인적자원을 관계인구라는 관점에서 발굴하고자 한다. 구체적 연구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충남 농촌지역 및 농촌지역 주민이 요구하는 관계인구에 대한 수요 및 도시민이 관계인구를 어떻게 인지하고 있는지 분석한다. 둘째, 국내외 관계인구 관련 정책과 현장 사례 검토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고 마지막으로 충남 농업과 농촌지역 활성화를 위한 관계인구 창출 및 활용 전략을 몇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제시한다.



[그림 1-1] 농촌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관계인구 필요성 개념도

3) 정책 활용(기대효과)

본 연구는 인구유입, 인구유출 억제라는 기존의 인구정책 관점에서 벗어나 관계인구를 창출하고 확대함으로써 농촌 인구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새로운 방향과 전략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충청남도는 물론 지자체에서 인구정책 수립 시 기초자료로써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 방법과 범위

1) 문헌 조사

(1) 국내 관계인구 관련 도서, 연구보고서, 논문 등 검토

지방행정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등 관련 연구기관에서 출간된 보고서 및 논문 등을 검토하였다. 또한 관계인구의 개념이 처음으로 등장한 일본 문헌으로『지역소멸을 극복하는 관계인구 만들기 '인구의 진화' (다나카 데루미, 더 가능연구소)』,『関係人口をつくる(관계인구 만들기)』,『集落再生(집락재생)』등 관련 도서를 검토하였다. 더불어 충남지역 잠재적 관계인구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한국관광공사 관광객 추이 보고서, 충남 농촌체험마을 방문객 현황 자료 등도 살펴본다.

(2) 국외(일본) 관계인구 정책 사례 보고서

일본 관계인구 관련 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총무성에서 발간한 보고서를 검토하였다. 예를 들어 관계인구의 창출 및 확대를 위한 추진 전략(関係人口の創出拡大に向けた取組について), 관계인구 창출사업 모델사업조사 보고서(関係人口創出モテル事業調査報告書) 및 관계인구 창출 모델사업 성과보고서(関係人口創出モテル事業誠報告書) 등을 검토하였다. 또한 일본의 관계인구 형성 우수 사례 지역의 자료를 수집, 검토하였다.

2) 설문조사 또는 FGI

(1) 농촌지역 주민 대상

충남 농촌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관계인구에 대한 필요성 및 수요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항목으로는 마을 내 관계인구 형성 현황, 마을 발전을 위한 관계인구 창출의 필요성 및 마을 발전을 위해 필요한 관계인구 지원 내용 등이며 설문조사를 통해 그 답을 얻었다. 설문조사 대상은 청양군, 서천군, 금산군 일부 면 지역의 이장 및 주민자치위원 대상으로 실시하였다[3].

(2) 전문가 및 농촌활동가 대상

전문가 및 농촌활동가를 대상으로는 관계인구의 필요성, 관계인구의 역할, 잠재적 관계인구의 유형 및 관계인구 창출을 위한 방안 등을 인터뷰 또는 FGI를 통해 도출하였다.

(3) 도시민 대상

전국에 거주하는 도시민을 대상으로 관계인구에 대한 인지도와 필요성 등을 질문하는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3) 국내외 사례 조사

(1) 국내 조사

국내 사례조사는 현장 방문조사, 문헌조사 및 전문가 인터뷰 자료 등을 토대로 조사하였다. 현장 방문조사로서는 강원도 화천군 토고미 마을, 제천 덕산면

3) 설문조사 관련 상세내용은 제3장에서 다룸

청년회사 사례를 실시하였으며, 문헌 및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경기도 양평군 수미마을, 서울시 서울농장, 문경 가치살자, 강릉파도살롱&강릉살자, 경북형 작은정원 조성 사업 등을 살펴보았다.

(2) 국외 조사

국외 조사는 실제 현지조사가 어렵기에 각종 문헌, 웹 검색 및 일본 전문가 서면 자문 등을 통해 조사하였으며, 관계인구가 처음 등장한 일본을 중심으로 사례조사를 실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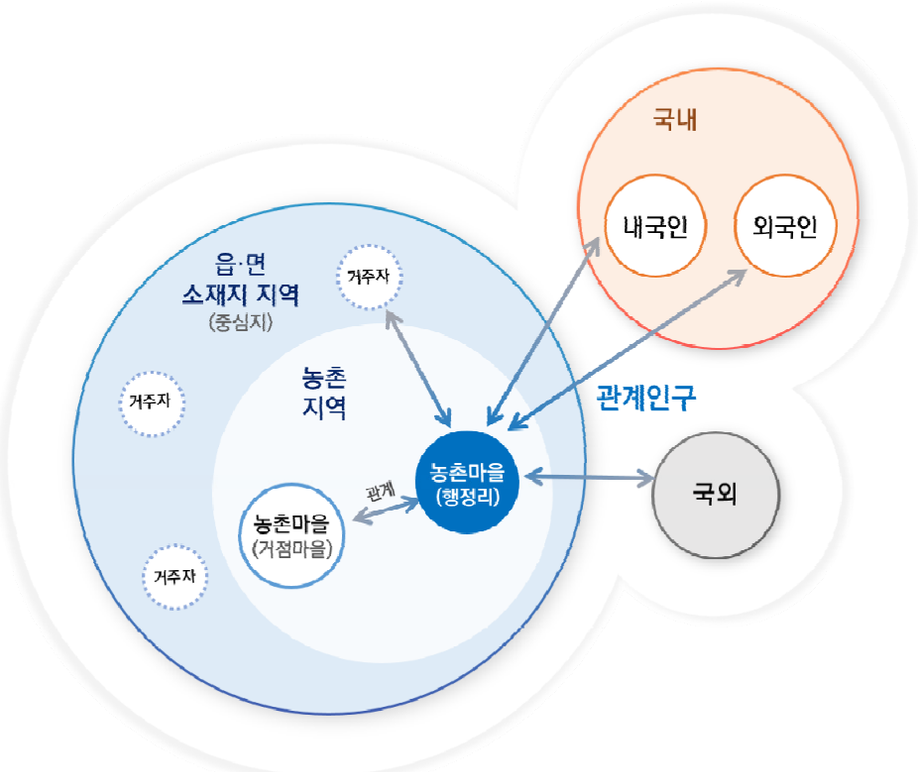
예를 들면, 시마네현 아마쵸의 고등학교 매력화 사업 추진 사례, 야치요 시민농원 조성 사업, 운난시 지역인재 육성사업과 서포트 사업, 시즈오카현 스소노시의 '아무것도 하지 않는 숙박' 사업 등을 조사하였다.

〈표 1-1〉 연구방법 기본틀

구분	상세 구분	주요 내용
문헌 조사	국내 도서, 연구보고서 등	- 지방행정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등 연구보고서 - 관계인구 관련 도서(번역서) 검토
	국외(일본) 정책 보고서	- 일본 총무성 발간 정책 보고서 검토
설문조사 FGI	농촌지역, 도시 주민 대상	- 관계인구에 대한 수요에 대한 의견 수렴
	전문가, 지역활동가	- 관계인구 역할, 관계인구 창출 및 확대 방안 의견수렴
사례조사	국내 지역	- 1사1촌 운동, 지자제 살아보기 우수 사례 등
	국외(일본) 지역	- 총무성에서 발간한 관계인구 우수 사례 검토

4) 본 연구의 범위

본 연구에서의 농촌지역 공간범위는 농촌 커뮤니티의 최소 단위인 농촌마을(행정리)부터 농촌 지역 중심지 기능을 하는 읍면 소재지까지로 설정한다. 또한 상기의 농촌지역과 관계하는 관계인구는 어느 농촌마을(마을주민)과 그 이외의 지역(읍면, 시군, 전국, 외국)의 사람(개인), 조직(단체), 기업 등이 해당된다.



[그림 1-2] 관계인구 거주 지역에 따른 공간적 범위 체계도

3. 주요 연구 내용

1) 이론적 고찰

이론적 고찰 부문에서는 용어 정리와 선행연구 고찰을 하였다. 용어 정리는 관계인구는 물론 관계인구와 유사한 개념을 가진 생활인구, 체류인구, 교류인구, 2지역 거주인구 등에 대한 개념과 특징을 정리하였다. 한편 국내외 관계인구 관련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본 연구와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본 연구의 독창성을 제시하였다.

2) 농촌주민 및 도시민의 관계인구에 대한 수요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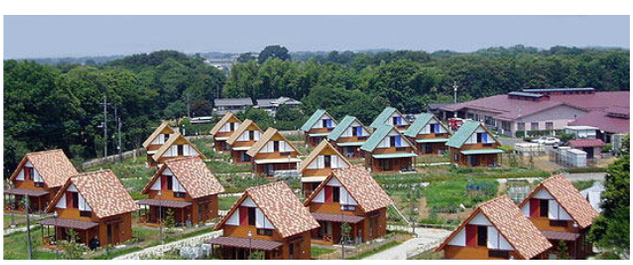
충남 농촌지역(지역주민) 및 전국 도시민은 관계인구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얻고자 하는지에 대한 수요 분석을 설문조사 등을 통해 실시하였다. 또한 전문가, 농촌마을 활동가(리더)와의 인터뷰를 통해 농촌마을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외부로부터 필요한 지원에 대한 수요를 파악하였다.

3) 국내외 사례 검토

관계인구와 관련된 국내외 사례를 정책 사례와 현장 사례로 구분해서 검토하였다. 국내 지역은 되도록 직접 현장을 방문하는 형태의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국외 지역의 경우는 문헌 검토를 중심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외국 전문가로부터 의견 수렴과 자료 수집하였다.

〈표 1-2〉 국내외 사례지역(예시)

부문	지역명	특징
국내	완주 한달살기 및 문화이장	- 지자체 살아보기 우수 사례
	춘천 별빛사회적협동조합	- 농촌유학 우수 사례
	제천 덕산 청년마을	- 지역청년 정착 및 농촌재생
	금산 별무리 대안학교	- 지역주민과 외부인과의 교류
	화천 토고미 마을	- 1사1촌 우수 사례
	문경 가치살자	- 지역 내 청년 정착 사례
	강릉파도살롱&강릉살자	- 지역 내 청년 정착 사례
	서울시 서울농장	- 워케이션, 도농교류 플랫폼
	제주 세화리 워케이션 프로그램	- 마을 워케이션
	인천 인천섬 도도하게 살아보기	- 살아보기 프로그램
	제주 글로벌제주문화협동조합	- 살아보기 프로그램 (농업, 청년일자리 연계)
	경북형 작은정원 조성 사업	- 5도2촌 거주, 작은정원 조성 사례
국외	오끼도우젠 고등학교	- 지역 고등학교 매력화 사업
	일본 시즈오카현 스소노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숙박	- '목소리의 힘 프로젝트': 독거노인 돌봄 활동
	일본 운난시 지역인재 육성사업과 지역 서포트 사업	- 운난시 지역인재 육성사업과 지역 서포트 사업



[그림 1-3] 국외사례 예시

자료: 야치요 시민농원 홈페이지(https://www.town.ibaraki-yachiyo.lg.jp/)

4) 충남 농촌지역 관계인구 창출 및 확대 방안 제시

충남 농촌지역의 실정과 지역주민들의 수요를 고려하여 3가지 유형으로 관계인구 창출 방안을 제시한다. 관계인구의 범위, 성격에 따라 다양한 유형으로 구분이 가능하나, 여기에서는 농촌지역에 체류하는 기간과 관계하는 정도[4]에 따라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유형 1은 농촌지역에 장기적, 정기적으로 체류하는 관계인구이다. 유형 2는 단~중기적, 비정기적으로 농촌지역에 체류하는 관계인구이며 유형 3은 실제 농촌지역으로 방문 또는 체류하지 않는 형태로 관계를 맺는 유형이다. 마지막으로 유형 1~3에 속하지는 않지만 관계인구 창출을 위해 필요한 기반 구축 방안도 제시하고자 한다.

4) 본 연구에서는 관계의 양적 정도를 시간 단위로 명확히 구분하지 않음. 유형 구분 기준에 대해서는 본문 26~27페이지 참고

4. 연구 흐름도

〈표 1-3〉 연구 흐름도

서론 (1장)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 방법 및 내용
이론적 고찰 (2장)	1. 용어 검토 1) 관계인구, 2) 생활인구, 3) 교류인구, 4) 체류인구 2. 선행연구 검토 1) 국내 선행연구, 2) 국외 선행연구,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관계인구 수요분석 및 국내외 사례 검토 (3장)	1. 관계인구 인식 및 수요 분석 2. 국내외 사례 검토 1) 사례 검토 개요 2) 유형 1: 정기·장기체류 인구 3) 유형 2: 비정기·단기체류 인구 4) 유형 3: 잠재적 관계인구 3. 소결
관계인구 창출 및 활용 전략 (4장)	1. 관계인구 창출을 위한 기본 방향 2. 유형별 관계인구 창출 및 활용 전략 1) 유형 1: 충남 도농상생 주말농장 조성 사업 2) 유형 1~2: 충남 체류형 Weekend-House 3) 유형 1~2: 충남 농촌Enjoy-Study(유학;遊學) 사업 4) 유형 3: “충남&경기 도농상생 한마당의 날” 5) 유형 3: “충남 관계 서포터즈”
결론 (5장)	1. 요약 2. 정책 제언

제 2 장

이론 고찰

1. 용어 정리
2. 선행연구 검토

1. 용어 정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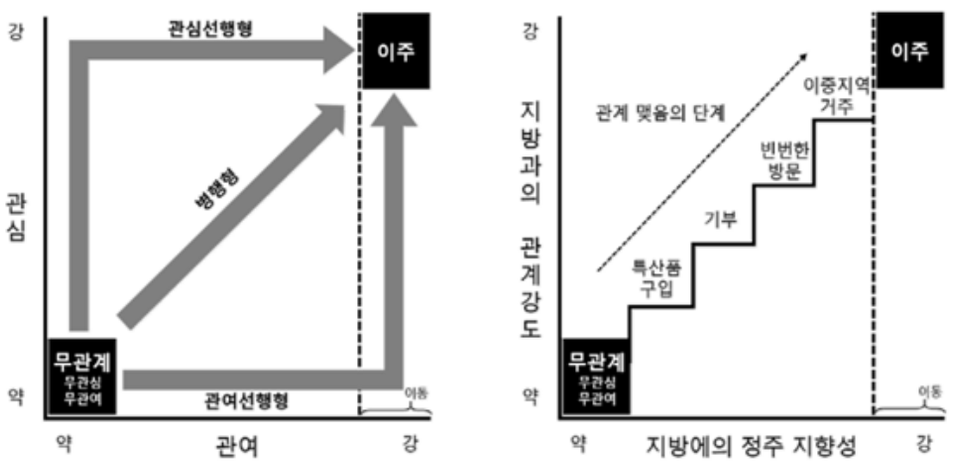
1) 관계인구

일본에서 등장한 관계인구라는 용어는 학술적 배경에 의해 탄생한 개념이 아닌 지역 현장에서 다양한 활동가에 의해 탄생한 용어이다. 즉 현장 활동가들이 제안하고 관련 활동들을 실천하면서 그 사례들이 축적된 이후 전문가들이 관계인구의 개념을 정립하였다.

관계인구가 최초로 등장한 것은 타카하시 히로유키의 '도시와 지방을 혼합하는 기적(2016)'이라는 서적에서 '일회성 관광객(교류인구라고 표현)은 지역에 이바지하는 것이 약하고, 실제 정주하기에는 진입장벽이 높다. 따라서 교류인구[5]와 정주인구 사이에 있는 인구를 관계인구'라 표현하였다. 한편 사시데 카즈마사는 '우리들은 지방에서 행복을 찾는다(2016)'에서 미래 시대는 '관계의 시대'라 선언하고 관계인구를 관계+인구 두 단어의 뜻 그대로 지역과 관계를 맺는 인구라는 의미로 표현하였다. 구체적인 예로 어느 지방(지역)에 자주 방문하거나 응원하는 사람으로 재능기부, 봉사활동, 고향사랑 기부자가 해당한다고 하였다. 다나카 테루미의 '관계인구 만들기(2017)'라는 서적에는 관계인구를 어느 지역에 살지 않더라도 지역과 다양한 형태로 관계 맺는 사람들이라 정의하였다. 즉 지역에 살지 않더라도 지역 활기를 위해 응원하고, 관계를 맺는 사람들이 늘어나면 그 지역은 활기를 되찾을 수 있다는 의미가 담겨있다. 그 이후

5) 다카하시는 교류인구를 관광, 농촌체험, 체험학습 등 일시적이며 단순한 관계의 인구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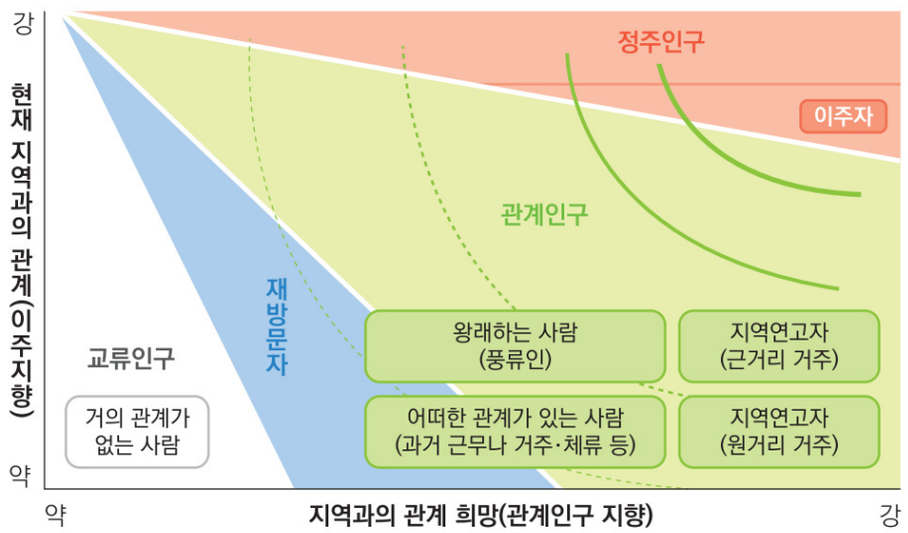
오다기리 코쿠미 교수는 관계인구의 개념을 '관심'과 '관여'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하고, 무관계와 이주라는 양극에 포함되지 않는 중간지대에 포함되는 인구로 정의하였다. 즉 중간지대에 포함되는 인구 가운데 농촌에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방식으로 관계를 맺는 사람들의 총칭을 의미한다.



[그림 2-1] 관계인구의 도식(좌)과 관계인구의 단계(우)

출처: 류영진(2020), '일본의 관계인구 개념의 등장과 의미, 그리고 비판적 검토. p.12

한편 일본 총무성과 국토교통성에서는 관계인구 유형을 지역과의 관계 희망(관계인구 지향)이라는 축과 현재 지역과의 관계(이주지향)축을 설정하고 양 축의 강약에 따라 근거리 거주자, 원거리 거주자, 어떠한 형태의 관계자, 바람의 사람이라는 4가지의 유형으로 관계인구를 구분하였다. 성주인 외(2021)는 농촌지역과의 활동 유형에 따라 '농산어촌 활동 의향 인구(저변인구)', '지역 저변 관계인구(관계인구 Ⅱ)', '지역핵심 관계인구(관계인구 Ⅰ)'로 구분하였다.



자료 : 總務省(2018), 'これからの移住·交流施策のあり方に関する検討会 報告書(https://www.soumu.go.jp/main_content/000568242.pdf, 2021년 3월 18일 검색)

[그림 2-2] 지역과의 관계성에서 본 관계인구의 형태

자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21. 지방소멸대응을 위한 관계인구 활용전략.

구분		활동 유형
지역핵심 관계인구 (관계인구Ⅰ)	지역 인적 자원으로 조직화	■ 지역 공동체조직 활동 (사회적경제 조직, 공동체 조직 등) ■ 지역 정기 방문 및 후원 ■ 정기적 재능 기부 활동 ■ 지역 활성화를 위한 전문적 자문, 지원 (외부 전문가, 창조인력 및 현장 지원 그룹)
지역 저변 관계인구 (관계인구Ⅱ)	지역과 연관된 개별 활동	■ 지역 방문(일회성 방문 제외) ■ 지역 농특산물 지속 구매 ■ 지역 내 경제활동(출입농, 통근 포함) ■ 지역 이주 목적의 정보탐색 ■ 지역 거주 체험 ■ 2지역 거주(별장, 주말 거주 등)
농산어촌 활동 의향 인구 (저변인구)	장래 농산어촌 활동 추구 의향	■ 농산어촌에 대한 지속적 관심 ■ 농산어촌 정보 탐색(지역 미특정)
일반 국민	농산어촌에 대한 관심 또는 활동 의향 없음	

[그림 2-3] 관계인구 유형 및 개념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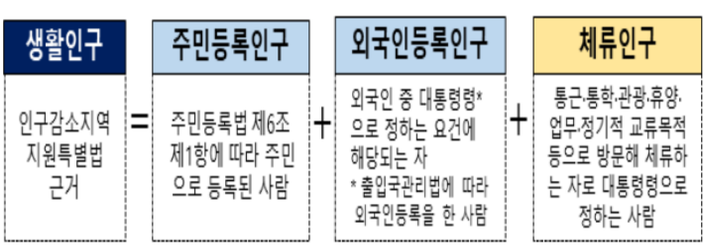
자료: 성주인 외. 2021. 균형발전을 위한 농산어촌 관계인구 활용방안 연구.

2) 생활인구

2022년 6월 10일 제정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서는 생활인구를 특정 지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면서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으로서 ①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에2) 따라 주민으로 등록한 사람, ② 통근·통학·관광·휴양·업무·정기적 교류 등의 목적으로 특정 지역을 방문하여 체류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③ 외국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 중 생활인구에 포함되는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 등록을 한 사람을 말한다. 체류하는 자는 주민등록지가 아닌 지역에 소재한 직장에 근무하는 경우, 학교에 다니는 경우, 관광·휴양지를 방문하여 체류하는 경우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하혜영, 류영아, 2022).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은 생활인구의 확대 지원 규정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와 지방 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 내에 생활인구를 확대하는데 필요한 지원시책 등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제15조제1항).



[그림 2-4] 생활인구의 구성

자료: 하혜영, 류영아. 2022. 새로운 인구개념인 생활인구의 의미와 향후과제. 국회입법조사처.

생활인구 법적 정의에 주민등록 인구를 포함하여 특정지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사람을 포함하고 있어 정주인구와 비정주인구를 포괄하여 점차 생활인구로 그 개념이 정리될 것으로 예상된다(안소현 외, 2022).

〈표 2-1〉 국내 인구개념 비교

용어	개념	기준	비고
주민등록인구	주민등록 전산망을 이용하여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내국인 인구를 집계하여 작성한 인구수	주민등록법에 의거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내국인	행정안전부
상주인구	거주인구의 개념 기반으로 조사대상 인구를 등록된 거주지역에 귀속시켜 계상하는 인구	주민등록부, 건축물대장 등 행정자료를 이용	
주간인구	해당 지역의 상주인구에 타 지역으로부터 유입된 통근·통학인구(주간유입인구)를 더하고 타지역으로 유출되는 통근·통학인구(주간유출인구)를 뺀 인구	낮 시간	
통계청 유동인구	특정지점, 일정시간 기준의 유입, 유출, 이동 인구수	2시간 이상	통계청
서울 생활인구	서울에 주소지를 둔 사람은 물론 업무, 관광, 의료, 교육 등 일시적으로 서울을 찾아 행정수요를 유발하는 인구를 총칭하며 특정시점에 서울의 특정지역에 존재하는 모든 인구로 현주인구(de facto population) 또는 현재인구, 서비스인구	주간: 9시간이하 야간: 13시간 이하	서울시
부산 서비스인구	상주인구와 관광, 쇼핑, 의료, 교육 등 일시적으로 부산을 찾아 행정 수요를 유발하는 인구를 총칭	조사되는 시점 당시 지역을 기반으로 집계	부산시
제주 생활인구	거주 목적으로 제주지역에 일정시간 이상 체류하는 상주인구와 관광 등의 목적으로 제주지역을 방문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유동인구를 합한 인구수	관광객수 × 계획일집중률 × 동시 체재율	제주시
전북 체류인구	관광, 직장, 업무, 교육, 생활서비스 등의 목적으로 주민등록지 이외의 지역을 방문하여 하루 이상 머무르는 인구	단기(1일~1개월 내) 중장기(1개월이상~	전라북도
전남 관계인구	해당 지역에 정착하지 않고 지역 경제, 지역 주민 등과 관계를 맺으며 지역사회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인구	해당사항 없음	전라남도
↓			
「인구감소지역 지원특별법」의 생활인구	특정 지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면서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의미 가.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주민으로 등록한 사람 나. 통근, 통학, 관광, 휴양, 업무, 정기적 교류 등의 목적으로 특정 지역을 방문하여 체류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다. 외국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가)의 경우, 주민등록부 나)와 다)의 경우 시행령 제정시 기준이 제시될 것으로 예상	행정안전부

자료: 안소현 외. 2022. 체류인구를 활용한 지역유형별 대응전략 연구. 국토연구원.

원자료: 김동영 외, 2020, p.16; 김동영·김형오, 2018, p.6; 서울특별시 정보기획관, 2018, p.6; 「인구감소지역지원특별법」; 전라남도 청년인구 유입·정착 지원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인구정책 기본조례; 통계청, 2020을 토대로 작성함

3) 교류인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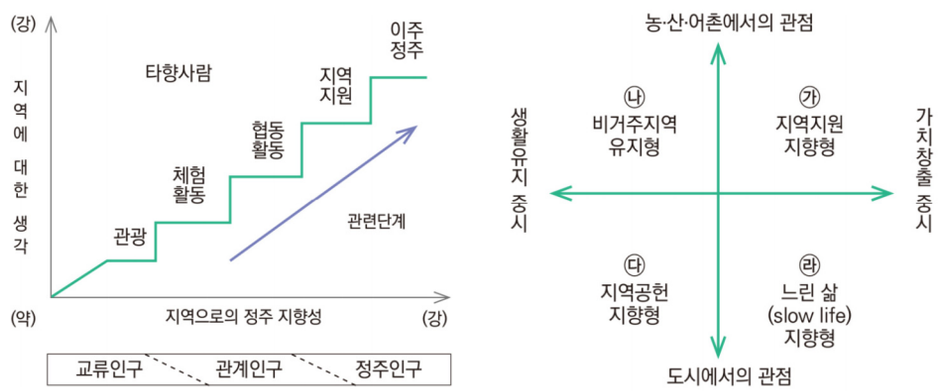
교류인구란 외부로부터 당해 지역을 방문하는 사람을 말하며, 그 지역에 사는 정주인구나 거주인구와 대비되는 개념이다. 방문 목적은 통근·통학, 쇼핑, 문화감상, 학습, 관광, 스포츠, 레저 등 다양하지만 지방창생에서는 주로 관광을 목적으로 방문하는 것을 교류인구라고 하고 있다(이소영, 김도형, 2021).

관계인구보다 더 일찍 정책에서 활용된 개념으로 교류인구는 1990년 일본경제신문에서 처음 등장하였고, 이후 1994년 일본 국토청이 개념을 제시하였다. 여기에서 교류는 지역의 방문 여하를 불문하고 그곳에 무엇인가 효과가 있는 관련성을 말하고, 교류의 효과나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요구되는 생각의 지표가 교류인구에 해당하는데, 이것은 정주인구를 보완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즉 교류인구란 해당 지역의 방문과 관계없이 어떤 이유로든 지역과 관련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삼는다(한주성, 2019; 이소영, 김도형, 2021).

최근 도입된 관계인구와 달리, 교류인구는 계측지표가 한정되어 있고, 경제적 관점에서 지역에 대한 영향 또는 지역을 뒷받침하는 관점이 없어 이들을 반영하는 관계인구 개념이 등장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作野廣和, 2019).

이외에도 야마나시현에서는 교류인구 중에서도 야마나시를 지지하고 경제적인 공헌도나 애착, 귀속 의식이 높은 사람들을 연계 인구라고 정의하여 이를 확대하는 것을 통하여 장래 정주 인구의 증가로 이어지도록 한다고 프로젝트의 목적과 그 핵심 주체로서 연계 인구라는 개념을 소개하였다(이소영, 김도형, 2021). 연계인구는 정주를 지향하지 않고, 지역에 대하여 호감을 느끼는 이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관계인구와 유사하지만, 기본적으로 교류인구라는 개념에 기반을 둔 행정적, 경제적 효율을 중시한 개념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류영진, 2020).

일본 국토교통성(2018)은 '교류인구'란 관계인구의 의미에 함께 포함되는 개념이었지만, 어느 시기부터 단순히 '관광인구', '여가인구'로서 해석되기 시작되었다고 지적하고, 이를 다시 보완하기 위한 개념으로 관계 인구라는 개념이 중요하다고 설명하고 있다(성주인, 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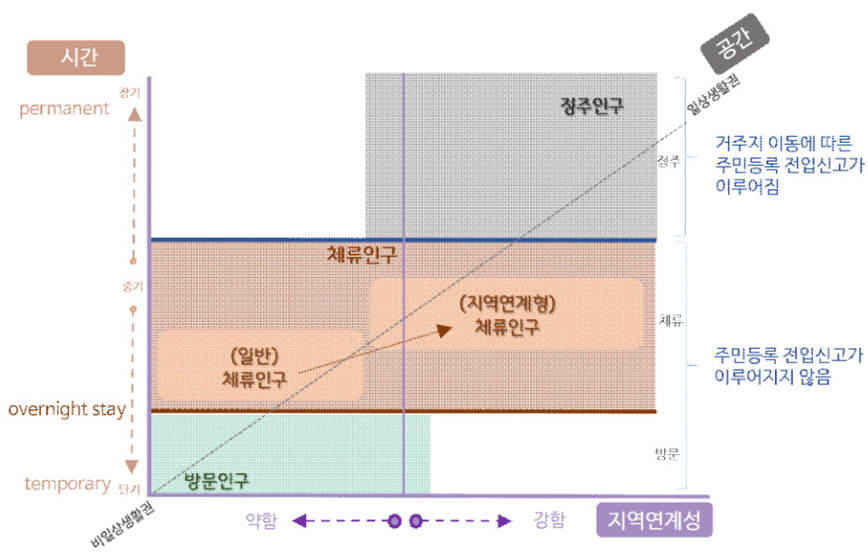
[그림 2-5] 교류·관계·정주인구의 단계별 위치

자료: 이소영, 김도형. 2021. - 작지만 강한 연결 - 관계인구를 활용한 인구유입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원자료: 中川秀一(2019)(좌), 作野廣和(2019)(우), 여기서는 한주성(2020)에서 재인용

관광으로 시작해 어떤 계기로 해당 지역을 방문하는 사람은 교류인구로 여겨지는데, 같은 지역을 오가기를 거듭하면 그곳에서 교류가 발생하게 되고, 교류자와 정주자에 의해 협동이 발생하고 해당 지역과의 관계가 깊어지며, 나아가 지속적인 드나듦에서 해당 지역의 과제 해결이나 지역자원의 활용 등에 대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움직임을 보이게 된다. 이러한 움직임이 계속되면 지역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는 동시에 당사자의 의식도 더욱 높아져 최종적으로 이주해 정주인구에 다다르게 된다. 그러나 모든 관계인구가 정주인구를 겨냥하는 것은 아니므로, 〈그림2-5〉는 인구 정의별 단계성을 나타내는 동시에 관계인구의 다양성을 나타낸 것이다(이소영, 김도형, 2021).

4) 체류인구

안소현 외(2022)는 “인구 감소시대, 체류인구를 활용한 지역유형별 대응전략 연구”에서 체류인구에 대한 광의적 개념이란 주민등록을 하지 않은 특정지역에서 1박 이상 체류[6]하는 인구로 정의하였다. 체류 인구의 특성으로는 주소지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는 단기 이동의 시·공간적 차원으로 인해 기간, 빈도, 주기성, 계절성, 공간적 영향(체류인구의 비중) 등에서 정주인구와 구별되는 특성을 형성하고 있다.



[그림 2-6] 방문-체류-정주 단계의 개념도

자료: 안소현 외. 2022. 체류인구를 활용한 지역유형별 대응전략 연구. 국토연구원. 34p.

국외에서 체류인구와 가장 유사한 개념은 호주, 유럽국가를 중심으로 정주인

6) 안소현 외(2022)에서 체류인구의 시간축을 1박 이상으로 설정한 이유는 숙박 행위로 인해 당일 방문인구와 지역에서 머무는 행태가 다르고, 지역사회의 자원을 당일 방문인구보다 더 소비하기 때문으로 정의하였음

구 이외 즉, 비정주인구의 일시적인 이동(temporary mobility)에 대해 체계적으로 접근할 필요성으로 제기된 temporary population, temporary mobility로 볼 수 있다. Temporary population/mobility는 거주지 변경을 수반하지 않은 채 최소 1박 이상의 비영구적 이동을 의미한다(Bell, 2004; Charles-Edwards et al.,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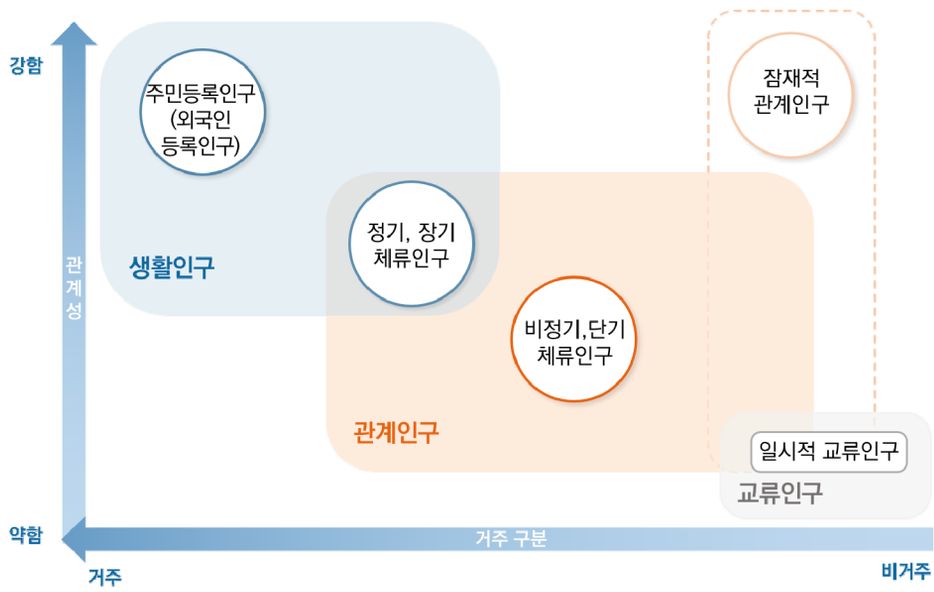
〈표 2-2〉 체류인구와 관련된 개념 정리

선행연구	용어	개념
Bell and Ward(2000)	Temporary mobility	거주지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공간적 이동으로 지속시간이 다양한 이동을 통해 발생
Bell(2004)	Temporary mobility	생산 또는 소비 관련 목적을 위해 거주지에서 최소 1박 이상 떠나는 비영구적 이동
Charles-Edwards et al. (2020)	Temporary population	거주지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거주지로부터 1박 이상의 이동
김동영 외(2020)	전북 체류인구	관광, 직장, 업무, 교육, 생활서비스 등의 목적으로 주민등록지 이외의 지역을 방문하여 하루 이상 머무르는 인구

자료: 안소현 외. 2022. 체류인구를 활용한 지역유형별 대응전략 연구. 국토연구원. 34p.

5) 관계인구의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는 관계인구의 범위를 생활인구, 교류인구에 중복되거나 일부 포함되지 않는 범위에 속하면서 농촌지역(마을~읍면)에 주민등록을 하지 않은 인구로 정하며, 여기에 속한 인구가 다양한 방법으로(인적지원, 재정지원, 물적지원, 정보지원 등)로 농촌지역 본연의 기능 유지와 발전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는 사람(인구)을 말한다(그림 2-7).



[그림 2-7] 거주구분-관계성에 따른 관계 인구 관련 용어 체계도

〈표 2-3〉 관계인구 관련 용어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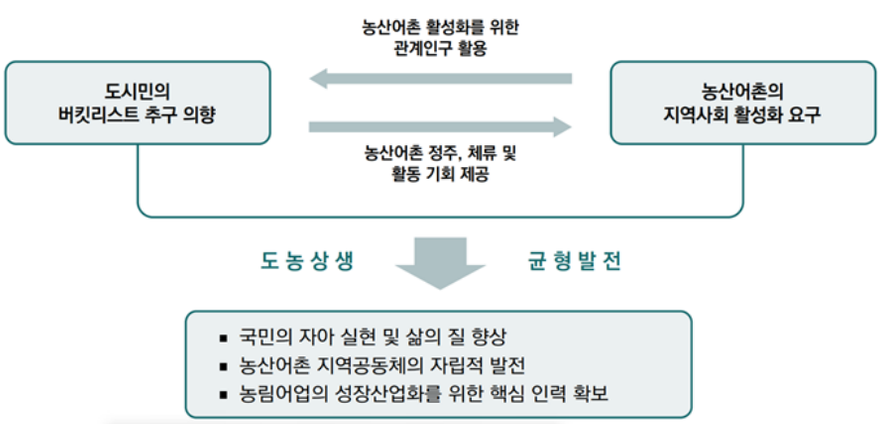
구분		특징	예시
생활인구	주민등록인구	·거주 ·장기체류	·주민등록 인구(정주인구)
관계인구	정기, 장기 체류인구 (1유형)	·비거주 ·정기적 방문 ·장기 체류 (일 3시간(일정시간) 이상 정기적 체류, 숙박체류시 1개월 이상)	·통근/통학 인구 ·외국인 등록 인구 ·봉사활동/재능기부자 ·의료서비스 수요 인구 ·군인
	비정기, 단기 체류인구 (2유형)	·비거주 or 일시적 거주 ·비정기적 방문 ·단기 체류(1개월 미만)	·고향 방문 인구 ·살아보기 체험객 ·5도2촌 거주인(별장, 농막 등)
	잠재적 관계인구 (3유형)	·비거주 ·비정기적 방문 or 비대면(방문x) ·단기 체류 or 비대면	·출향민 ·고향사랑기부제 기부자 ·농특산물 구매자(온라인 등) ·귀농귀촌 교육 이수자 ·농촌체험마을 방문객 ·관광객(2회 이상 재방문) ·농촌마을 유튜브 등 SNS 구독자 ·부재지주
교류인구	일시적 교류인구	·비거주 ·일회성 방문 ·초단기 체류(1~2일 정도)	·일회성 관광객 ·일회성 쇼핑객 ·일회성 출장자

2. 선행연구 검토

1) 국내 선행연구 검토

차미숙(2020)은 농촌지역 인구 정책의 새로운 관점으로 '관계인구'에 착목하여 일본의 관계인구 개념과 정책 사례를 분석하였다. 또한 본 연구를 통해 기존의 귀농귀촌 등 이주에 의한 정주인구, 관광을 통한 '체류인구'가 아닌 지방과의 '연결'구축을 위해 지방과 다양한 관계를 맺은 '관계인구'의 창출 및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성주인 외(2022)는 관계인구가 농산어촌 지역 활성화를 위한 인적 자원의 역할을 하며, 앞으로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관계인구의 확대는 농촌지역 활성화뿐만 아니라 국민 전반적인 삶의 질 제고에 이바지할 것으로 주장하였다.



[그림 2-8] 농산어촌 관계인구 확대·활용의 필요성

출처: 성주인 외. 2021. '농산어촌 관계인구 현황과 의의'.

또한 농산어촌 관계인구를 ‘농산어촌 활동 의향 인구’, ‘지역 저변 관계인구’, ‘지역 핵심 관계인구’로 구분하고 각 활동 유형을 도출하였다. 또한 도시민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농산어촌 관계인구 현황과 특성을 밝혔다.

박진욱 외(2021)는 관계인구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우리나라 실정과 특성에 맞는 관계인구 개념 정립과 기준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농촌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외부로부터 지속적인 자극과 활력의 공급이 필요하며, 이러한 자극과 활력을 관계인구에서 찾을 수 있다고 하였다. 관계인구에 대한 관심은 농촌의 현장 인력 및 활동가 등 농촌지역 활력을 위해 필요한 새로운 인적 자원을 지원받을 기회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류영진(2020)은 2016년 일본에서 처음 사용되기 시작한 ‘관계인구’의 개념들이 지역현장, 전문가, 행정에서 어떻게 정립됐는지 시계열적으로 정리하였다. 특히 관계인구의 개념형성 과정을 고찰하면서 관계인구 개념이 가지는 의미를 구체적으로 파악, 분석한 연구로 그 의의가 있다.

이소영 외(2021)에서는 일본의 관계인구 개념과, 정책 방향, 정책사업 등을 검토하면서 우리나라에서의 관계인구를 활용한 인구유입 방안을 모색하였다. 특히 경북지역 관계인구의 발굴과 육성 등을 통해 새로운 인구유입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자치단체 차원에서의 관계인구 발굴과 육성을 모색했던 선구적 연구라 할 수 있다.

조원지 외(2023)는 전북 관계인구 현황을 관심인구, 교류·체류인구로 구분하여 파악하였으며, 국내외 관계인구 정책과 실천사례를 검토하였다. 또한 전북지역 관계인구 활용 방안을 잠재적 관계인구, 지역 저변 관계인구, 지역 핵심 관계인구로 구분하여 세부 방안(사업)을 제시하였다.

양진홍 외(2021)는 농촌 인구정책의 현황 및 다양한 거주 실태를 검토한 후

농촌인구 정책의 한계점을 분석하고 인구문제 해결방안으로 다지역-순환거주라는 새로운 접근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다지역-순환거주의 다양한 유형을 제시한 후 실제 구현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도출하였다.

유학열(2022)은 충남 농어촌 과소지역의 활성화 전략으로 관계인구에 착목하여 단계별 관계맺기 살아보기를 제안하였다. 살아보기 단계를 1단계 체험형 살아보기, 2단계 탐색형 살아보기, 3단계 활동형 살아보기로 구분하여 살아보기 기간과 활동 내용을 제시하였다. 1단계는 농촌지역에 단기간 체류하면서 자유롭게 살아보는 단계이며 2단계는 농촌지역에 일정 기간 거주하면서 지역주민들과의 교류 활동, 재능 기부 활동, 마을 행사 참여 등 농촌지역과 관계 형성을 유도하는 단계이다. 마지막 3단계는 농촌지역에 실제 거주하지 않지만, 그 농촌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 정기적 활동을 하는 단계로 정리하였다.

2) 국외 선행연구 검토

千本直男 외(2019)는 일본 우쯔노미야시를 대상으로 관계인구 및 빈집 현황을 파악한 후 빈집을 활용한 관계인구 창출 방안을 제시하였다. 창출 방안은 관계인구화(化)를 저위 단계와 고위 단계로 구분하여 단계별로 방안을 제시하였는데 저위 단계에서는 빈집을 활용한 민박 지원 사업, 민박 이용자(방문객)에게 지역관광, 향토음식 등에 관한 정보 및 서비스 지원 사업이 있다. 고위 단계에서는 일시적으로 정주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지역과 계속 관계를 맺게 해주는 다양한 서비스 지원 사업을 제시하였다.

前嶋了二(2019)는 관계인구와 지역 관광진흥과의 관련성에 착목하여 관계인구의 총량을 정량적,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정량적 평가 방법을 제안하였다. 정량적 평가 방법으로 고려된 지표로서 고향사랑기부자수, 농산물직매장

회원수, 농촌체험 참가자수, 농촌지역 자원봉사자수, 지역 관광지 방문객수 등을 고려하였다.

小田切徳美(2019)는 관계인구를 '연결해주는 지원 기능'이라는 측면에서 관계인구의 필요성과 의의를 정리하였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연결해주는 지원 기능'은 관계인구를 늘리기 위해 이주, 2지역 거주, 지역과의 관계성 강화 등을 지원하는 기능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또한 '연결해주는 지원 기능'을 사람과 지역을 연결하는 '창구 기능',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조정 기능', 미래와 연결하는 '계속 기능'으로 구분하여 기능별 전략을 모색하였다.

츠카모토 다케유키(Tsukamoto Takayuki, 2011)는 지역 외부의 인재를 유치, 배치에 대한 시사점을 실제 운용하고 있는 '지역부흥협력대'의 활동 사례를 통해서 도출하였다. 츠카모토는 지역 외부로부터 인재를 유치하는 농촌지역 지자체는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절차에 의해서 유치해야 하며, 지역으로 들어오는 활동대원과의 충분한 합의 형성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하였다. 물론 농촌지역에서 활동하려는 지역부흥협력대원 자신의 노력도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하였다.

구와바라 요시키(Kuwabara Yoshiki, 2016)는 다양한 형태(시책)로 추진되고 있는 외부 주체들에 의한 농촌지역 활성화의 성공 요인으로서 중간지원조직(NPO법인, 시민단체 등)에 의한 지원이 매우 유용하며 중간지원조직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외부주체들의 지속적 지원활동을 위해서는 지역 자원관리 및 지역만들기 활동의 후계자로 육성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3) 소결: 선행연구와 본연구와의 차별성

선행연구의 성과는 무엇보다 관계인구의 등장 배경과 개념에 대해 농촌지역

인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접근이라는 관점에서 관계인구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개념을 정립하였다는 점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관계인구라는 용어가 처음 등장한 일본의 정책 사례 검토를 통해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의 관계인구 유형과 형성을 위한 기본 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점도 선행연구의 성과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선행연구에서 다룬 국내외 관계인구 정책 사례 검토는 단순히 정책 개요 정도를 소개하는 수준으로 그 정책이 실제로 농촌 현장에서 어떠한 성과를 나타냈는지 등 심층적으로 분석하지는 못했다. 또한 농촌지역 또는 농촌주민의 입장에서 관계인구가 왜 필요하며, 필요하다면 어떤 부분을 기대하는지 즉 수요자 측면에서 관계인구를 분석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특히 도시민을 대상으로 관계인구의 인지도 및 필요성 등을 분석한 연구는 거의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수요자 측면에서 관계인구의 필요성 분석, 국내외 관계인구 정책 사례의 심층 분석(성과 분석) 등을 통해 실천할 수 있는 충청남도 농업·농촌 활성화를 위한 관계인구 창출 및 확대 전략을 제시함으로써 선행연구와의 차별성을 찾고자 한다.

〈표 2-4〉 선행연구 검토

	집필자	연구 목적 및 주요 내용
선행 연구	차미숙(2020)	- 일본의 관계인구 개념과 정책 사례 분석 - 관계인구 창출 및 확대의 필요성 강조
	성주인 외(2021)	- 관계인구의 농촌지역에서의 인적 자원 역할 확대 - 관계인구 확대는 농촌지역 활성화에 기여 - 관계인구를 '농산어촌 활동 의향 인구', '지역 저변 관계인구', '지역 핵심 관계인구' 3가지 유형으로 구분
	이소영 외(2021)	- 관계인구 개념 및 유형 정리 - 관계인구 해외 정책 검토 - 관계인구를 활용한 경북지역 인구유입 전략
	류영진(2021)	- 관계인구 개념 형성 과정 고찰 - 관계인구 개념과 의의 정리 - 관계인구의 비판적 검토
	박진욱 외(2021)	- 관계인구의 중요성과 필요성 강조 - 농촌지역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서는 외부로부터의 인적 자원 공급이 중요 - 관계인구가 농촌지역의 새로운 인적 자원으로서 역할
	조원지 외(2023)	- 국내외 관계인구 정책과 실천사례 분석 - 전북지역 관계인구 활용 방안 제시
	양진홍 외(2021)	- 농촌인구 해결방안 다지역-순환거주 개념 제시 - 다지역-순환거주 실현을 위한 제도적 방안 제시
	千本直男 외(2019)	- 빈집을 활용한 관계인구 창출 방안 제시 - 관계인구를 저위 단계~고위 단계로 구분 방안 제시
	前嶋了二(2019)	- 관계인구의 정량적 평가 방법 제안 - 관계인구 정량 지표로서 고향사랑기부자수 등 제시
	小田切徳美(2019)	- 관계인구를 '연결해주는 지원 기능' 측면에서 필요성 제시 - 사람과 지역 연결, 사람과 사람 연결, 미래와 연결
	Tsukamoto Takayuki(2011)	- 지역부흥협력대 활동 사례 검토 - 지역주민과 외부주체와의 연계성 강조
	Kuwabara Yoshiki, (2016)	- 농촌지역 활성화 요인으로 NPO 역할 강조 - 지역활동가, 지역자원관리 인력 육성 강조
본 연구	유학열 외(2023)	- 농촌주민 및 도시민 관점에서 관계인구 정책수요 분석 - 국내외 관계인구 정책 및 현장사례 성과 분석 - 충남 농업농촌 활성화를 위한 관계인구 창출 및 확대 전략

제 3 장

관계인구 인식·수요 분석 및 사례 분석

1. 관계인구 인식·수요 분석
2. 관계인구 사례 분석
3. 소결

1. 관계인구 인식 및 수요 분석

1) 분석 방법

관계인구가 과연 농촌지역 또는 농촌주민의 측면에서 볼 때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어떠한 측면에서 필요한지? 대한 수요 분석을 시행하였다. 수요 분석은 크게 농촌지역 주민과 도시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전문가 의견 수렴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먼저 농촌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는 관계인구에 대한 수요자 중심의 인식 파악을 위해 충남에 거주하고 있는 농촌지역 주민으로 하였다. 특히 마을 현황 및 실태를 잘 알고 있으며 외부 주체들과의 교류 현황에 대해서도 신뢰성 있는 답변을 줄 수 있는 마을 이장 또는 마을주민자치회 위원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표 3-1〉 설문조사 개요

구분	조사 개요
조사 대상	충남지역 농촌지역 거주민(마을 이장 또는 주민자치회 위원)
조사 지역	청양군 운곡면, 금산군 진산면, 서천군 종천면 마을 이장 또는 주민자치회 위원 홍성군 홍성읍 및 홍북읍 농촌지역 주민
조사 방법	집단면접법
조사 기간	2023년 5월 10일 ~ 5월 25일

주요 설문 항목은 거주지, 성별, 나이 등 인구학적 통계를 위한 기본항목과 관계인구에 관한 인지도, 중요성 및 외부 주체들과의 교류 실태 등으로 구성하였다. 설문조사는 2023년 5월에 실시하였으며, 연구자도 함께 참여하는 집단면접식으로 진행하였다. 조사 대상 지역은 청양군 운곡면, 금산군 진산면, 서천군 종천면, 홍성군 홍성읍, 홍북읍이다.

다음으로 농촌지역과의 관계인구에 대한 정책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전국의 도시지역 거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다. 주요 설문 항목은 거주지, 성별, 나이 등 인구학적 통계를 위한 기본항목과 관계인구 개념에 대한 인지 및 필요성, 농촌지역과 관계 및 활동 실태 등으로 구성하였다. 설문조사는 2023년 8월에 실시하였으며, 구글폼을 활용한 비대면 인터넷 서베이로 실시하였다. 응답자 거주지는 서울, 경기, 대전 등 주요 대도시권에 거주하는 거주민을 대상으로 하였다.

〈표 3-2〉 설문조사 개요

구분	조사 개요
조사 대상	도시지역 거주민
조사 지역	전국 도시지역 거주민
조사 방법	구글폼을 활용한 인터넷 서베이
조사 기간	2023년 8월 8일 ~ 8월 13일

마지막으로 전문가 의견 수렴은 모두 3차례(23년 4월 20일, 23년 4월 28일, 23년 6월 7일) 실시하였으며 총 7명의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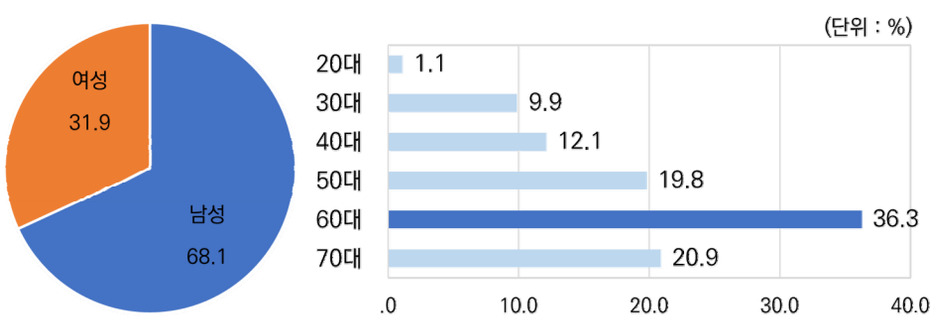
2) 농촌지역 주민 설문조사 결과

(1) 응답자 일반현황 분석

관계인구 실태 및 정책 수요조사는 91명의 농촌마을 리더(이장, 주민자치회 위원)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응답자의 성별은 “남성”이 68.1%, “여성”이 31.9%이며, 연령은 “60대”가 36.3%, “70대” 20.9%, “50대” 19.8%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3-3〉 응답자의 성별 및 연령대

구분		빈도(명)	비율(%)
성별	남성	**62**	**68.1**
	여성	29	31.9
합계		91	100.0
연령	20대	1	1.1
	30대	9	9.9
	40대	11	12.1
	50대	18	19.8
	60대	**33**	**36.3**
	70대	19	20.9
합계		91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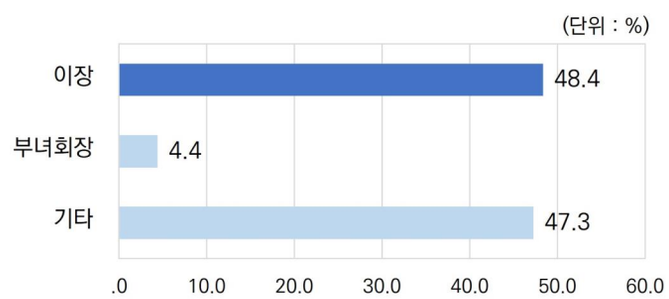


[그림 3-1] 응답자 성별과 연령

응답자의 마을 내 역할로는 “이장” 48.4%, “기타” 47.3%, “부녀회장” 4.4%로 나타났으며, 기타의 구분으로는 “주민자치위원”, “마을 주민”, “반장” 등으로 응답한 것이다.

〈표 3-4〉 응답자의 마을 내 역할

구분		빈도(명)	비율(%)
마을 내 역할	**이장**	**44**	**48.4**
	부녀회장	4	4.4
	기타	43	47.3
합계		91	100.0



[그림 3-2] 응답자의 마을 내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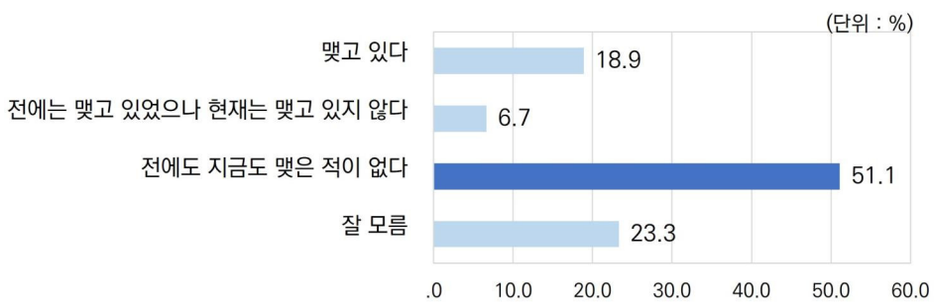
(2) 관계인구 실태 및 필요성에 대한 부문

가) 외부 조직과 자매결연 여부

피조사자의 마을에서는 외부의 조직(단체, 기관 등)과 자매결연(1사1촌 운동 등)을 맺고 있는지에 관한 질문에 반수 이상인 50.5%가 “전에도 지금도 맺은 적” 없다고 응답하였다. 그 외 “잘 모름”이 23.1%, “맺고 있다” 19.8%, “전에는 맺고 있었으나 현재는 맺고 있지 않다” 6.6% 순으로 나타났다.

〈표 3-5〉 외부의 조직과 자매결연 여부

구분		빈도(명)	비율(%)
자매결연 여부	맺고 있다	18	19.8
	전에는 맺고 있었으나 현재는 맺고 있지 않다	6	6.6
	전에도 지금도 맺은 적이 없다	**46**	**50.5**
	잘 모름	21	23.1
합계		91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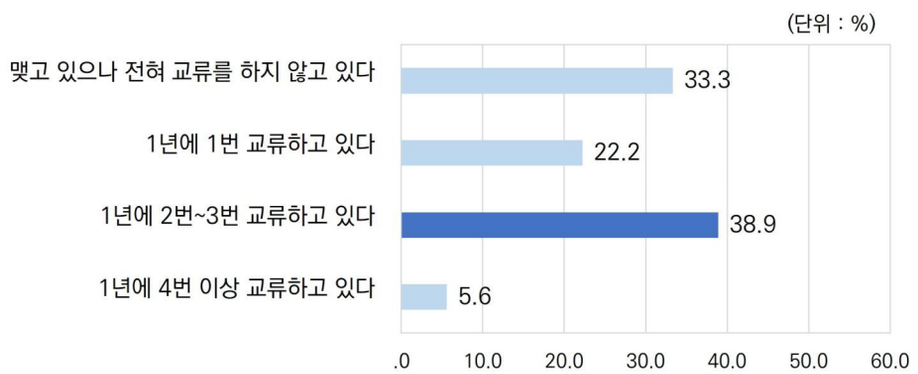


[그림 3-3] 외부의 조직과 자매결연 여부

외부 조직과 자매결연을 하고 있다고 응답한 18인의 응답자에게 최근(작년) 1년 동안 어느 정도 교류를 했는지에 관한 질문에 38.9%가 “1년에 2~3번 교류하고 있다”라고 응답하였다. 다음으로 “맺고 있으나 전혀 교류하지 않고 있다” 33.3%, “1년에 1번 교류하고 있다”가 22.2%, “1년에 4번 이상 교류하고 있다”라는 5.6%로 나타났다.

〈표 3-6〉 최근(작년) 1년 동안 교류 정도

구분		빈도(명)	비율(%)
교류 정도	맺고 있으나 전혀 교류 하지 않고 있다	6	33.3
	1년에 1번 교류하고 있다	4	22.2
	1년에 2번 ~ 3번 교류하고 있다	**7**	**38.9**
	1년에 4번 이상 교류하고 있다	1	5.6
합계		18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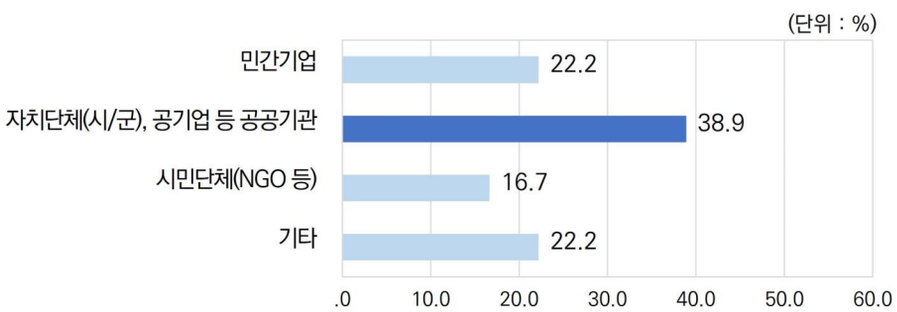
[그림 3-4] 최근(작년) 1년 동안 교류 정도

어떤 조직(단체, 기관 등)과 교류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물음에 “자치단체(시/군)”, “공기업, 공공기관”이라는 응답이 38.9%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민간기업”과 “기타”가 22.2%, “시민단체(NGO 등)” 16.7%의 순으로 나타났다.

농촌지역과 자매결연을 하고, 유지를 하는 조직유형은 자치단체나 공기업 등 공공기관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3-7〉 교류 조직 유형

구분		빈도(명)	비율(%)
교류 조직 유형	민간기업	4	22.2
	자치단체(시/군), 공기업 등 공공기관	**7**	**38.9**
	시민단체(NGO 등)	3	16.7
	기타	4	22.2
합계		18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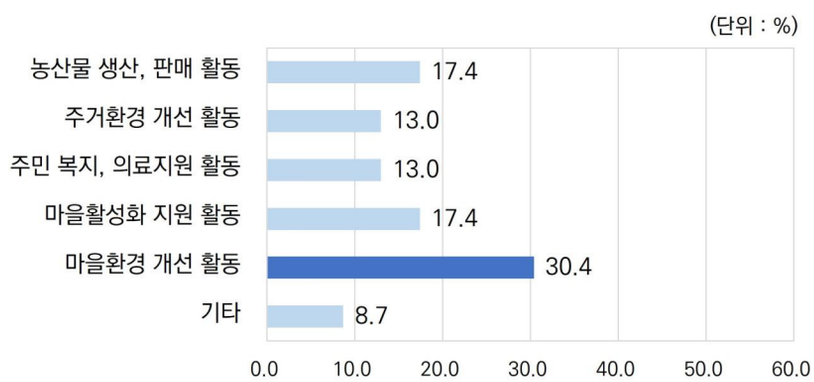


[그림 3-5] 교류 조직 유형

자매결연 조직(단체, 기관 등)과 주로 어떤 활동을 하는지에 관한 질문에 “마을환경 개선활동” 이라는 응답이 30.4%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농산물 생산, 판매활동”과 “마을활성화 지원활동”이 17.4%, “주거환경 개선활동”과 “주민복지, 의료지원 활동”이 13.0%, “기타 활동”이 8.7%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3-8〉 교류활동 유형

구분		빈도(명)	비율(%)
교류활동 유형	농산물 생산, 판매 활동	4	17.4
	주거환경 개선 활동	3	13.0
	주민 복지, 의료지원 활동	3	13.0
	마을활성화 지원 활동	4	17.4
	마을환경 개선 활동	**7**	**30.4**
	기타	2	8.7
합계		23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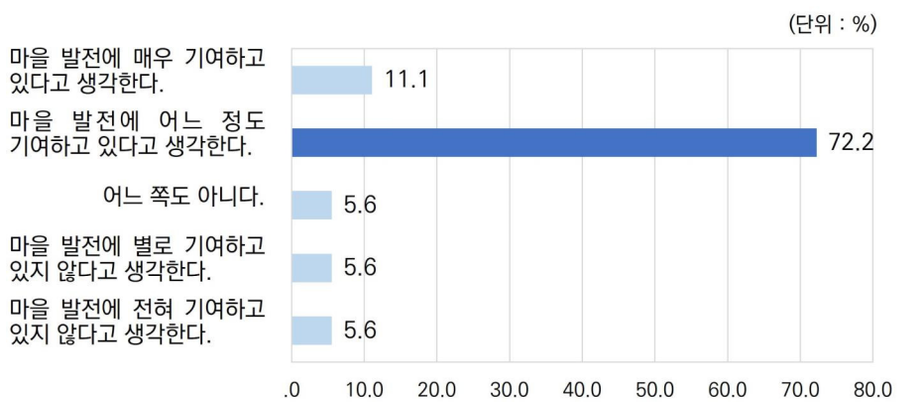
[그림 3-6] 교류활동 유형

자매결연으로 인한 교류가 마을 발전, 활성화에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관한 질문에 72.2%가 “마을 발전에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응답하여 외부와의 교류가 마을 발전에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음으로 “마을 발전에 매우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가 11.1%의 응답률을 보였으며, 다음으로 “어느 쪽도 아니다.” “마을 발전에 별로 기여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 “마을 발전에 전혀 기여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가 각각 5.6%의 응답률을 보였다.

〈표 3-9〉 교류가 마을발전(활성화)에 기여하는 정도

구분		빈도(명)	비율(%)
기여 정도	마을 발전에 매우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2	11.1
	마을 발전에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13**	**72.2**
	어느 쪽도 아니다.	1	5.6
	마을 발전에 별로 기여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	1	5.6
	마을 발전에 전혀 기여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	1	5.6
합계		18	100.0



[그림 3-7] 교류가 마을발전(활성화에) 기여하는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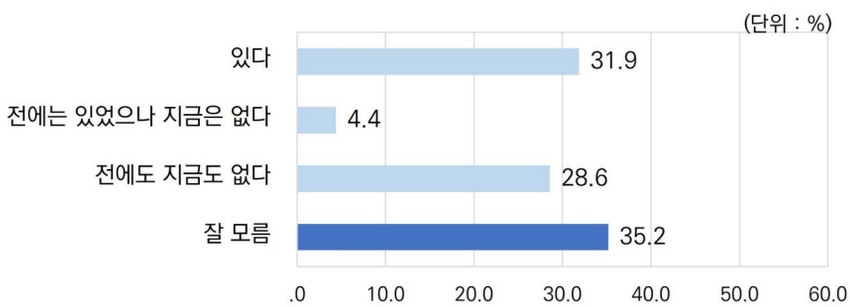
나) 출향민 모임 유무

관계인구 실태 분석을 위해 마을 내 출향민 모임(향우회 등)이 있는지에 관한 질문에 35.2%가 “잘 모름”에 응답하여, 출향민 모임에 대한 농촌마을 내 인지 정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있다” 31.9%, “전에도 지금도 없다” 28.6%, “전에는 있었으나 지금은 없다”가 4.4%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3-10〉 출향민 모임 유무

구분		빈도(명)	비율(%)
출향민 모임 유무	있다	29	31.9
	전에는 있었으나 지금은 없다	4	4.4
	전에도 지금도 없다	26	28.6
	잘 모름	**32**	**35.2**
합계		91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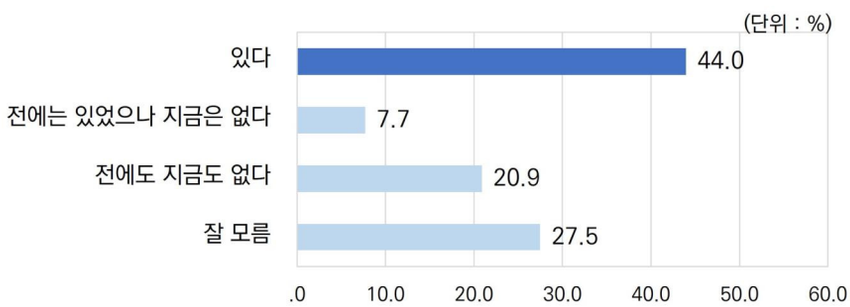
[그림 3-8] 출향민 모임 유무

다) 학교 동창회 모임 유무

마을 내 학교 동창회 모임이 있는지에 대한 문항에 44.0%가 “있다”에 응답하여, 농촌 마을 내 학교 동창회와 같은 학연에 의한 모임은 어느 정도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잘 모름”이 27.9%, “전에도 지금도 없다” 20.9%, “전에는 있었으나 지금은 없다”가 7.7%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3-11〉 학교 동창회 모임 유무

구분		빈도(명)	비율(%)
학교 동창회 모임 유무	**있다**	**40**	**44.0**
	전에는 있었으나 지금은 없다	7	7.7
	전에도 지금도 없다	19	20.9
	잘 모름	25	27.5
합계		91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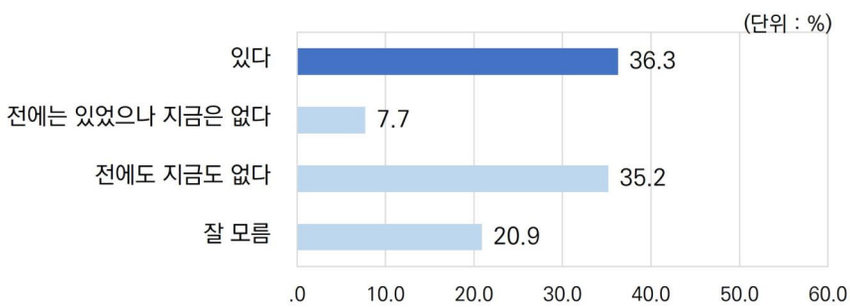
[그림 3-9] 학교 동창회 모임 유무

라) 외부인 참여 행사, 축제 시행 여부

마을 내 외부 사람들이 참여(함께)하는 행사, 축제가 있는지에 관한 질문에 36.3%가 “있다”라고 응답하였다. 다음으로 “전에도 지금도 없다”가 35.2%, “잘 모름이” 20.9%, “전에는 있었으나 지금은 없다”가 7.7%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3-12〉 외부인 참여 행사, 축제 유무

구분		빈도(명)	비율(%)
외부인 참여 행사, 축제 유무	**있다**	**33**	**36.3**
	전에는 있었으나 지금은 없다	7	7.7
	전에도 지금도 없다	32	35.2
	잘 모름	19	20.9
합계		91	100.0



[그림 3-10] 외부인 참여 행사, 축제 유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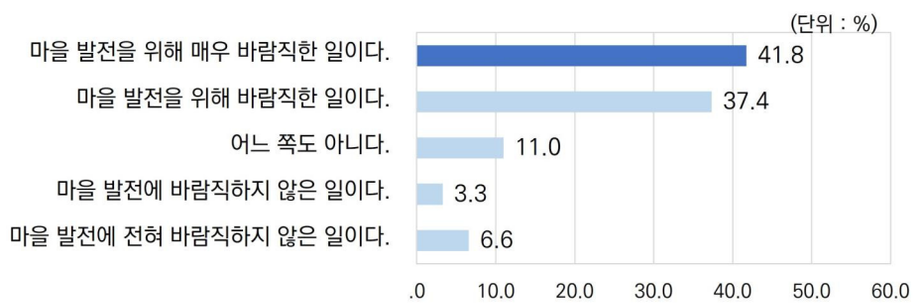
마) 외부인들과의 교류 및 이주에 대한 인식

외부인들과의 교류 및 이주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기 위해 외부 주체(조직, 단체, 기관)들과의 교류 또는 외부인들이 귀하의 마을로 이주(귀농, 귀촌)에 오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응답자의 41.8%가 “마을 발전을 위해 매우 바람직하다”라고 가장 많이 응답하였으며, 다음으로 “마을 발전을 위해 바람직하다”라고 37.4%가 응답하였다. 이처럼 응답자의 약 79.2%가 외부인들의 교류 및 이주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3〉 외부인들과의 교류 및 이주에 대한 인식

구분		빈도(명)	비율(%)
교류 및 이주에 대한 인식	**마을 발전을 위해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38**	**41.8**
	마을 발전을 위해 바람직한 일이다.	34	37.4
	어느 쪽도 아니다.	10	11.0
	마을 발전에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다.	3	3.3
	마을 발전에 전혀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다.	6	6.6
합계		91	100.0



[그림 3-11] 외부인들과의 교류 및 이주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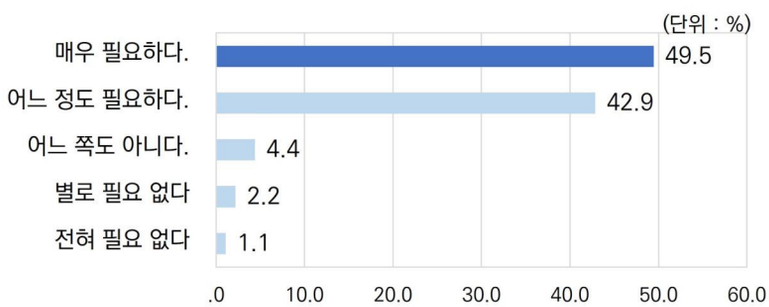
바) 외부 주체와의 교류 필요성

마을 발전을 위해 외부 주체(조직, 단체, 기관)들과의 교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에 관한 질문에 응답자의 49.5%가 “매우 필요하다.”라고 가장 많이 응답하였다.

다음으로 “어느 정도 필요하다.”라고 42.9%가 응답하여, 응답자의 약 92.4%가 마을 발전을 위해서는 외부 주체와의 교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4〉 외부 주체와의 교류 필요성

구분		빈도(명)	비율(%)
교류 필요성	**매우 필요하다.**	**45**	**49.5**
	어느 정도 필요하다.	39	42.9
	어느 쪽도 아니다.	4	4.4
	별로 필요 없다	2	2.2
	전혀 필요 없다	1	1.1
합계		91	100.0



[그림 3-12] 외부 주체와의 교류 필요성

사) 외부로부터 필요한 지원

마을이 소멸하지 않고 지금처럼 유지되기 위해서 외부로부터 지원받는다면 어떠한 지원이 가장 필요한지 3가지 항목에 응답하게 한 결과(복수 응답) 응답자의 16.4%가 “마을발전 계획 및 추진에 필요한 전문가 자문 지원”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다음으로 “마을 청소, 하천 정비 등 마을 환경, 생태 개선 지원”에 15.9%, “마을 자원을 활용한 6차산업화 등 마을 소득사업 지원” 14.5%, “농사일 돕기(농업인력 지원) 지원” 13.6%, “청년층의 농촌지역에서의 창업(일자리) 지원” 10.7%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3-15〉 외부로부터 필요한 지원

구분		빈도(명)	비율(%)
필요 지원	농사일 돕기(농업인력 지원) 지원	29	13.6
	마을발전 계획 및 추진에 필요한 전문가 자문 지원	**35**	**16.4**
	독거노인, 고령자 방문 돌봄 서비스 지원	18	8.4
	마을 청소, 하천 정비 등 마을 환경, 생태 개선 지원	**34**	**15.9**
	마을 자원을 활용한 6차산업화 등 마을 소득사업 지원	**31**	**14.5**
	마을 행사(축제) 활성화 또는 부활을 위한 지원	6	2.8
	청년층의 농촌지역에서의 창업(일자리) 지원	23	10.7
	지역주민들의 문화, 여가활동(프로그램) 지원	21	9.8
	지역주민들의 교육 (노인대학, 평생교육 등) 지원	12	5.6
	다문화가정을 위한 각종 교육 지원	1	0.5
	기타	4	1.9
합계		214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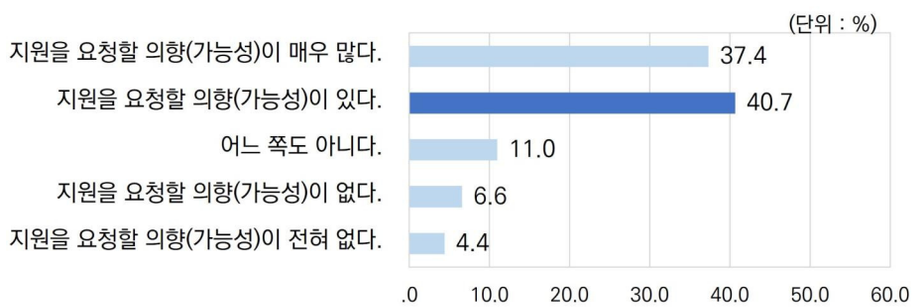
아) 마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 요청 의향

마을의 연간 활동 계획 수립, 회계 정리, 마을 행사 추진 등 마을 공동체(총회, 자치회 등) 활동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외부의 사람들로 구성된 지원단이 있다면 지원을 요청할 의향 묻은 질문에 응답자의 40.7%가 “지원을 요청할 의향(가능성)이 있다.”라고 응답하였다.

다음으로 “지원을 요청할 의향 (가능성)이 매우 많다.”에 37.4%가 응답하여 응답자의 약 78.1%가 마을 공동체 활동 활성화를 위한 외부 지원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6〉 마을 공동체 활동 활성화를 위한 지원 요청 의향

구분		빈도(명)	비율(%)
연령	지원을 요청할 의향(가능성)이 매우 많다.	34	37.4
	지원을 요청할 의향(가능성)이 있다.	**37**	**40.7**
	어느 쪽도 아니다.	10	11.0
	지원을 요청할 의향(가능성)이 없다.	6	6.6
	지원을 요청할 의향(가능성)이 전혀 없다.	4	4.4
합계		91	100.0



[그림 3-13] 마을 공동체 활동 활성화를 위한 지원 요청 의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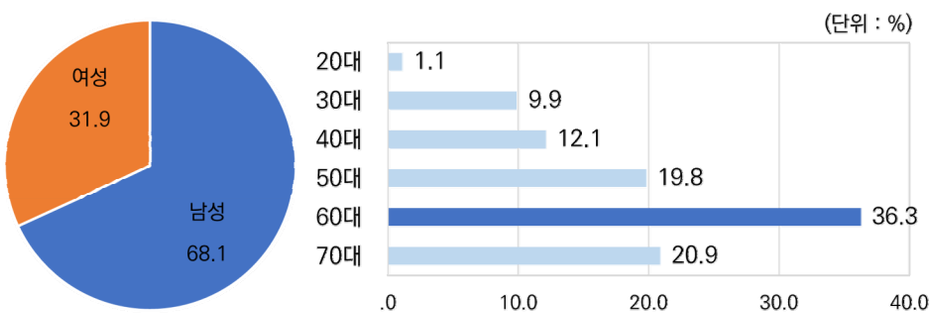
3) 도시민 설문조사 결과

(1) 응답자 일반현황 분석

관계인구 실태 및 정책 수요조사는 66명의 도시지역 거주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응답자의 성별은 “남성”이 39.4%, “여성”이 60.6%이며, 연령은 “30대”가 65.2%, “40대”가 21.2%, “20대”가 9.1%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3-17〉 응답자의 성별 및 연령대

구분		빈도(명)	비율(%)
성별	남성	26	39.4
	여성	**40**	**60.6**
합계		66	100.0
연령	20대	6	9.1
	30대	**43**	**65.2**
	40대	14	21.2
	50대	2	3.0
	60대	1	1.5
	70대	-	-
합계		66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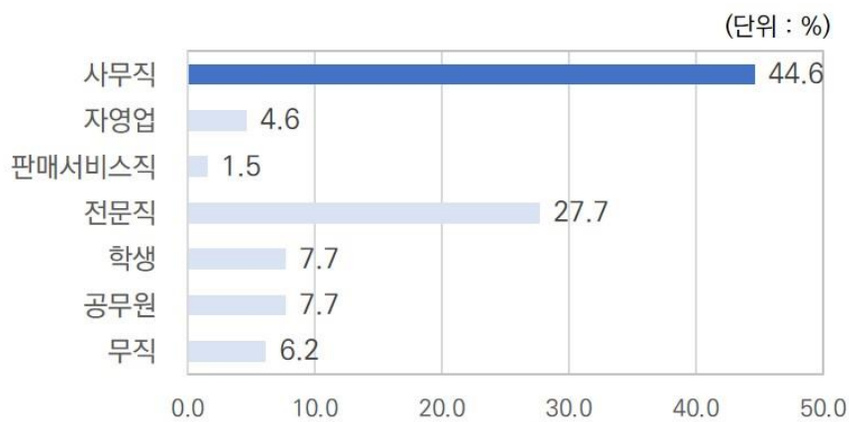


[그림 3-14] 응답자 성별과 연령

응답자의 직업은 “사무직” 44.6%, “전문직” 27.7%, “학생”과 “공무원”이 각각 7.7%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3-18〉 직업

구분		빈도(명)	비율(%)
직업	**사무직**	**29**	**44.6**
	자영업	3	4.6
	판매서비스직	1	1.5
	전문직	18	27.7
	학생	5	7.7
	공무원	5	7.7
	무직(주부)	4	6.2
	미응답	1	-
합계		65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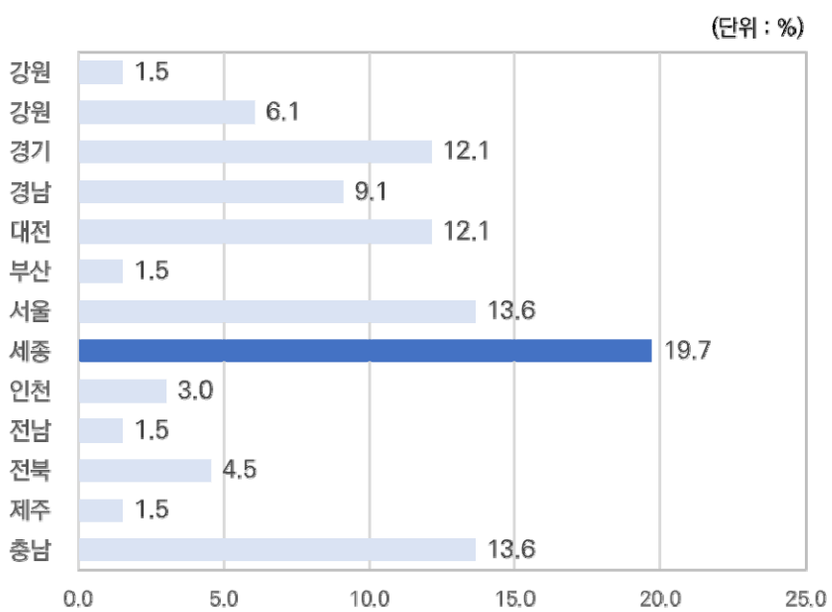


[그림 3-15] 응답자의 직업

응답자의 거주지는 “세종”이 19.7%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으며, 다음으로 “서울”과 “충남”이 13.6%, “대전”과 “경기”가 12.1%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3-19〉 거주지

구분		빈도(명)	비율(%)	구분	빈도(명)	비율(%)
거주지	서울	9	13.6	강원	5	7.6
	부산	1	1.5	충남	9	13.6
	인천	2	3.0	전북	3	4.5
	대전	8	12.1	전남	1	1.5
	세종	**13**	**19.7**	경남	6	9.1
	경기	8	12.1	제주	1	1.5
합계					66	100.0



[그림 3-16] 거주지

(2) 관계인구 개념 인지 및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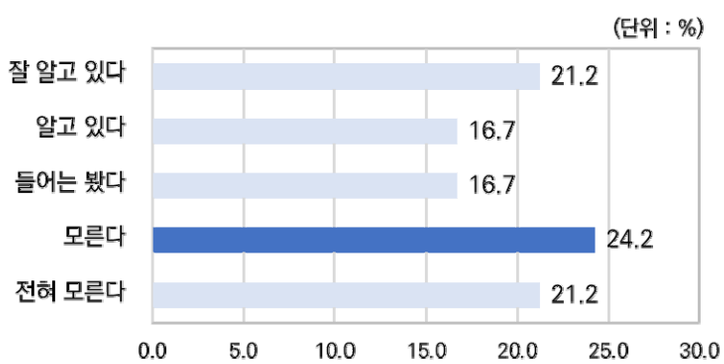
가) 관계인구 개념 인지 여부

관계인구 개념을 인지하고 있는지에 대한 물음에 응답자의 24.2%가 “모른다”에 응답하였다. 다음으로 “전혀 모른다”가 21.2%로 관계인구 개념에 대해 도시민들의 약 45.4%가 인지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잘 알고 있다”가 21.2%, “알고 있다”와 “들어는 봤다”가 16.7%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3-20〉 관계인구 개념 인지 여부

구분		빈도(명)	비율(%)
관계인구 개념 인지 여부	잘 알고 있다	14	21.2
	알고 있다	11	16.7
	들어는 봤다	11	16.7
	모른다	**16**	**24.2**
	전혀 모른다	14	21.2
합계		66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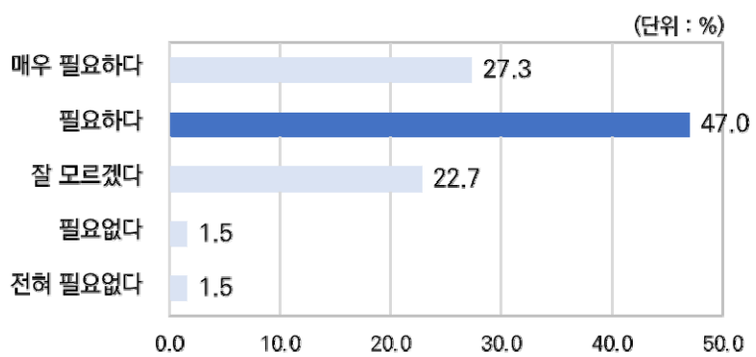
[그림 3-17] 관계인구 개념 인지 여부

나) 관계인구 필요성

관계인구 필요성에 대한 물음에 응답자의 47.0%가 “필요하다” 고 응답하였다. 다음으로 27.3%가 “매우 필요하다” 고 응답하여 응답자의 반수 이상인 74.3%가 관계인구가 필요하다고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1〉 관계인구 필요성

구분		빈도(명)	비율(%)
관계인구 필요성	매우 필요하다	18	27.3
	필요하다	**31**	**47.0**
	잘 모르겠다	15	22.7
	필요없다	1	1.5
	전혀 필요없다	1	1.5
합계		66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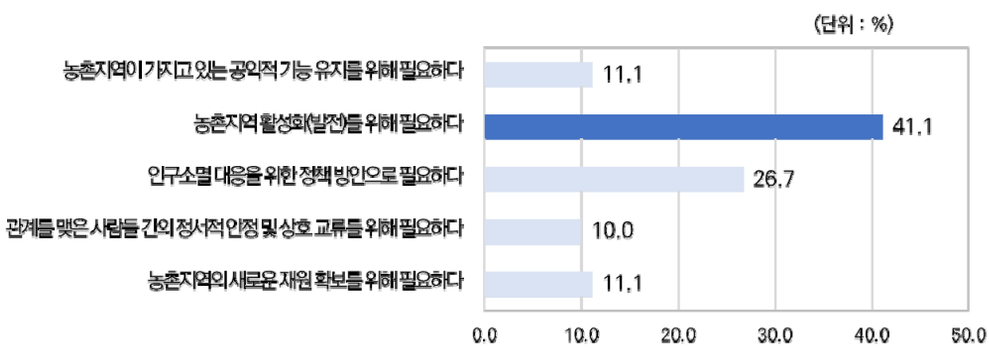


[그림 3-18] 관계인구 필요성

관계인구 필요 이유로는“농촌지역 활성화(발전)를 위해 필요하다” 고 응답한 비율이 전체응답의 41.1%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인구소멸 대응을 위한 정책방안으로서 관계인구가 필요하다”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3-22〉 관계인구 필요 이유

구분		빈도(명)	비율(%)
관계인구 필요 이유	농촌지역이 가지고 있는 공익적 기능 유지를 위해 필요하다	10	11.1
	농촌지역 활성화(발전)를 위해 필요하다	**37**	**41.1**
	인구소멸 대응을 위한 정책 방안으로 필요하다	24	26.7
	관계를 맺은 사람들 간의 정서적 안정 및 상호 교류를 위해 필요하다	9	10.0
	농촌지역의 새로운 재원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	10	11.1
합계		90	100.0



[그림 3-19] 관계인구 필요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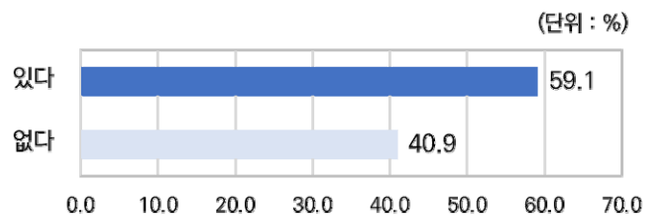
(3) 농촌지역과 관계 및 활동 실태

가) 농촌 거주 경험

응답자들의 농촌 거주 경험을 묻는 문항에 전체 응답자의 59.1%가 “농촌에 거주한 경험이 있다” 고 응답하였으며, “농촌거주 경험이 없다”라고 답한 응답자는 40.9%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3〉 농촌거주 경험

구분		빈도(명)	비율(%)
농촌거주 경험	**있다**	**39**	**59.1**
	없다	27	40.9
합계		66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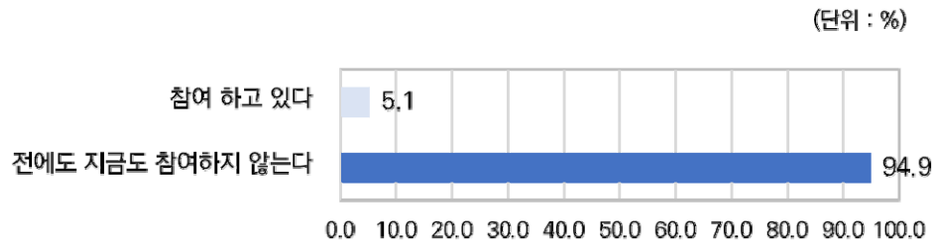


[그림 3-20] 농촌거주 경험

농촌에 거주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 39명을 대상으로 출향민 모임 참여 여부를 조사한 결과 94.9%가 "전에도 지금도 참여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전체 응답자 중 출향민 모임에 참여하고 있는 응답자는 5.1%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4〉 출향민 모임 참여 여부

구분		빈도(명)	비율(%)
출향민 모임 참여 여부	참여 하고 있다	2	5.1
	전에도 지금도 참여하지 않는다	**37**	**94.9**
합계		39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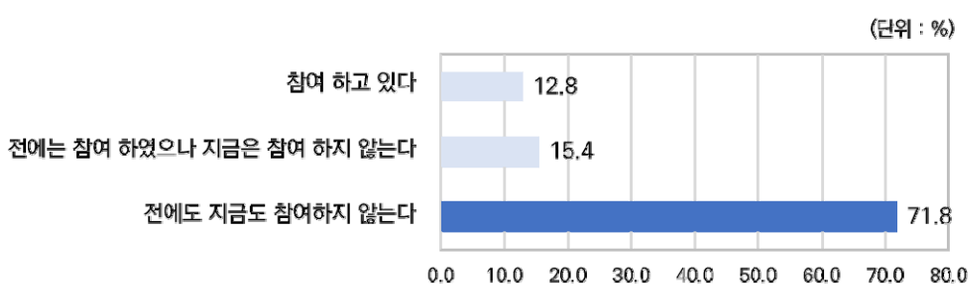


[그림 3-21] 출향민모임 참여 여부

초등, 중등, 고등학교 동창회 모임 참여에 대한 문항에 전체 응답자의 71.8%가 “전에도 지금도 참여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다음으로 “전에는 참여하였으나 지금은 참여하지 않는다”가 15.4%, “참여하고 있다”는 12.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5〉 학교 동창회 모임 참여여부

구분		빈도(명)	비율(%)
학교 동창회 모임 참여여부	참여 하고 있다	5	12.8
	전에는 참여 하였으나 지금은 참여 하지 않는다	6	15.4
	전에도 지금도 참여하지 않는다	**28**	**71.8**
합계		39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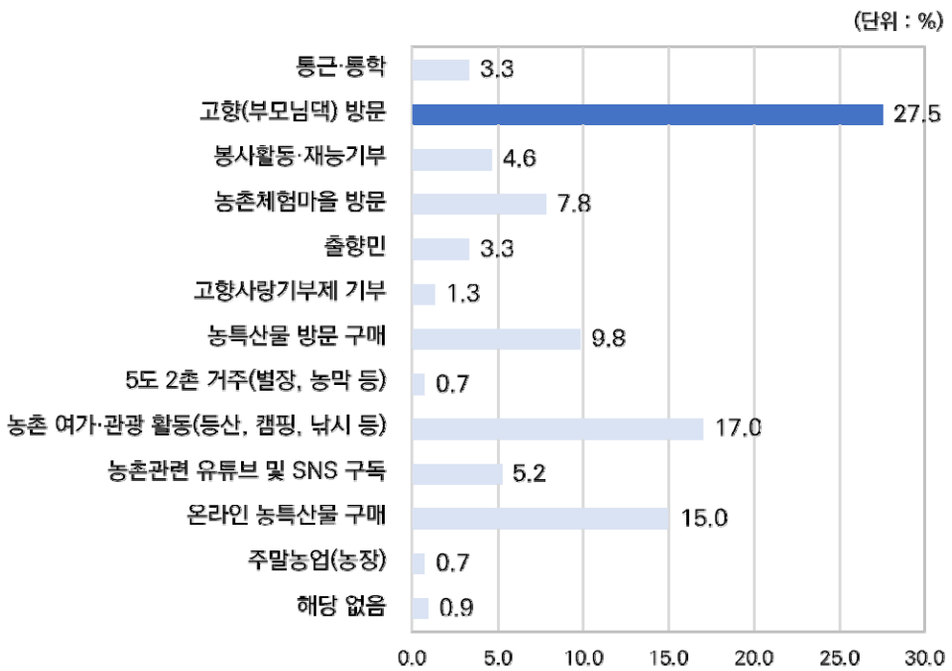
[그림 3-22] 학교 동창회 모임 참여여부

나) 농촌지역과 맺고 있는 관계유형

응답자를 대상으로 현재 농촌지역과 어떤 유형의 관계를 맺고 있는지 질문한 결과(복수 응답) 전체 응답자의 27.3%가 “고향(부모님댁) 방문”과 같은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다음으로 “농특산물 방문구매” 9.8%, “농촌체험마을 방문” 7.8%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3-26〉 농촌지역과 맺고 있는 관계유형

구분		빈도(명)	비율(%)
농촌지역과 맺고 있는 관계 유형	통근·통학	5	3.3
	고향(부모님댁) 방문	**42**	**27.5**
	봉사활동·재능기부	7	4.6
	농촌체험마을 방문	12	7.8
	출향민	5	3.3
	고향사랑기부제 기부	2	1.3
	농특산물 방문 구매	15	9.8
	5도 2촌 거주(별장, 농막 등)	1	0.7
	농촌 여가·관광 활동 (등산, 캠핑, 낚시 등)	26	17
	농촌관련 유튜브 및 SNS 구독	8	5.2
	온라인 농특산물 구매	23	15
	주말농업(농장)	1	0.7
	해당 없음	6	0.9
합계		153	100



[그림 3-23] 농촌지역과 맺고 있는 관계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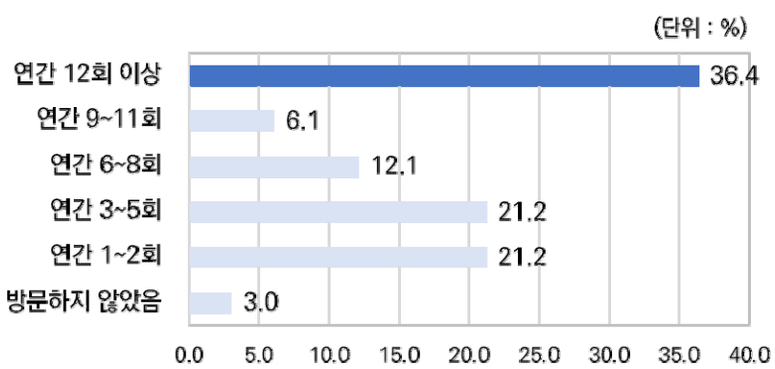
다) 농촌지역 방문 횟수

지난 1년간 농촌지역 방문 횟수를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36.4%가 위에서 응답한 유형으로 연간 12회 이상 농촌지역을 방문(교류 활동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연간 3~5회와 연간 1~2회가 각각 21.2%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3-27〉 농촌지역 방문 횟수

구분		빈도(명)	비율(%)
농촌지역 방문 횟수	**연간 12회 이상**	**24**	**36.4**
	연간 9~11회	4	6.1
	연간 6~8회	8	12.1
	연간 3~5회	14	21.2
	연간 1~2회	14	21.2
	방문하지 않았음	2	3.0
합계		66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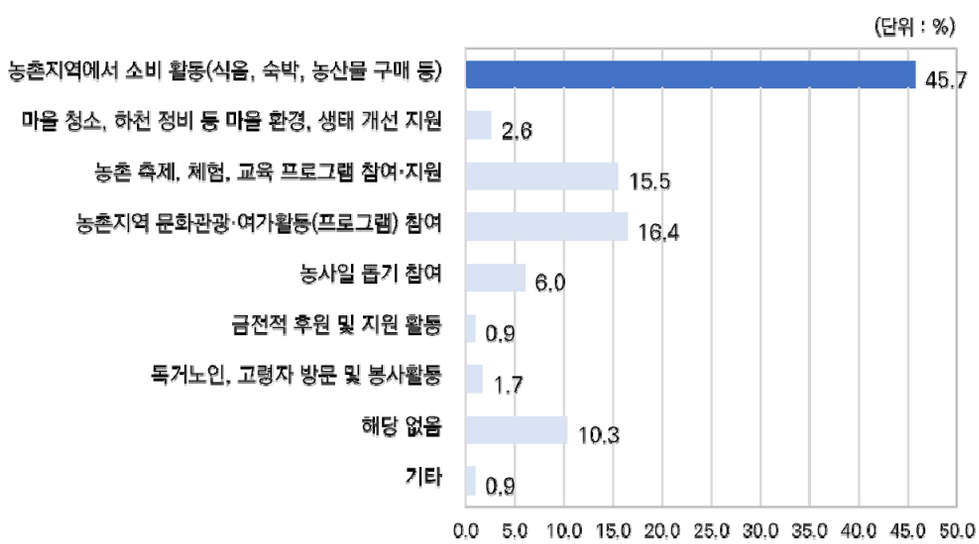
[그림 3-24] 농촌지역 방문 횟수

라) 지난 1년간 농촌지역 활동

지난 1년간 농촌지역에서 어떤 활동을 하였는지 모든 항목에 응답하게 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45.7%가 농촌지역에서 “식음, 숙박, 농산물 구매와 같은 소비활동”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농촌지역 “문화관광·여가 활동(프로그램) 참여” 16.4%, “농촌 축제, 체험, 교육 프로그램 참여·지원” 15.5%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3-28〉 지난 1년간 농촌지역 활동

구분		빈도(명)	비율(%)
지난 1년간 농촌지역 활동	**농촌지역에서 소비 활동 (식음, 숙박, 농산물 구매 등)**	**53**	**45.7**
	마을 청소, 하천 정비 등 마을 환경, 생태 개선 지원	3	2.6
	농촌 축제, 체험, 교육 프로그램 참여·지원	18	15.5
	농촌지역 문화관광·여가활동(프로그램) 참여	19	16.4
	농사일 돕기 참여	7	6
	금전적 후원 및 지원 활동	1	0.9
	독거노인, 고령자 방문 및 봉사활동	2	1.7
	해당 없음	12	10.3
	기타	1	0.9
합계		116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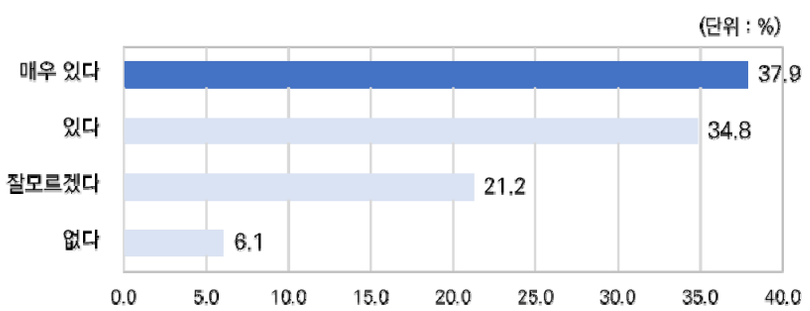
[그림 3-25] 지난 1년간 농촌지역 활동

마) 향후 농촌지역과 관계 지속 의향

향후 농촌지역과 관계를 지속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물음에 응답자의 37.9%가 “매우 있다” 고 응답하였으며, 34.8%는 “있다”에 응답해 전체 응답자의 72.7%가 향후 농촌지역과 지속적으로 관계를 유지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9〉 향후 농촌지역과 관계 지속 의향

구분		빈도(명)	비율(%)
향후 농촌지역과 관계 지속 의향	**매우 있다**	**25**	**37.9**
	있다	23	34.8
	잘모르겠다	14	21.2
	없다	4	6.1
	전혀 없다	-	-
합계		66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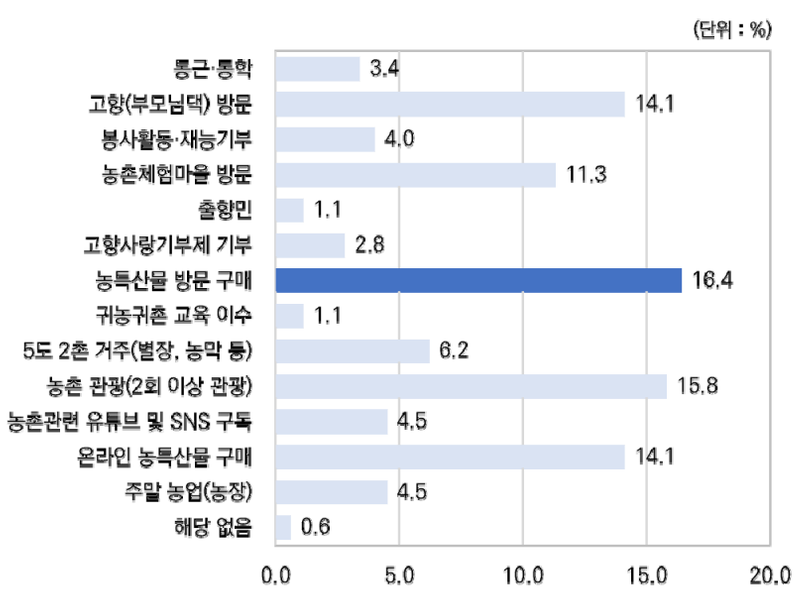


[그림 3-26] 향후 농촌지역과 관계 지속 의향

향후 농촌지역과 관계를 지속하며 맺고 싶은 관계 유형으로는 가장 많은 응답자인 16.4%가 “농특산물 방문 구매”에 응답하였다. 다음으로 “농촌관광” 15.8%, “고향(부모님댁) 방문”과 “온라인 농특산물” 구매가 각각 14.1%, “농촌체험마을 방문”이 11.3%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3-30〉 향후 농촌지역과 맺고 싶은 관계

구분		빈도(명)	비율(%)
향후 농촌지역과 맺고 싶은 관계 유형	통근·통학	6	3.4
	고향(부모님댁) 방문	25	14.1
	봉사활동·재능기부	7	4
	농촌체험마을 방문	20	11.3
	출향민	2	1.1
	고향사랑기부제 기부	5	2.8
	농특산물 방문 구매	29	16.4
	귀농귀촌 교육 이수	2	1.1
	5도 2촌 거주(별장, 농막 등)	11	6.2
	농촌 관광(2회 이상 관광)	28	15.8
	농촌관련 유튜브 및 SNS 구독	8	4.5
	온라인 농특산물 구매	25	14.1
	주말 농업(농장)	8	4.5
	해당 없음	1	0.6
합계		177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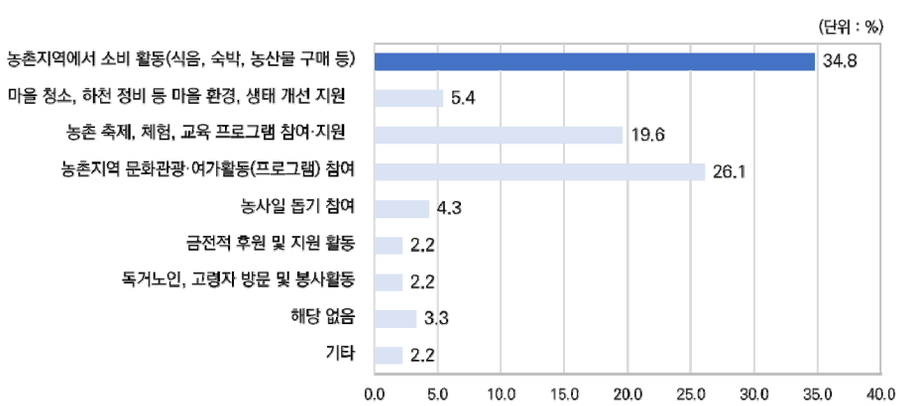


[그림 3-27] 향후 농촌지역과 맺고 싶은 관계 유형

향후 농촌지역에서 하고 싶은 활동으로는 전체 응답자의 34.8%가 “농촌지역에서의 소비활동”인 식음, 숙박, 농산물 구매 등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농촌지역 문화관광·여가활동”에 참여를 희망하는 응답자가 26.1%로 나타났고, “농촌축제, 체험, 교육 프로그램 참여·지원” 등 농촌 사회에서 운영되는 다양한 이벤트, 프로그램에 참여 및 지원하는 것을 희망하는 응답자는 19.6%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3-31〉 향후 농촌 지역에서 하고 싶은 활동

구분		빈도(명)	비율(%)
향후 농촌 지역에서 하고싶은 활동	농촌지역에서 소비 활동(식음, 숙박, 농산물 구매 등)	32	34.8
	마을 청소, 하천 정비 등 마을 환경, 생태 개선 지원	5	5.4
	농촌 축제, 체험, 교육 프로그램 참여·지원	18	19.6
	농촌지역 문화관광·여가활동(프로그램) 참여	24	26.1
	농사일 돕기 참여	4	4.3
	금전적 후원 및 지원 활동	2	2.2
	독거노인, 고령자 방문 및 봉사활동	2	2.2
	해당 없음	3	3.3
	기타	2	2.2
합계		92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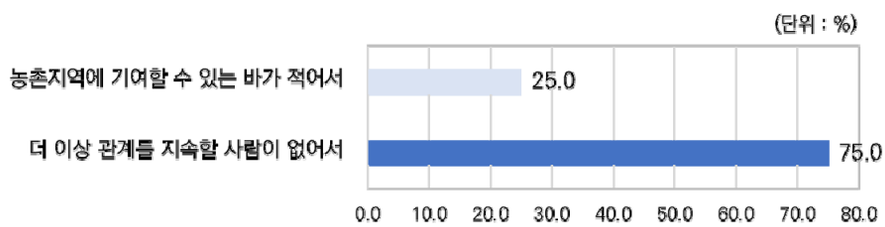


[그림 3-28] 향후 농촌 지역에서 하고싶은 활동

향후 농촌과 관계를 지속할 의향이 없다고 응답한 도시민의 75.0%는 그 이유로 “더 이상 관계를 지속할 사람이 없어서”에 가장 많이 응답하였다. 다음으로 “농촌지역에 기여할 수 있는 바가 적어서”에 25.0%가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32〉 향후 농촌과 관계를 지속할 의향이 없는 이유

구분		빈도(명)	비율(%)
향후 농촌과 관계를 지속할 의향이 없는 이유	농촌지역에 기여할 수 있는 바가 적어서	1	25.0
	더 이상 관계를 지속할 사람이 없어서	3	75.0
합계		4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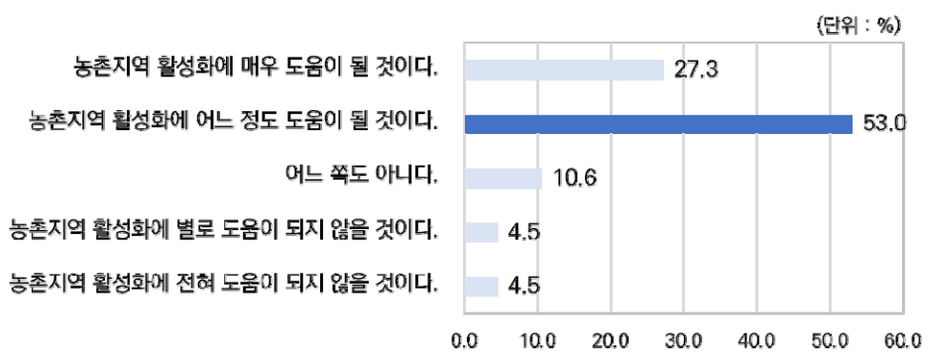
[그림 3-29] 향후 농촌과 관계를 지속할 의향이 없는 이유

바) 농촌지역 활성화와 관계인구

도시민에게 관계인구가 농촌지역 활성화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의 53.0%가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이다”에 가장 많이 응답하였으며, 다음으로 27.3%가 “매우 도움이 될 것이다”에 응답해 전체 응답자의 80.3%가 농촌지역 활성화를 위해 관계인구가 도움이 될거라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33〉 농촌지역 활성화와 관계인구

구분		빈도(명)	비율(%)
농촌지역 활성화와 관계인구	농촌지역 활성화에 매우 도움이 될 것이다.	18	27.3
	농촌지역 활성화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이다.	35	53.0
	어느 쪽도 아니다.	7	10.6
	농촌지역 활성화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3	4.5
	농촌지역 활성화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3	4.5
합계		66	100.0



[그림 3-30] 농촌지역 활성화와 관계인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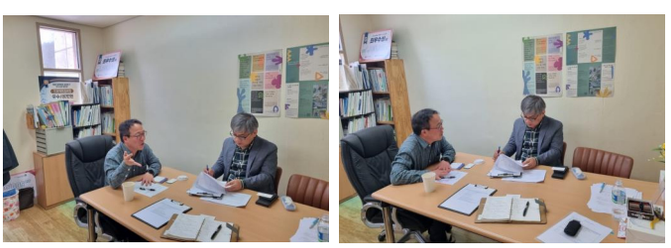
4) 전문가 자문 의견 결과

농촌사회 및 농촌경제 등 농촌지역 문제에 학문적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7명을 대상으로 관계인구의 필요성, 농촌지역 측면에서의 관계인구 중요성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전문가로부터 얻은 자문 의견 결과는 아래의 표와 같다.

〈표 3-34〉 1차 전문가 자문회의 주요 내용

전문가	의견 정리
한OO	- **(청년층 관계인구 등장)** 관계인구의 영향이라고 명확히 말할 수는 없지만, 최근 덕산면은 청년들이 개업한 빵카페, 초등학교 학생 수 유지, 주민 동아리 활성화 및 전통시장 활성화가 되고 있음 - **(농촌지역에 청년생태계 구축)** '청년마을'의 비전은 농촌의 지속적인 관계 유지를 위해 서비스 공동체를 만들고 사회적 농업을 하며 어르신들에게 서비스를 배달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데 있음. 즉 삶이 척박한 농토에 변화를 주어 청년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목적 - **(농촌 내부 주체 역량 중요)** 농촌지역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서는 관계인구가 매우 중요하지만, 결국 농촌지역 내부의 누구(어느 주체)와 관계를 맺느냐가 더욱 중요함. 관계를 하게 되는 사람들 간의 관계 형성이 잘 안된다면 외지인 유입(관계인구)은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지 않음 - **(농촌의 정체성, 자긍심 중요)** 현재 농촌에 사는 사람들이 농촌의 지속가능성과 정체성을 가지고 관계인구와 관계를 맺어야 함. 지역에 자긍심을 가진 주체들을 늘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 - **(농촌에서의 청년 활동 기회 제공)** '청년마을' 이 주력하고 있는 사업은 농촌을 살기 좋고 지속가능한 곳으로 만들기 위해 사회적 농업, 청년 활동 기회 제공, 지역 어르신 관계복원 서비스 제공 등임

자료: 전문가 자문회의(23년 4월 20일) 회의록



[그림 3-31] 1차 전문가 자문회의 모습(23년 4월 20일)

〈표 3-35〉 2차 전문가 자문회의 주요 내용

전문가	의견 정리
이OO	- **(관계인구에 외국인 근로자 포함)** 부족한 농업노동력을 메우는 차원에서 관계인구가 필요함. 특히 외국인 근로자를 관계인구라는 측면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음 - 외국인 근로자는 대부분 계절에 따라 지역을 이동하기에, 여러 지역과 관계를 맺을 수 있음. 현재 도시민들과의 관계망을 형성하기엔 한계가 있어 농촌지역(지역주민)이 외국인 근로자를 관계인구로서 받아들이는 인식 전환이 필요 - **(관계인구를 통해 농촌 기능유지)** 문경 리플레이스 사례처럼 관계인구가 농촌의 기능유지 및 농촌자원을 활용한 지역경제 활동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 - **(대안학교 학생, 졸업생도 중요한 관계인구)** 홍성군 홍동 풀무학교, 제천시 덕산면 간디학교 등 농촌지역에 소재한 대안학교도 관계인구의 하나의 사례가 될 수 있음
박OO	- **(관계인구 관심 급증)** 인구소멸 가속화로 인해 관계인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 관계인구 중 외국인 노동자도 포함하는 것에 대해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음 - **(관계인구 수요 객관적 검증 필요)** 수요자 관점에서 정말 관계인구가 필요한지에 대한 객관적 검증도 필요
구OO	- **(관계인구 범위 확대 필요)** 관계인구의 범위는 마을에 국한하지 말고 읍면단위까지 확대해서 볼 필요가 있음 - **(동아리 모임 관계인구와 연관성 높음)** 도시민의 캠핑, 사이클 등 농촌지역에서 활동하는 동아리 주체들도 관계인구라 할 수 있음. 특히 어느 한 지역에서 오랜 기간 머물러 있는 캠핑족도 있음. 장기간 농촌지역에 체류하는 도시민을 관계인구로서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 - 예를 들면 경기도 양평 수미마을의 클라인가르텐 사업이 참고
이OO	- 최근 도시 청년들이 농촌지역으로 여행하는 추세가 늘어나고 있음 - **(세대별 관계인구 역할 고민 필요)** 세대별 특성에 따라 관계인구로서의 역할이 달라질 수 있음

자료: 전문가 자문회의(23년 4월 28일) 회의록

[그림 3-32] 2차 전문가 자문회의 모습(23년 4월 28일)

〈표 3-36〉 3차 전문가 자문회의 주요 내용

전문가	의견 정리
김OO	- **(MZ세대의 관계인구화 중요)** 관계인구를 창출하고자 할 때 MZ세대를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음. MZ세대는 스마트 기기에 능하고 네트워킹을 중요하게 생각함. 또한 봉사하려는 마음이나 사회에 공익적인 이바지를 하려는 경향이 강함 - **(다양한 계층의 관계인구화 중요)** 청년층, 신중년층(50+), 주부, 학생 등 다양한 계층을 관계인구로 끌어오는 방안 마련이 중요. 예를 들어 신중년층은 은퇴 후 연금과 자본이 있어 생활에 불편함이 없음. 따라서 그들만의 공동체를 만들어 농촌사회에 재능기부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음 - **(관계인구의 궁극적 목적은 지역 활성화)**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관계인구에 초점을 맞춰야 하지만 관계인구를 창출하는 것에 머물지 말고 관계인구를 통해 지역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야 함 - **(1사1촌 운동 재검증 필요)** 우리나라 관계인구의 효시라고 할 수 있는 '1사1촌'의 미를 되새길 필요가 있으며, 현재까지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마을을 심층 조사할 의미가 있음 - **(마을카페 사례 다수 등장)** 관계인구와 지역주민과의 교류 장소로서 '마을카페' 조성 및 지원이 중요하다고 생각함. 실제 성공적으로 운영하는 사례도 있음. '마을카페'가 관계인구의 플랫폼 역할을 할 수도 있음 - **(농촌체험마을 재방문자 관계인구로 중요)** 관계인구의 한 유형으로 농촌체험마을에 여러 번 재방문하는 사람임. 인제 로컬투어사업단 활동을 참고하는 것도 좋음
김OO	- **(사람과 사람의 연결고리 중요)** 관계인구 개념의 기초는 거주, 비거주를 떠나 관계를 맺고 있는 인구임. 관계는 사람과 사람 쌍방에 대해 어떤 연결고리가 있어야 함. 이러한 연결고리를 찾아내는 것이 중요함. 관계인구는 지역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음. 지역에 대한 관심을 두는 사람을 많이 만들어야 함 - **(지역대학 역할 중요)** 지역대학의 구성원 관계인구로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나 실질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사례는 찾아보기 어려움. 일부 연구실이 농촌마을과 지속적인 관계를 맺어오고 있는 사례는 있음 - **(실질적 관계)** 기존의 일반적인 도시와 농촌과의 교류차원이 아닌 실질적 관계를 맺고 의미 있는 활동까지 끌어내는 것이 중요함. 전략과제에서는 이러한 측면에서의 정책 제언을 제시하기 바람

자료: 전문가 자문회의(23년 6월 7일) 회의록

[그림 3-33] 3차 전문가 자문회의 모습(23년 6월 7일)

〈표 3-37〉 4차 전문가 자문회의 주요 내용

전문가	의견 정리
정OO	- **(관계인구를 통해 농촌 공동체 활성화 도모)** 지역의 어떠한 가치를 공유하는 사람들을 관계인구로 유입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지역 내 주말 농장을 유치하려고 하는 공동체나 농촌유학을 매개 하는 공동체, 도농교류 행사를 준비하는 공동체 등과 연계를 위해서는 각 공동체의 정체성을 명확히 정의내릴 필요 가 있음 - **(생활기술과의 접목 중요)** 우리나라의 생활기술(한류, 옷, 음식)에 대한 수요가 계속 증대 되고 있음. 라이프텍이란 생활속에서 지혜가 섞인 우리만의 독특한 기술이라 할수 있음. 전통적인 발효기술이나 천연염색 등이 예가 될 수 있음. 한류의 밑바탕에 음식, 패션 등 다양하고 섬세한 자원들이 있는데, 이 외에도 우리나라 고유의 생활기술(라이프텍)과 접목하여 전세계적인 교류 인구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박OO	- **(충남의 농산어촌 적정기술 접목)** 농촌, 산촌, 어촌에 대한 라이프텍 기술과 연계한 관계인구를 정착시킬 필요성이 있음. 서천 사례에서 보면 목공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관계인구가 마을마다 정자를 만들자는 프로젝트를 시작하여 마을마다 정자를 비롯해 목재가구를 놓기 시작함. 최근 귀농교육을 적정기술을 활용하여 실시하고 있는 추세임
조OO	- **(충남의 특색에 맞는 주말농장 조성 필요)** 어촌형, 산촌형, 농촌형 주말농장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중 농촌형 주말농장의 경우 기존에 추진되어던 주말농장유형과 거의 유사함. 주민과 함께할 수 있는 교육 등으로 연계 한다고 하지만 충남만이 갖고 있는 강점을 부각시킬 전략 필요. 도시민이 농촌을 통해 가질 수 있는 충남만의 미션을 줄 필요성이 있음 - **(weekend-house사업)** 위크엔드 하우스의 경우 주말농장과는 다르게 휴양, 치유를 목적으로 접근하는 인구가 많을듯함. 이에 예술, 다양한 대안적 삶에 대해 다루어 줄 수 있는 내용이 추가 되면 좋을 듯함
이OO	- **(기술적 측면에서의 교류 필요)** 충남의 경우 대도시(수도권)과 가깝움. 그동안 관광, 여가, 체험에 기반해 농촌관광활동, 농촌체험활동을 집중적으로 추진해 왔는데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 이외에도 다양한 분야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과거의 농촌관광, 체험활동만으로 최근 도시민이 원하는 서비스 수준을 만족시키기거나 농촌을 활성화 시키기에는 어려운 것 같음. 기술적인 측면에서 교류가 어떤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유형에 좀 담아내는것도 좋을듯함 - **(법 규제 완화를 통한 주말농장, 농원 활성화)** 최근 세컨드 하우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데, 공공재원을 활용하여 농촌의 빈집등을 실제 거주자가 거주 할 수 있는 환경으로 조성해줄 수 있도록 법적 규제가 완화가 필요함

자료: 전문가 자문회의(23년 11월 14일) 회의록

2. 관계인구 사례 분석

관계인구 사례 분석은 국내외 별도 구분 없이 체류 형태 등 관계인구 특성에 따라 크게 3가지 유형으로 정리하였다. 유형 1은 정기·장기 체류 인구, 유형 2는 비정기·단기 체류 인구, 유형 3은 잠재적 관계인구로 구분하여 사례를 정리하였다.

사례 분석 방법은 국내 사례의 경우 문헌 분석과 더불어 현장 조사를 실시(일부 지역)하였으며, 국외 사례의 경우 문헌 분석 위주의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표 3-38〉 국내외 사례지역

부문	지역명	특징
(유형 1) 정기·장기 체류인구	완주 한달살기 및 문화이장	- 한달살기, 문화이장
	춘천 별빛사회적협동조합	- 농촌유학
	제천 덕산 청년마을	- 지역청년 정착 및 농촌재생
	금산 별무리 대안학교	- 지역주민과 외부인과의 교류
	오끼도우젠 고등학교	- 지역 고등학교 매력화 사업
(유형 2) 비정기·단기 체류인구	화천 토고미 마을	- 1사1촌
	문경 가치살자	- 지역 내 청년 정착
	강릉파도살롱&강릉살자	- 워케이션로컬&크리에이터 네트워킹
	서울시 서울농장	- 워케이션, 도농교류 플랫폼
	제주 세화리 워케이션 프로그램	- 마을 워케이션
	인천 인천섬 도도하게 살아보기	- 살아보기 프로그램
	제주 글로벌제주문화협동조합	- 살아보기 프로그램 (농업, 청년일자리, 관광자원 연계)
	경북형 작은정원 조성 사업	- 5도2촌 거주
	일본 야치요시 클라인가르텐	- 당일치기 시민 농원
(유형 3) 잠재적 관계인구	일본 시즈오카현 스소노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숙박	- '목소리의 힘 프로젝트': 독거노인 돌봄 활동
	일본 운난시(일본어) 지역인재 육성사업과 지역 서포트 사업	- 운난시 지역인재 육성사업과 지역 서포트 사업

1) 유형1: 정기·장기체류 인구

(1) 완주 한달살기 및 문화이장(전북 완주군)[7]

가) 개요

완주군은 2021년 문화도시 지정과 함께 완주문화재단을 중심으로 문화예술을 통한 '자치·혁신·포용(공존)'을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농촌마을을 대상으로는 '완주한달살기', '문화이장'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나) 문화예술인 완주 한달살기

완주문화재단에서는 예술인 문화귀향 활성화 사업의 하나로 농촌마을의 빈 집, 빈방, 빈창고 등 유휴공간을 활용해 예술인에게 빌려주어 예술인에게는 영감과 충전을, 농촌마을에는 문화적 활력을 견인할 수 있는 완주형 예술인 레지던시 사업인 '예술인 완주 한 달 살기 프로젝트'를 2017년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2019년까지 30여 명의 예술가가 참여하였다.

2018년에는 전국 각지에서 활용하는 다양한 분야의 예술인 16명(한달살기 7명, 백일살기 7명, 예술가의집(누에게스트하우스) 2명)이 참여하였고, 8개 마을에서 250여 명의 주민이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에 참여하였으며(예술인들에게 재료비 명목으로 한 달에 30만원 정도를 지원하고, 집주인은 소정의 임대료를 받음), 2019년에는 문화사랑방 공간 공개모집을 통해 2개소만 선정하여 문화예술인 한 달 살기를 진행하고 있는데 첫해는 리모델링 비용 800만원 정도와 활동비를 지원(총사업비 5,000만원)해주고, 이후 2년간 활동비만을 지원해

7) 조영재 외. 2022. 지방소멸위기에 대응한 충남 농어촌 과소지역 활성화 전략. 충남연구원. p.106~110 인용하였음

주는 사업을 진행하였다.

2020년에는 생활권 기반 마을문화공간 조성으로 '문화아지트 빨래터', '문화창작공간 달빛품', '아트 커뮤니케이션 완산가', '아트스테이 풀' 등의 4개소를 조성하고 완주 마을형 레지던시 형태로 17명의 예술인이 참여하여 일상에서 이웃과 친근하게 누리는 문화예술활동(203회), 참여 작가 창작 활동 및 네트워크(창작작품 17점, 작가 교류전 1회), 주민주도 문화예술활동(35회), 거점 활성화를 위한 교류 및 연계사업 추진(33회), 예술의 사회적 가치 확산과 예술가의 사회적 가치 자원 인식 확산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다.

'문화아지트 빨래터' 프로젝트는 이전부터 내려오던 마을 빨래터 자리에 누구나 쉽게 찾아와 수다와 정보를 나눌 수 있는 공간으로 문화아지트 빨래터가 조성(완주군 화산면 화산로 702 일원)되었으며, 이곳은 2019년~2020년 완주한달살기 거점으로 선정되어 주머니 기법을 이용한 한지 발 만들기, 영화감독과의 대화, 솟대 만들기 등의 여러 활동을 통한 주민과 입주예술인과의 다양한 교류가 이루어졌다.

'문화창작공간 달빛품'은 꽃과 나무가 줄지어 있는 율곡마을에 문화생활에 대한 욕구를 바탕으로 문화창작공간 달빛품이 조성(완주군 소양면 신교응암길 161 일원)되었으며, 이곳은 2019년~2020년 완주한달살기 거점으로 선정되어 마을전시회, 마을음악회, 예술교육 프로그램 등 마을주민과 입주예술가의 교류활동이 진행되었다. 구체적으로는 주민협업프로젝트 '고무꽃신 만들기 체험', 주민문화예술활동 결과공유회 '네모에서 동그라미하다' 전시, 참여예술인 주민문화예술활동 '나만의 완주 만들기' 및 '네모에서 동그라미하다' 등이 진행되었다.

'아트 커뮤니케이션 완산가'는 전문 예술가들에게 자연친화적 창작환경을 제공하고 그를 통한 새로운 창작물 공유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한옥스튜디오 완산

가가 조성(완주군 용진읍 순지1길 53-24 일원)되었으며, 이곳은 2019년~2020년 완주한달살기 거점으로 선정되어 예술인 교류의 장, 예술 향유 마당, 참여예술인 창작활동 및 예술인문학 특강, 주민 대상 전시설명회 등이 진행되었다.

그리고 '아트스테이 풀'은 고산면을 중심으로 주민들이 자유롭게 모여 전시, 공연, 인문학 강좌 등 다양한 방법으로 어울림을 꾀하는 곳으로 서쪽숲협동조합 구성원들이 모여 음악특화공간으로 아트스테이 풀을 조성(완주군 고산면 고산천로 567-46 일원)하였다. 이곳은 2019년~2020년 완주한달살기 거점으로 선정되어 때론 전문예술인의 거주공간으로, 때론 주민 음악인들의 연습과 공연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참여예술인 주민문화예술활동 '흙과 가마' 불멍공유회, 참여예술인 주민문화예술활동 '후', '달그락달그락', '고산음악, 취향', 지역예술인 비대면 콘서트 '고산버스킹' 등이 진행되었다.

다) 문화이장 및 문화반상회

완주군은 넓게 형성된 지리적 특성과 다양한 문화적 수요 해소를 위해 지역주민의 생활문화 의제를 발굴하여 해결하는 실질적 거버넌스 구축 사업으로 2017년부터 문화이장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완주군 13개 읍면의 커뮤니티를 활용한 작은 문화거점을 마련하고, 주민을 대상으로 '문화이장'을 선정('22년 기준 4기 및 5기 총 19명 활동)하여 주민 간(소통, 연계, 교류) 문화통신사 역할을 담당(예산 연 5천 만 원)하게 하고 있으며, 문화반상회, 주민 함께 프로젝트 등을 추진하고 있다. 문화반상회는 문화이장과 주민이 참여하여 함께 소통하는 모임 활동으로 7월~9월쯤 3회 정도 진행(1회 활동비 10만원 지원, 워크숍 등 참가비 별도 지원)하고, 주민 함께 프로젝트는 지역주민의 생활문화에 대한 욕구를 직접적으로 반영하여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문화이장과 지역주민

이 함께 만든 공동문화 프로그램(연극, 운동, 음식만들기, 버스킹공연, 영화보기, 그림그리기 등 1개월 50만원, 총 150만원 지원)을 진행하는데 9월~11월 쯤에 3회 정도 진행한다.

라) 시사점

첫째, 농촌지역 유휴시설 등의 공간에 대한 다양한 활용 가능성을 볼 수 있다. 완주군의 경우, 유휴시설을 문화·예술가의 수요와 접목하여 활용성을 극대화하고 있으며, 농촌지역 유휴공간에 대한 다양한 활용 가능성을 검토해 볼 수 있다.

둘째, 문화·예술 등의 새로운 매개체가 농촌공동체 활성화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완주군은 문화·예술가의 활동을 통한 농촌지역 공동체와의 교류는 농촌활성화 및 주민 삶의 질 제고에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고, 향후 농촌지역으로의 다양한 인적자원의 유치 및 지역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측면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 춘천 별빛사회적협동조합(농촌유학)[8)]

가) 개요

2014년 사회적기업 인가를 받은 별빛 사회적 협동조합은 강원도 춘천시 북산면에 위치해 '농촌유학'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유학센터와 지역아동센터, 노인복지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다. 마을 아이들에게 최소한의 돌봄을 제공하고자 만든 공부방을 시작으로, 전교생이 10여 명밖에 되는 등 폐교 위기의 학교에서 별빛산골교육센터로 유학하러 온 16명의 학생을 포함해 40명이 함께 다니는 학교가 되었다.

8)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어업인 삶의 질 정책 우수사례 별빛 사회적협동 조합. 21.10.21. 발행지 한국농촌경제연구원공식블로그. https://blog.naver.com/kreipr/ 222543899360 (23.02.26. 검색). 인용하였음

나) 별빛산골교육센터 농촌유학

보통 다른 농촌유학센터의 경우, 센터에 소속된 유학생만을 돌보는 시스템이지만, 별빛사회적 협동조합에서는 마을 아이들, 귀농·귀촌자녀들, 유학생들 구분 짓지 않고 센터의 지도를 받을 수 있다. 프로그램은 되도록 일반 학교에서 하는 수업 및 활동과 겹치지 않도록 텃밭 가꾸기, 요리, 목공, 악기 수업 등이 이루어진다.

별빛산골교육센터는 마을주민들이 사는 농가에서 유학생들이 숙식하며 센터의 프로그램을 체험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농촌유학프로그램이 마을과 연계되면 아이들이 마을 어디에서든지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다. 또한 2명의 아이를 돌보는 농가는 연간 약 1,000만원의 농외소득이 생기기도 하고, 센터와 농가에서 아이를 돌보는 시간대가 나누어지게 되어 휴식을 취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농촌유학센터가 마을에 준 변화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서도 학교를 중심으로 지역이 서로 교류한다는 점이다. 아이들이 먼저 유학을 경험하고 나중에 부모들과 함께 귀농한 예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귀농·귀촌인이 늘고 젊은 층이 유입되고 있다.

[그림 3-34] 별빛사회적 협동조합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공식블로그(2021.10.21.)
https://blog.naver.com/kreipr/222543899360

(3) 제천 덕산 청년마을[9)]

가) 개요

충북 제천시 덕산면은 마을공동체 활동이 활발한 지역이다. 2000년대 초반 대안학교인 간디학교가 덕산면으로 이전하고 한석주 청년마을(주)의 대표가 덕산면 협동경제활동을 주도하면서 덕산면에 변화가 시작됐다.

산골동네인 덕산면 인구는 1970년 12,538명에서 2020년 2194명으로 1/6로 급격히 감소하였다. 청년마을은 해체되어가는 농촌마을공동 체의 새로운 복원과 사회적 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해 공유지 만들기,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설립 등을 지원하며 로컬로 들어 온 청년들이 만든 공동체이다.

결혼이주여성(다문화가정)과 지역 청년(간디학교 출신)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누리마을빵카페, 마을 목공소, 심심한 책방, 덕산전통시장협동조합, 그리고 도시민과 농업인을 연결하는 월악산힐링푸드영농조합법인, 공유지 운동 등 수많은 지역순환 활동들이 이어지고 있다.

나) 간디학교

간디학교는 2004년 비영리법인단체 '간디공동체'를 설립하고(2007년 사단법인 간디공동체), 2007년에는 아동교육을 위한 지역아동센터 '누리꿈센터'를 설립하였다. 그리고 2009년에는 다문화 가정지원, 공동육아, 방과 후 학교 운영을 위한 '누리어울림센터'를 개관하였다. 간디학교에는 현재 중1에서 고3까지 113명의 학생이 있다. 이들을 가르치는 교사가 30명이다. 여기에 아이들을 데리고 이주해온 가정을 포함해 약 40명이 덕산면 공동체 활동의 중심을 이루고 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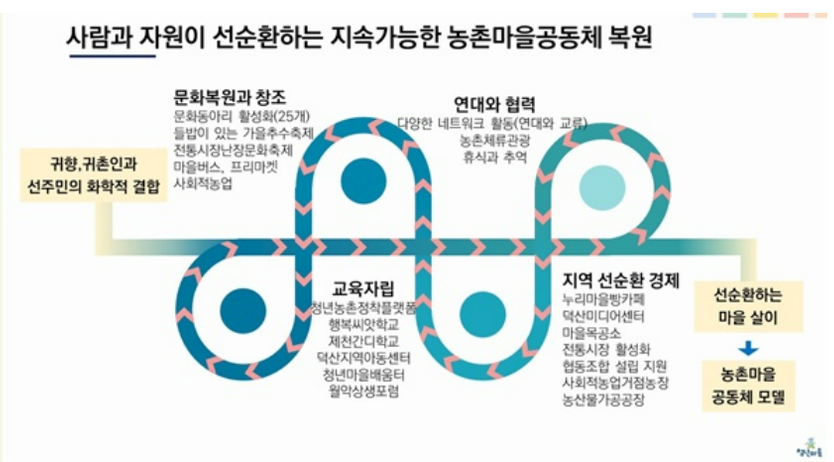
9) 오마이뉴스. 2021. 자립하려는 도시청년들, 이마을로 오세요, 21.01.22. 보도자료. 인용하였음

다) 청년마을

청년마을은 2019년부터 농식품부의 사회적 농업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사회적 농업은 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기반하여 다양한 사회적 서비스(치유, 사회적 재활, 교육, 고용 등)를 취약계층에게 제공하는 농업으로 정의한다. 청년마을은 사회적 약자인 청년(특히 도시의 청년)에게 대안적 삶의 기회를 제공하고, 이들이 농촌에 정착하여 농촌 재생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소멸 위기에 처한 농촌사회를 되살리기 위해서는 새로운 농촌 주민이 필요하기에 도시 청년에게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농촌에서 할 수 있도록 자긍심을 심어줄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청년마을의 역할이다.

'덕산 청년마을'은 '사람과 자원이 선순환 하는 지속 가능한 농촌 공동체 복원'을 비전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림 3-35] 청년마을 비전

자료: 한석주 대표

라) 청년 농장

청년들은 매일 오전에 마을주민들의 공유지(1만9800㎡)인 청년농장, 두레농장, 협동농장, 참좋은 농장에서 농작업을 한다. 또한 지역 대안학교인 간디학교에서 농사작업장을 선택한 아이들에게 영농실습 교육을 진행한다. 덕산지역아동센터 학생을 대상으로 한 농사체험 프로그램도 월 2회 이상 진행한다. 오후에는 각자 배우고 싶은 것을 기획하고 강좌를 개설하는 '마을배움터'와 '청년작업장'을 운영한다. 2019년 기준 운영되고 있는 배움터는 발효 교실, 요리 교실, 스마트폰 영화 만들기, 그림 교실, 영어책 수다방, 독서토론 등이며 분기마다 강좌는 새로 개설할 수 있다. 배움터는 청년 2명 이상이 요청하면 강사와 장소를 마련해주고 마을사람들에게도 포스터와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알린다. 창작과정은 스스로 깊이 배우고자 하는 청년이 있을 때 지원한다.

마) 청년작업장

청년작업장은 청년이 농촌에서 진로와 관련하여 배우고자 할 때 구성한다. 사회적경제기업(마을목공소, 공방, 누리마을빵카페, 작은집 건축학교, 힐링푸드영농조합 공장)이 제공된다. 이곳에서는 마을의 전문가 혹은 외부 전문가를 초빙해 기능을 익히고 스스로 창업할 수 있도록 돕는다. 마을에 귀촌한 유명 만화가와 그림책 작가가 여는 그림 작업장과 만화작업장, 자신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재료로 요리 전문가와 함께 만드는 로컬푸드 한끼식당, 영상감독과 함께하는 영상미디어센터, 농사 전문가와 함께하는 농사작업장이 운영 중이다.

바) 청년마을 미디어센터

청년마을의 가장 큰 특징은'청년마을 마을미디어센터'를 운영한다는 점이다. 2년의 노력 끝에 젊은 영화감독을 마을에 귀촌시켜 농촌의 시각에서 영상을 만들

장소를 마련했다. 영화교실, 마을영상아카이브를 꿈꾸는 감독이 영상교육을 진행하고, 만든 영상은 마을 활동을 홍보하고 소통하는 수단으로 이용한다. 청년마을은 마을미디어센터가 사회적경제 거점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생계와 거주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네트워크와 교육, 인프라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사) '파릇'과 '힐링푸드 영농조합'

먹거리 나눔협동조합 '파릇'은 귀촌자 30명이 생산한 유기농산물(가공 포함)을 무인 냉장고에 넣어두면 동네 사람들이 구입하는 시스템이다. 또한 힐링푸드영농조합을 설립하여 지역농산물의 가공과 6차산업을 추구하고 있다.

(4) 금산 별무리 대안학교 운영[10)]

가) 개요

충청남도 금산군 남일면에 소재하고 있는 대안학교인 별무리학교는 마을이 학교이고 학교가 마을이라는 개념으로 별무리 전원마을 안에 위치하고 있다. 2007년 농림부의 별무리 전원마을 조성사업에 선정되면서 기숙형 전원학교로 농촌과 전원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배우는 학교로 환경적으로 잘 준비된 전원 속에서 학생들이 사회가 요구하는 공동체 생활에 필요한 인성과 실력을 배양하고자 건립되었다.

나) 추진 내용

별무리학교는 2011년 7월 건축을 시작하여 2012년 2월 준공을 하여 그해 3월에 제1회 신입생 61명이 입학하였다. 별무리마을 조성에 앞서 2년 동안 마

10) 별무리학교 홈페이지(www.bmrschool.met) 참고 및 인용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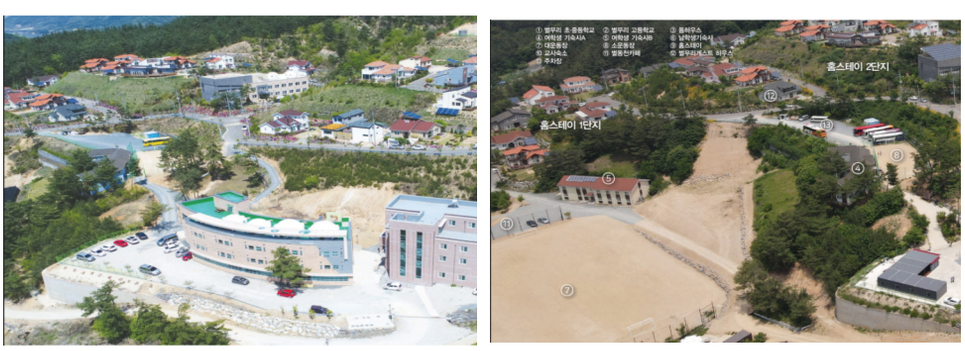
을주민들과 소통과 관계의 시간을 가졌고 학교가 설립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인근 마을 주민들도 환영했다.

2015년 2월에 별무리 고등학교가 준공되고 기숙사와 식당 등이 조성되었다.

별무리학교는 학교와 마을이 함께 성장하는 교육공동체라는 비전으로 초등학교 과정(6년), 중학교 과정(3년), 고등학교 과정(3년)을 통합 운영하여 학생 개인의 역량이 연속적으로 개발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 지도와 입체적인 멘토링을 시행하고 있다.

2022년 기준 학생수 284명(고등 139명, 중등 134명, 초등 11명), 남학생은 155명, 여학생은 129명이다. 학교시설로는 학교 본관, 기숙사, 홈스테이 등이 갖추어져 있다. 별무리학교의 교육과정 중 생태교육은 지역사회를 섬기는 봉사활동, 지역사회 문제해결 프로젝트, 국제 개발협력 활동, 가치(환경, 생태, 인권, 사회, 문화) 심화 교과 운영, 국토순례 및 테마여행이 있다.

금산군에는 별무리학교 외에도 대안교육기관인 사사학교, 간디학교, 레드스쿨, 리버트리스쿨, 로드십스쿨 등 6곳이 운영중에 있다. 금산군은 대안교육기관과 지역사회 현황을 공유하면서 졸업생 정착, 청년 인구유입 유도,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활용한 일자리 창출, 지역홍보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그림 3-36] 별무리학교 전경

다) 시사점

별무리학교의 재학생과 교직원을 합하면 350여명이며, 마을 주민까지 합하면 약 500명이 거주하여 금산군 남일면 별무리마을의 인구를 유지하는데 큰 몫을 차지한다. 학생들은 기숙사생활도 하지만 일부는 마을에서 운영하는 홈스테이를 하고 있고 학부모들이 매주 또는 매달 학교를 방문할 시, 자연스럽게 교류하면서 마을과 직간접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다. 따라서 별무리학교를 통해 마을의 인구 유지는 물론 관계인구 창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역소멸 위기지역에서 별무리학교와 같은 대안학교의 교육모델을 통해 학생들을 유치하고 마을과 지역사회와 교류하고 소통하면서 도시와의 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학생들이 졸업 후에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졸업생 창업으로 연계시키거나 지역사회와 협력할 수 있는 정책개발도 필요하다.

(5) 지역 고등학교 매력화 사업(오끼도우젠 고등학교)[11]

가) 고등학교 매력화 사업 이란

어느 지역의 실제 사회 속에서 다양한 지역주민들과 접촉하면서 사회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지속가능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미래의 인재를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총무성 사업이다.

나) 오끼도우젠 고등학교 개요

아마쵸(海士町)[12]가 속해 있는 오끼열도 도우젠지역의 유일한 고등학교가

11) 유학열(2019), 충남연구원 국외연수결과보고서 인용

12) 시마네현 반도에서 우리나라 동해 쪽으로 약 60km 떨어진 곳에 있는 아마쵸는 작은 몇 개의

‘오끼도우젠 고등학교[13]’이다. 오끼도우젠 고등학교 역시 다른 농산어촌지역과 마찬가지로 인구 감소에 의해 폐교될 위기를 겪었다. 아마쵸지역 내 유일한 고등학교가 폐교되면 자연스럽게 아마쵸의 아이들은 중학교를 졸업하면 육지로 나가 고등학교를 진학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가족 전체가 아마쵸를 떠나거나 육지로 나간 아이들의 생활비 등 경제적 부담이 생기기 마련이다. 또한 지역주민들과 고등학생들이 함께 해 온 지역행사도 사라질 위기에 처해지고 더나가 지역 커뮤니티의 약화로 이어질 것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불안은 적지 않았다. 이렇듯 아마쵸 주민들이 오끼도우젠 고등학교 존재가 갖는 의미는 매우 크기 때문에 폐교 위기의 불안과 위기감을 극복하기 위한 오끼도우젠 고등학교 개혁이 2008년부터 시작되었다.

다) 고등학교 매력화 사업 내용

① 특별 진학코스 설치

예전부터 아마쵸 지역주민들 사이에서는 ‘섬에 남에 있으면 절대로 학력이 증진되지 않아 대학 진학하기에 불리하다’라는 ‘상식’이 만연되어 있었다. 때문에 대학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은 아마쵸를 떠나 육지(일본 본토)의 고등학교로 진학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상식을 깨기 위한 노력으로 우선 ‘소규모 학교’만이 갖는 강점을 살려 학생 개개인에게 집중 지도를 해주는 ‘특별 진학코스’를 설치하였다. 아마쵸에는 당연히 민간 대학입시 학원이 없기에 아마쵸(행정)는 고등학교와 연계하여

섬으로 이루어진 자치단체임. 총 면적은 약 33.5㎢로 그리 넓지 않지만, 풍부한 자연환경과 오랜 역사를 간직한 문화유산 자원이 많은 지역임

13) 1955년에 개교한 ‘나기열도’에 유일한 고등학교임. 1989년 학생 수가 282명이었으나, 2008년에는 89명으로 줄어 학교 존폐의 위기가 있었음. 그 후 다양한 학교 개혁을 위한 노력으로 2016년에는 180명까지 증가함

“오끼국(隠岐国)학습센터” 라는 공영 학원을 설립하였다. 유명 대학입시 학원에서의 지도경력이 있는 경험 많은 강사를 초청하고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하여 육지의 도시지역과 견줄만한 학습 환경을 만들었다. 최근에는 유명 국립대학에 진학하는 학생이 늘어나고 성과를 거두고 있다.

② 지역창조 코스 설치

종래의 경우 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약 90%의 학생은 진학, 취업 관계로 섬을 떠나고, 일정 기간 후에 섬으로 돌아오는 비율은 20~30%에 불과하였다. 아마쵸를 지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는 섬을 떠난 지역 학생들을 다시 섬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였다. 많은 학생의 머릿속에 가지고 있던 ‘우리 섬에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도시에 나가야 뭔가 할 수 있다’ 라는 선입견을 지우게 하는 것이 급선무였다. 즉 ‘섬으로 돌아와 우리 섬을 활기 넘치게 하자는’ 애향심과 지역창업가 정신을 육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였다. 이러한 가치관 변화를 도모하고 차세대 지역리더로 육성하고자 하는 목표로 ‘지역창조 코스’를 설치하게 되었다. ‘지역창조 코스’에서는 아마쵸의 풍부한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마을 만들기를 계획하고 실천하는 활동과, 새로운 지역 특산품을 기획, 개발하는 능력을 배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③ 섬유학(島留學) 제도 도입

이전에는 지역 학생들이 육지로 유출되는 것을 어떻게든 막아보겠다는 ‘수비형’ 전략이었다면. 이제는 육지 학생들을 섬으로 유치하겠다는 ‘공격형’ 전략으로 전환하였다. 그 전략이 ‘섬유학 제도’이다. 섬 지역만이 가지고 있는 매력을 전면적으로 내세우는 전략이라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일반 고등학교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특별코스 수업, 전 학생 기숙사 무료, 식비 보조, 귀향 교통비 보조 등 다양한 장학제도를 들 수 있다. ‘섬유학 제도’ 시행 후 전체 학생 수의

증가는 물론 다른 지역(육지, 일본 본토)에서 아마쵸 고등학교로 입학해 오는 학생 수도 급증[14]하는 성과를 보인다. 2016년 기준으로 전체 학생 가운데 외부에서 들어 온 학생 비율은 무려 48%에 이르고 있다.

2) 유형 2: 비정기·단기체류 인구

(1) 화천 토고미 마을(1사1촌)[15]

가) 개요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에 있는 토고미 마을은 1999년 마을주민 3명이 '토고미 환경농업 작목반'을 구성하여 1ha의 농지에 무농약 오리쌀을 재배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마을주민들과 협력하여 친환경 오리쌀 단지를 조성하여 마을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폐교인 자연학교를 중심으로 1사 1촌을 기반으로 한 도농 교류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토고미마을의 마을 사업추진과정을 보면, 강원도 자체 추진사업인 새 농어촌 건설 운동 우수마을로 선정되면서 마을사업이 본격화되었다. 이후 녹색체험 마을, 정보화 마을, 농촌체험, 인성학교 등 정부와 지자체의 마을개발 사업에 선정되어 지속해서 성장하고 있다.

나) 1사1촌

특히 토고미마을은 2002년부터 삼성전기와 교류를 추진해 회사 워크숍 및 사원가족 농촌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2004년에는 토고미마을 후원

14) 2010년에 13명에서 2016년에는 86명으로 증가함

15) 프레시안, 마을 조상들의 철학을 닮은 유기농쌀 토고미로 20년째 마을자치를 운영하는 마을이 있다, 2020.10.03. 인용, 재정리

캠페인을 공동으로 전개했다. ‘삼성의 날’을 운영하고 있으며 기탁된 우렁이는 마을주민들이 농사를 지어 쌀로 다시 돌려준다. 이를 통해 기업이 농촌을 일방적으로 돕는 것이 아닌 기업과 농촌이 ‘상생’하는 관계가 지속되고 있다. 이 교류 과정에서 도시민의 선호도가 반영된 농산물 수확체험, 우렁이 쌀 축제, 논두렁 재즈 페스티벌 등 다양한 체험행사를 운영하고 있다. 토고미마을에서는 폐교(구, 신풍초등학교)를 임대해 숙박 시설을 만들고 자연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토고미자연학교는 마을의 중심이고 당일 혹은 2박 3일 체험행사가 이곳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림 3-37] 토고미 마을

자료: 토고미마을(23.02.26. 검색)
https://tour.invil.com/front/tour/gds/data.do?contsNo=829787&pdCd=GR00000665

(2) 문경 가치살자(지역 내 청년 정착)[16]

가) 개요

소상공인협동조합 가치살자는 문경의 비영리단체나 사업체 일원들이 모인 커뮤니티로 청년 인구의 문경 지역 경험 및 정착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가치살자의 대표적인 사업인 ‘달빛탐사대’는 청년들이 경제적 자립을 통해 지역에 정착하고 문경 지역사회의 새로운 가치 창출을 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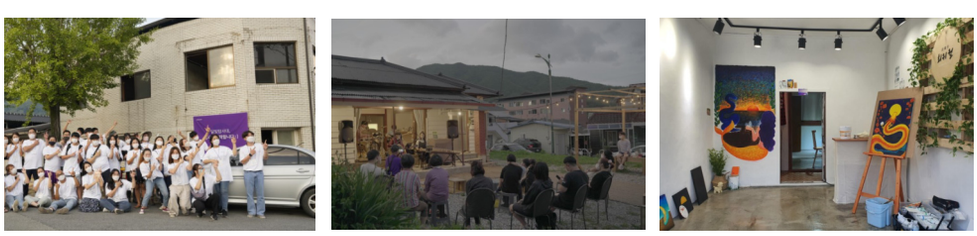
16) 김광선 외. 2022. 2022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정책 우수사례집.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인용하였음

나) 달빛 탐사대

문경 가치 살자의 청년들은 지역자원을 새로운 시각에서 재해석하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융합하여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고 관광문화 자원 발굴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청년들의 지속적 관계 유지와 청년문화 형성을 위한 '커뮤니티 활동', 유휴공간을 활용한 '활동공간 조성', '지역주민들과의 교류' 등 여러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이 중 '달빛 탐사대'사업은 지속해서 청년 정착에 관한 실험을 하며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고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 있다. 1차 연도(2020)에는 총 81명이 참여, 20개의 프로젝트가 진행되었고, 2차 연도(2021)에는 총 41명이 참여하여 26개의 프로젝트가 완료되었다.

달빛탐사대의 주요 프로그램 중 하나는 청년들이 동네 구석구석을 직접 걸으면서 지역을 탐사하며 유휴공간 활용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달빛탐사대가 무엇보다 주목하는 점은 문경 지역의 청년 관계인구를 확대하는 것이다. 2021년 말 기준으로 전체 프로그램 참가자 122명 중 지역참여자는 45(46%)명이었고, 다른 지역참여자가 77명(64%)이나 되었다. 그중 22명이 주소지를 이전하거나 문경 내에서 취창업을 했고, 이들을 포함한 50여 명은 프로젝트 지속 및 정착을 준비하고 있다.



[그림 3-38] 별빛사회적 협동조합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공식블로그(2023.2.8.)
https://blog.naver.com/kreipr/223008932669

(3) 강릉파도살롱&강릉살자(워케이션로컬&크리에이터 네트워킹)[17]

가) 개요

강릉의 청년창업기업 더웨이브 컴퍼니는 지역성을 기반으로 창의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하는 강릉지역 로컬크리에이터를 대상으로 일하기 좋은 공간을 마련, 지역 청년들과 네트워크와 협업의 장을 열어주는 창업기업이다. 강원도만의 색을 느낄 수 있는 로컬 콘텐츠를 기획·운영하며, 주요 사업은 '로컬크리에이터[18]'를 길러내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나) 파도살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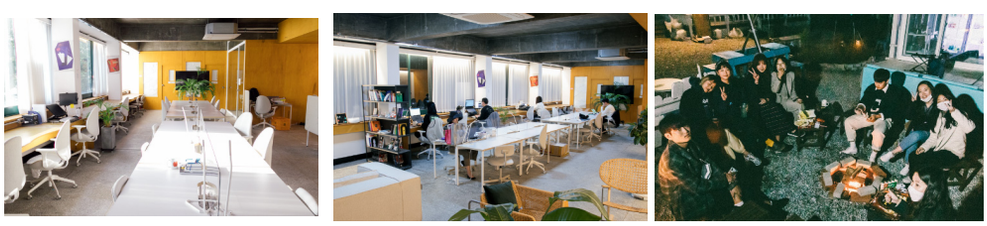
2019년 5월 문을 연 파도살롱은 강릉 로컬 크리에이터들에게 창의성 넘치는 공간과 커뮤니티를 제공하는 코워킹스페이스이다. 파도살롱은 지역성을 기반으로 창의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하는 강릉지역 로컬 크리에이터를 대상으로 일하기 좋은 공간을 제공하고, 네트워크와 협업의 장을 열어주는 창업기업이다. 파도살롱은 강릉 로컬 로스터리에서 볶은 원두로 커피를 내리고 로컬 꽃집에서 구입한 꽃으로 공간을 장식하며 로컬크리에이터가 운영하는 식당·카페·공연·전시·모임을 리모트워커들에게 안내한다. 여기에 호응한 크리에이터들이 모여들며 파도살롱은 강릉 로컬 비즈니스의 사랑방 역할을 하고 있으며, 강릉의 로컬크리에이터와 모든 리모트 워커들을 위한 공유 오피스로 프리랜서, 직장인, 학생 등 강릉을 찾은 모든 워커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운영되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공유오피스와 호텔, 카페 등과 제휴하여 최근 급부상

17) 강원도민일보. 2019. [창업 톡톡 스토리] 47.강릉 파도살롱, 2019.09.02. 보도자료. 인용하였음
18) 로컬크리에이터란 지역 문화와 자원을 비즈니스 모델과 접목해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가는 창업임

하고 있는 일과 휴가를 동시에 병행하는 워케이션(Work+Vacation)을 위한 공간으로서 지속적인 성장을 하고 있다.

다) 강릉 살자

행정안전부의 '청년마을만들기 공모사업'의 운영사로 선정돼 청년들이 강릉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시작된 '강릉살자'는 2017년부터 강릉으로 이주한 청년들로 구성되어있다. 원래 강릉이 고향이었던 강릉청년과 다른 지역에서 강릉으로 이주하여 정착한 지 6개월부터 4년까지 다양한 청년들로 이루어져 있다. 강릉에 이주하고 정착할 32명의 청년을 찾아, 청년들이 강릉에 살고 싶은 마음을 주는 커뮤니티를 만들고 청년들이 이 커뮤니티 안에서 다양한 일자리를 찾아 강릉에 정착하는 것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다.



[그림 3-39] 파도살롱&강릉살자

자료: 더웨이브컴퍼니 공식홈페이지, 강릉살자 공식홈페이지(2023.2.26. 검색)
http://thewavecompany.co.kr/padosalon, http://liveingangneung.kr/season1

(4) 서울시 서울농장[19]

가) 개요

서울농장은 서울시민들의 여유로운 여가활동과 건강증진 및 치유, 농촌체험 관광, 공동체회복 등 다양한 가치를 제공하는 농업·농촌에 대한 기대 증대를 위해 조성되었다. 2020년부터 서울시와 상주, 괴산, 영암, 영월, 부여, 남해 등 6개 시군에 자연·환경·어메니티 등이 잘 보존된 농촌과 도시와의 상생을 위해 공동으로 조성되었으며 최근에는 이를 활용한 워케이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나) 도농교류 플랫폼 "서울 농장"

서울농장은 '서울과 지역이 상생하는 도농교류 플랫폼'을 비전으로 농업·농촌의 다양한 가치를 체험하는 서울시민의 힐링공간을 조성하여 농촌의 가능성을 확인하는 청·장년 창업농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각 도단위의 권역 거점으로 서울 농장의 비전을 확산하는 체험·정보 교류의 장으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서울시가 서울농장 운영비의 70~80%를 지원하고, 서울농장 홍보나 참여자 모집 등을 하고 있으며, 시군에서는 서울농장의 부지를 확보하고 서울농장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하며 서울농장 활성화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19) 서울농장 공식홈페이지(2023.6.12. 검색), https://sangsaeng.seoul.go.kr. 인용하였음

괴산 사과 따기　　상주 선도농가 방문　　영암 월출산 문화체험

[그림 3-40] 서울농장 지역체험 프로그램

자료: 서울농장 공식홈페이지(2023.6.12. 검색), https://sangsaeng.seoul.go.kr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농사체험, 농촌생활생태체험, 공예, 요리, 전통놀이, 문화체험 등이 있으며 서울시가 운영하는 농촌 체험프로그램에 2022년에만 1,947명이 참여하였다.

다) 농촌 힐링 워케이션 프로그램

서울시는 농촌체험 수요 증가와 새로운 근무 형태인 워케이션이 본격 도입됨에 따라 '서울농장 농촌힐링 워케이션'을 운영해 시민에게 업무와 휴식을 함께 즐길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의 실질적인 활력도 높이는 '지역상생'을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서울농장 농촌힐링 워케이션' 시범 운영은 강원도 영월군, 충남 부여군, 경남 남해시 총 3개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현장 워케이션 코디네이터가 상주하고 있어 이용자의 편의를 돕고 있다.

워케이션은 서울시민 또는 서울 소재 기업 재직자로 기업단위, 개인단위, 가족단위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참가자에게는 3박4일 동안 여행자 보험, 숙소, 조식, 중식, 네트워킹 프로그램(지역체험) 1회를 제공한다. 이용자는 서울농장에 마련된 '공유오피스' 공간과 숙소, 사무공간을 이용할 수 있다.

① 영월 서울농장 워케이션

영월 서울농장은 8개의 객실과 40석의 공유오피스 좌석수를 보유하고 있다. 부대시설로는 야외쉼터, 농사체험실습장, 족구장, 야외무대, 세탁실 등이 있어 워케이션을 하기 불편함이 없는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영월 서울농장의 워크스페이스를 벗어나면 영월군 지역체험으로 농장생태체험(청계닭장 탐방, 감자옹심이 만들기 등), 공예클래스(천연 방향제 만들기), 영월 지역체험(고씨굴 및 요선암 트레킹등)을 할 수 있게 구성되어 있다.

② 부여 서울농장 워케이션

부여 서울농장은 복층 및 단층으로 이루어진 12개의 객실과 30석의 공유오피스 좌석수를 보유하고 있다. 부대시설로는 카페테리아, 족구장, 간이매점, 야외 테라스 바비큐장이 조성되어 있어 가족 단위의 체험객들이 선호하고 있다.

워크스페이스를 벗어나면 부여군 지역체험으로 농장체험 및 공예클레스(등나무 및 자개 공예), 액티비티(열기구, 황포돛배, 카누 등), 부여 지역체험(성흥산 사랑나무, 부소산, 규암면 근대화 거리 등)을 할 수 있다. 어린이 동반 가족들이 일과 함께 지역의 역사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있어 도시민의 호응이 높은 편이다.

③ 남해 서울농장 워케이션

남해 서울농장은 총 10개의 객실과 40석의 공유오피스 좌석수를 보유하고 있다. 부대 이용시설로 카페테리아, 야외쉼터, 식당, 운동장, 농사 실습장을 이용 할 수 있다.

남해군의 지역체험으로 남해 자연 환경만나기(바다에서 카약타기), 남해 농촌체험 및 쿠킹클래서(텃밭 식재료 활용), 남해 자연에서 여유 느끼기(불멍별명), 지역 체험(구운몽길 탐방하기 등)을 할 수 있다.

영월 공유 오피스

부여 숙소

남해군 지역체험(보리암)

[그림 3-41] 서울농장 워케이션

자료: 서울시, 2023 서울농장 농촌힐링 워케이션 소개서

(5) 제주 세화리 워케이션 프로그램[20)]

가) 개요

일(Work)과 휴가(Vacation)의 합성어인 워케이션(Workation)은 근로자가 원하는 장소나 휴가지에서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면서 관광과 휴가를 동시에 하는 것을 의미한다. 단순한 재택근무나 원격근무와 달리 일과 관광 모두를 병행할 수 있는 새로운 근무형태이자 관광트렌드이다.

코로나19로 많은 사람들이 동일한 공간에서 업무하는 형태가 어려워지자 이러한 근무형태가 대기업 사무직을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단기간 운영결과, 워케이션이 새로운 근무형태이자 관광트렌드로 확산되었고 근로자들과 프로그램 운영자들도 만족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또한 지역 내 체류인구와 소비액의 증가가 뚜렷이 나타났고 관계인구 증가를 통한 지역활성화의 좋은 사례로 주목하고 있다.

20) 김광선 외. 2022. 2022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정책 우수사례집.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참고 및 인용하였음

나) 추진 내용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에 있는 세화리는 청장년층의 이탈과 고령화로 마을이 활력을 잃어가고 있는 상태에서 이주민의 유입으로 공동체 의식이 약화되어 가고 있었다. 마을이 처한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 2016년에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인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을 시작하였다.

마을예식장으로 쓰였던 버려진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질그랭이 거점센터를 조성하여 마을활성화를 위한 대표사업을 추진하였다. 거점센터 1층은 마을리사무소, 마을협동조합 사무실, 주민여행사 사무실, 2층은 카페, 판매장, 3층은 공유오피스, 세미나실, 4층은 숙박시설로 활용된다. 이곳에서는 마을카페, 베이커리, 공유오피스, 숙박서비스, 로컬푸드 유통사업과 마을관광(해녀관광, 오름관광) 등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마을활성화를 위한 구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세화리 494명의 주민이 함께 마을사업을 운영하면서 협동조합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정규직 7명, 비정규직 1명이 종사하고 있다.

관계인구 증가를 위한 업무공간에는 약 20명 수용 가능하고 코워킹스페이스, 세미나실이 있고, 부대시설로는 포컬푸드판매장, 주민여행사, 숙박시설 등이 마련되어 있다. 연계가 가능한 관광지로는 세화해수욕장, 제주해녀박물관, 세화리 농어촌체험휴양마을 등이 있다.

세화리에서는 2022년 한국전력, 한국농어촌공사, 티몬, 이지스자산운용, 폴라리스오피스 등 20여 개의 기업에서 600여명이 세화마을의 워케이션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약 3억원을 소비하였다. 2023년에는 2022년 참여기업 외에 현대홈쇼핑, 현대백화점 등 100여개의 기업에서 참여 하고 있고, 2023년 5월 기준으로 약 1,000명이 예약을 완료한 상태로 추가 인원 600명에 대한 추가 장

소를 섭외중이라고 한다.

마을에서 워케이션을 운영한 결과 1인당 4박 5일을 체류할 경우, 약 50만원을 소비한다고 한다. 따라서 20명이 1주일 간 마을에서 소비할 경우 약 1,000만원을 지출하여 마을에서는 워케이션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한다(지정석 제공 10,000원, 세미나실 대관 1시간 10,000원, 카페 쿠폰 이용 7,000원, 이외 식사비, 숙박비 등).

다) 시사점

활력을 잃어가는 농촌마을 활성화를 위해 관계인구 증가라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마을내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워케이션 프로그램을 접목하였다. 운영결과 관계인구 증가와 마을소득 증가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은 성공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기업을 대상으로 한 워케이션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기업과 근로자의 눈높이에 맞는 환경과 여건을 갖추어야 하고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주민들도 경쟁력 강화를 위해 차별화되고 지속가능한 콘텐츠를 개발하여 운영해야 한다.

(6) 인천 인천섬 도도하게 살아보기[21)]

가) 개요

인천시는 지역소멸에 대응하고 관계인구 증가를 통해 인천지역 섬 관광활성화를 위해 '인천섬 도도하게 살아보기' 정책을 추진하였다. 이 정책은 섬 관광

21) 인천뉴스(2023.5.25.), '인천보물섬 도도하게 살아보기' 기사 내용 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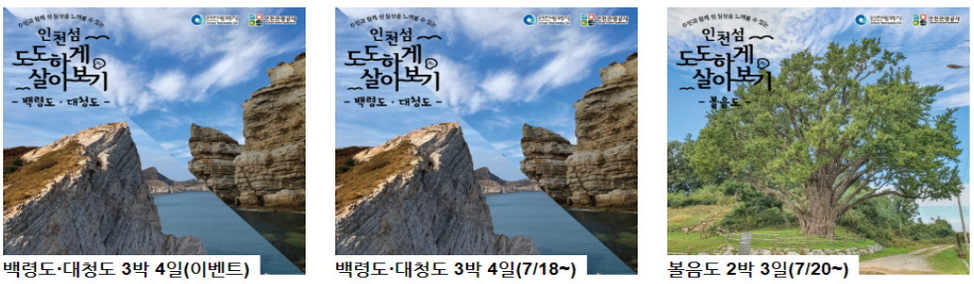
자원을 활용한 차별화된 관광콘텐츠를 발굴하고 섬지역 관광 활성화를 추진하고자 진행하였다. 섬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와 섬의 가치를 증대시키고 체류형 관광상품 운영으로 관광객 방문 유도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나) 추진 내용

'인천섬 도도하게 살아보기'는 인천시 지역 내 섬을 찾는 관광객들이 섬 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활동을 체험하면서 현지 주민과 함께 일상을 즐길 수 있는 형식의 관광프로그램이다. 옹진군의 경우 신시모도(신도, 시도, 모도), 장봉도, 덕적도, 소야도, 백령도, 대청도, 자월도, 소이작도, 승봉도, 소야도, 연평도와 강화도의 볼음도, 주문도 등 총 14개 섬 지역에서 운영이 된다.

인천섬 도도하게 살아보기 상품의 관광수익은 모두 섬 주민들의 소득으로 돌아가게 설계되었다. 주민들이 운영하는 숙소와 음식점을 이용하게 프로그램을 구성하였고 체험프로그램도 모두 주민들이 직접 운영하고 있다.

주요 관광상품으로는 갯벌체험, 낙조감상, 패들보트 카약체험, 별자리투어, 은하수를 체험할 수 있는 상품을 운영하고 있다. 섬 지역에서 체류기간을 늘리기 위해 체류형 관광상품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다. 특히, 섬 관광자원의 특징과 컨셉을 반영한 스토리를 개발하며 1박 2일, 2박 3일 동안 섬에서 체류하면서 즐길 수 있는 체험형 관광상품을 주로 운영중이다. 관광객은 현지체험, 갯벌체험, 농산물수확, 트레킹, 플로킹, 자전거체험, 해설 등 관광상품당 3가지 이상의 체험프로그램에 필수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숙박이나 식당 등 지역상권과 지역관광사업자와 상생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갈 예정이다.



[그림 3-42] 인천섬 도도하게 살아보기 홍보

[그림 3-43] 인천 옹진섬 도도하게 살아보기 사례

다) 시사점

'인천섬 도도하게 살아보기' 프로그램은 평소에 방문하기가 어려운 섬 지역을 대상으로 진행이 되고 섬내에서의 생생한 체험을 통해 섬 지역과 관계인구를 맺어 볼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으로 평가받고 있다.

관광객들은 인천시 지역 내 섬 지역을 방문하고 섬 지역에 체류하면서 다양한 현지체험을 통해 지역과 소통하고 교류하는 계기가 되었다. 지역주민들과 교류하면서 섬의 매력을 발견하고 섬을 방문의 대상이자 간접적으로 살아보는 경험을 하면서 귀농·귀촌·귀어를 위한 좋은 계기로 활용하고 체험을 통한 구전과 홍보를 통해 섬을 방문하는 관광객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7) 제주 글로벌제주문화협동조합[22)]

가) 개요

제주의 글로벌제주문화협동조합은 2016년 7명의 청년이 농촌, 청년, 교육을 테마로 한 새로운 문화사업 추진을 위해 설립되었다. 조합은 제주도의 관광자원과 제주 농업, 청년 일자리를 연계한 새로운 접근방식을 지향하고 있다. 사업은 협동조합 방식의 플랫폼을 만들고 각자가 사업주체로서 수익을 가져가는 구조로 구상 하였으며, 처음 시작한 '청년 워킹홀리데이'는 자신들이 농장에서 일하면서 돈도 벌고 관광도 하면서 제주도에서 살아보는 프로그램이다.

나) 청년 워킹홀리데이

글로벌제주문화협동조합을 통해 모집된 국내 워킹홀리데이인은 일손이 필요한 농가에 투입돼 일을 하게 된다. 워홀러들의 하루 인건비는 약 8만 원 정도로 제주도의 일반적 인건비의 약 70% 수준이다.

2017년에 글로벌제주문화협동조합에서는 워킹홀리데이와 대학 간의 협력을 통한 첫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대구한의대학교의 진로 탐색 프로그램과 워킹홀리데이를 연계하며 캠프가 더욱 활기를 얻게 된다. 학생들은 방학 기간을 이용하여 보름 동안 글로벌제주문화협동조합 캠프에 머물면서 농사일에 참여하기도 하고, 농촌 정책, 마케팅, 의사소통, 어학 등의 수업도 진행 한다.

주요 프로그램 중 농산물 마케팅 프로그램 반응이 가장 호응이 좋은데, 머무는 동안 직접 수확한 농산물을 각자 자신의 아이디어를 활용하여 판매하는 프로그램이다. 전공에 따라 디자인과는 상품 디자인 측면에서 접근하고, 영상학

22)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1. [삶의 질 우수사례]글로벌제주문화협동조합. 발행지: 한국농촌경제연구원공식블로그. https://blog.naver.com/kreipr/222476192321. (23.02.26. 검색). 인용하였음

과는 영상을 만들어 농산물을 팔기도 하였다. 부가소득은 청년들이 가져가게 되기 때문에 학생들은 계절학기 학점도 얻고, 일에 대한 수익도 얻어가는 구조가 형성 된다.

워킹홀리데이를 통해 수확한 농산품은 송악산 앞에 위치한 '알뜨르 농부시장'이라는 직판장을 통해 주로 판매된다. 이곳에서의 농산물 판로는 직거래가 이루어지며 워킹홀리데이 등으로 만들어진 네트워크가 큰 역할을 하게 된다. 직접 농사짓고 수확해 본 경험을 갖고 있는 학생들과 국내외 워홀러들이 고정적 소비자 겸 안테나숍 역할을 한다.

다) 시사점

글로벌제주문화협동조합은 농업을 하나의 청년 문화로 풀어냄으로써 청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하고 있다. 프로그램이 끝나고 도시로 돌아간 청년들은 농촌과 또 다른 관계를 맺는다. 지역의 농산물을 판매하는 개인 판매처이자 지역을 홍보하는 마케터가 되는 것이다. 프로그램에 참여 한 청년들이 도시와 농촌을 연결하는 방식은 기존 도농교류 프로그램들이 보인 한계점을 극복한 새로운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일회성 교류가 아니라 지속적인 관심을 갖는 관계인구가 되는 것이다.

청년워킹홀리데이 참여자

청년워킹홀리데이

알뜨르 농부시장

[그림 3-44] 제주 글로벌제주문화협동조합

자료: 농촌경제 연구원 블로그(https://blog.naver.com/kreipr/222476192321)

(8) 경북형 작은정원 조성 사업

가) 개요

경북형 작은정원(클라인가르텐[23])조성 사업은 정주인구 중심의 양적 확대 정책에서 지역과 지속적으로 교류하는 관계인구 확보를 위해 2022년부터 경상북도시범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클라인가르텐은 독일어로 작은 정원이라는 의미로 도시민들이 주말이나 휴일을 보낼 수 있는 체류형 야외정원을 의미한다.

작은정원 조성 사업은 도시민들을 위한 휴식·여가·농촌체험 복합공간을 조성하고 체류 및 생활(관계)인구를 확보함으로써 지역 활성화와 인구활력 증진을 목표로 한다. 경북에서는 휴양, 레저, 전원생활, 원격근무 등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지방에 제2 생활거점을 마련을 통한 체류 기반을 조성해 관계 인구를 확보하고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나) 문경 온데이팜[24]

문경시는 2021년 경북형 작은정원 조성사업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영순면 김용리 25,500㎡ 부지에 총사업비 40억원을 투자 하여 “온가족이 오고싶은 문경 온데이팜”을 조성중에 있다. 사업대상지인 영순면은 송정산 전망대, 청정식물원, 수석전시관을 비롯한 관광자원과 미나리, 표고버섯, 체리, 애플망고 등 각종 시범재배를 지원하는 농업자원의 결합이 가능한 지역이다.

작은정원 사업을 통해 도시민 개별텃밭과 개별체류시설, 가족형 작은정원을

23) 클라이가르텐은 독일어 Klein(작다)과 Garten(정원)의 합성어로 개인이 토지를 빌려서 심신의 견강유지, 휴양, 농업생산 등 다목적으로 공간을 조성하는 작은 정원의 개념임(류연수, 2020).

24) 경북일보. 2021. 문경시, ‘경북형 작은정원’ 조성 공모사업 최종 선정. 2021.04.13. 보도자료. 인용하였음.

조성하고 온가족 휴식공원, 오토캠핑장, 스마트팜 등 공동시설 등을 조성한다. 기반시설을 비롯해 도시민 유입을 위한 주요 프로그램으로 어린이 체험 프로그램, 농업 및 스마트팜 교육 등 실시를 계획하고 있다.

[그림 3-45] 문경 작은정원 사업(온데이팜)

자료: 경상북도(www.gb.go.kr)

다) 성주 가야산 그리네 마을[25]

성주군은 2022년 경북형 작은정원 조성사업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수륜면 백운리 일원 27,044㎡ 부지에 총사업비 40억 원을 투입해"가야산 그리네 마을"을 조성중에 있다. 사업대상지는 가야산국립공원이 위치한 수륜면 백운리 일대 청정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대도시 근교 힐링·휴양마을 조성을 계획하고 있다.

주요 시설로는 개별텃밭·정원과 주차장을 갖춘 체류시설 20동을 조성하고, 숲속산책로, 클럽하우스(카페, 공용세탁실, 커뮤니티존 등), 공동텃밭 등을 조

25) 대구·경북뉴스. 2023. 가야산그리네 백운마을, 경북형작은정원 조성사업 추진 박차. 2023.04.21. 보도자료. 인용하였음.

성해 관계인구 유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지역예술가를 통한 문화체험, 가야산 숲해설사와 함께 즐기는 숲 체험 등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다양한 문화예술 체험프로그램 운영으로 입주민과 지역주민 간 교류를 활성화해 머물고 싶은 마을을 만들어 나갈 계획을 하고 있다.

[그림 3-46] 성주 작은정원 사업(가야산 그리네마을)

자료: 경상북도(www.gb.go.kr)

(9) 일본 야치요 시민농원(야치요 클라인가르텐)

가)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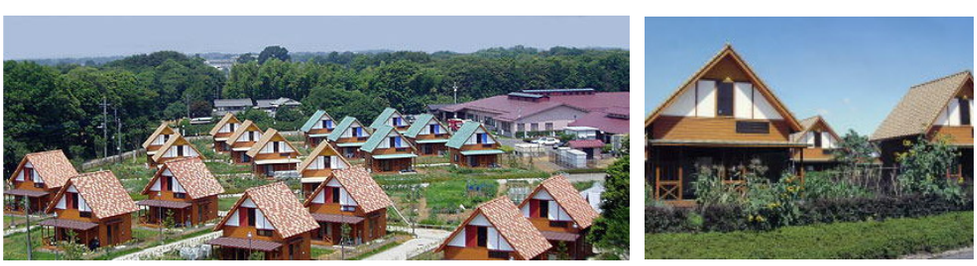
클라인가르텐이란 약 200년의 역사를 가진 독일의 독특한 농지 임차제도이다. 번역하면 「작은 정원」이 되며 일본에서는 '시민농원' 혹은 '체재형 시민농원'이라고도 한다. 클라인가르텐의 공간 내에는 라우베(Raube)라는 가옥이 있으며, 농원에서는 가정용 텃밭이나 정원을 가꿀 수 있다. 따라서 별장, 세컨드 하우스 감각으로 빌릴 수 있어 시골 생활이나 슬로우 라이프를 해 보고 싶은 사람에게 적합하다. 일본 시민농원의 대부분은 국가 보조금에 의해 조성되며 사업 추진은 대부분 자치단체에서 맡고 있으나 일부 지역에서는 NPO나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기도 한다.

일본에서 가장 먼저 체류형 시민농원을 조성한 곳은 수도 도쿄에서 약 60km 떨어진 이바라키현의 야치요 시민농원으로 1993년 개설되었다. 지자체 차원에서 도시주민과의 장기교류 활동을 전개하기 위한 지역산업과 농촌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성되었다.[26]

나) 추진 내용

① 야치요 시민농원 개요

야치요 시민농원은 휴식공간정비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으며 240,429천엔(국가보조 약 50%)이 투입되어 조성되었다. 총 면적은 9,274㎡이며 270㎡ 규모의 공간이 29개가 구획되어있다. 주요 시설로는 라우베, 주차장, 농기구보관소, 식음대, 옥외화장실, 클럽하우스 등이 있으며 임대 기간은 1년씩 최장 5년까지 갱신 가능하다. 시민농원 응모는 추첨방식으로 경쟁률은 약 10배수에 달한다.



[그림 3-47] 일본 야치요 시민농원

자료: 야치요 시민농원 홈페이지(https://www.town.ibaraki-yachiyo.lg.jp/)

② 시민농원의 유형

26) 손혜미 외(2009), 복수 거주의 개념에서 살펴본 체재형 주말농장 클라인가르텐의 실태와 과제. 한국주거학회. p.219~220 인용하였음

야치요 시민농원은 크게 2가지 유형인 체류형 시민농원과 당일치기형 시민농원으로 운영된다. 먼저, 체류형 시민농원은 1구획당 270㎡(약 81.67평)의 토지에 라우베(숙박시설)가 위치하고 있으며 수도, 전기, 목욕, 화장실이 구비되어 있다. 당일치기형 시민농원은 1구획당 약 25제곱미터(약 7.56평)의 농원만 위치하며, 라우베(숙박 시설)가 없기 때문에 숙박보다는 당일치기형 농원 관리를 원하는 수요자들에게 적합한 유형이다.

③ 주요 프로그램: 시골친척(田舎親戚) 프로그램

시민농원 이용자와 현지 주민이 인사 등 일상적인 교류로부터 농산물의 재배방법, 가공 기술, 농촌의 역사·문화 등의 조언을 통해 도시 주민(이용자)과 현지 주민 간 밀접한 교류를 도모하고 있다.

[그림 3-48] 일본 야치요 시민농원 홍보용 팜플렛

자료: 야치요 시민농원 홈페이지(https://www.town.ibaraki-yachiyo.lg.jp/)

다) 시사점

일본 야치요 시민농원은 단순히 주말별장을 조성하여 도시민이 농촌을 체험한다는 개념에서 벗어나 지역주민과 시민농원 이용자 간의 관계 형성을 통해 친척보다 더 가까운 교류 문화를 추구하고 있다. 이처럼 도시민과 농촌지역 주민이 융합될 수 있는 체류형 교류 프로그램 마련을 통한 관계인구 확대 전략이 중요하다.

3) 유형 3: 잠재적 관계인구

(1) 아무것도 하지 않는 숙박(何もしない合宿): 일본 시즈오카현 스소노시[27]

가) 추진 배경 및 목적

이 프로그램은 도시로 나갔던 사람들이 정착지로 고향을 선택하고 고향에 뿌리를 내리는 고향 애착을 만들기 위해 시작되었다. 스소노시는 2015년 기준 인구 52,737명으로 2010년 조사 대비 1,809명, 3.3% 감소하고 있는 지역이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숙박은 부모, 교사, 친구 이외의 일상 관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시작되었다.

나) 추진 내용

지속해서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기에 최대한 운영에 있어 부담되는 일은 배제하고자 최소한의 규칙 이외에는 정하지 않는 것이 규칙이다. 예를 들어 밤 아홉 시 전에 무조건 취침이 아니라 아홉 시가 되면 참가자 스스로 자려고 노력한다

27) 박진욱·유학열·오형은(2021) “우리나라 농촌의 현황과 농촌 활력”, 대한민국 2030 미래농업기술전망 인용

고 변경해서 관리 받는 사람과 관리하는 사람 상호 부담을 줄이고자 하고 있다. 참여하는 사람들은 누구의 엄마, 누구의 형으로 불리는 것이 아니라 개인으로 활동한다. 손님이나, 봉사자가 아니라 각자가 주체가 되어서 참여하는 것을 규칙으로 하고 있다. 개인과 개인이 기분 좋은 인간관계를 맺고, 자신과 가족을 희생하는 관계를 만들지 않고, 자기 행복을 위해서 참여하고 활동하고 있다. 다양한 나이의 학생들이 숙박 모임에서 만나 함께 놀고, 다른 학교 학생들이 만나서 친구가 되기도 한다.

고향으로 다시 돌아온다는 것은 본가와 부모님이 있고 친구가 있다는 장점이 있다. 좋은 인간관계 속에서 아이를 키우며 살고 싶다는 느낌을 받기 위해서는 제3의 인간관계가 필요하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숙박은 제3의 인간관계를 만들기 위해 고향을 떠나기 전에 다른 사람들과 자주, 지속해서 접촉하는 것을 목표로 정해진 기획프로그램이 없는 상황에서 참여한 사람들이 스스로 프로그램을 만들어 운영하는 방식을 선택하고 있다.

지역 내 또 하나의 프로그램인 '목소리의 힘 프로젝트(声の力 プロジェクト)'는 스소노 고등학생이 외출을 못 하고 집안에서만 생활하는 독거노인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화를 나누는 활동으로 고등학생들과 지역사회를 연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런 활동은 장소와 상관없이 시대적 상황에 맞게 개인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지역사회 관계 맺기 활동을 통해 지역 청소년들에게 지내기 편하고 즐겁고, 기분 좋은 인간관계가 있는 스소노에서 살아가는 미래를 꿈꾸게 한다.

지역 청소년들이 공부를 위해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잠시 떠났다가도 다시 고향인 시골로 돌아오는 가능성은 영화 '리틀포레스트'에서도 등장했다. 엄마와 함께했던 집이 있고 친구가 있고 아는 옆집 할머니가 있는 시골 마을은 이웃의 도움을 받아 농산물을 생산하고 그 농산물로 엄마와의 추억의 음식을 만드

는 곳이자 어린 시절 친구들과 작은 행복을 느끼는 안식처이자 새로운 인생을 준비할 터전이 되었다.

다) 시사점

우리 지역과 전혀 관계성이 없는 새로운 사람들과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보다 이곳에서 자란 사람들과 다시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이 더 쉽고 빠른 방법일 수 있다. 다시 고향으로 회귀하는 사람들이 있는 농촌을 만들기 위해서는 청소년 시기에 제3의 관계를 만드는 지역사회 노력이 필요하다. 청소년들에게 친구를 만들어 주고, 지역사회 여러 사람과 알게 하고, 그들에게 도움이 되는 도움받는 활동을 했던 추억을 가지게 하고 아는 사람이 있는 고향이 편안하고 안전하다는 인식을 만드는 과정이 미래의 농촌공동체, 사회를 유지하는 큰 힘이 될 것이다.

(2) 운난시(일본어)[28] 지역인재 육성사업과 지역 서포트 사업

가) 운난 스페셜 챌린지(UNNAN Special Challenge)

운난시 독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운난 스페셜 챌린지'는 향후 지속될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기획된 사업이다. 운난시의 미래를 짊어 질 지역 청년을 대상으로 지역의 미래를 위해 필요한 도전 과제를 공모, 지원하는 사업으로 운난시 '후루사또(고향) 납세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즉 운난시를 응원하는 자(개인, 기업

28) 시마네현 동부에 있는 운난시는 2004년 주변의 6개의 정(町) 합병하여 새롭게 탄생한 지자체임. 총 면적이 약 553㎢로 제법 넓은 편이나 대부분이 임야가 차지하고 있는 전형적인 농산촌지역임. 2018년 기준으로 총 인구는 39,032명, 세대수는 12,527호이며 이전부터 줄어들고 있는 추세로 다른 농촌 지자체와 동일하게 고령화, 과소화가 지속되고 있음

등)로부터 기부금을 받고, 운난시에 거주하는 중고등학생의 국내외 연수, 대학생의 해외유학 그리고 지역 내 청년들의 창업자금을 지원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

나) 지역 프로듀서 육성 강좌

이전부터 운난시는 지역의 미래를 짊어질 아동과 청소년(유치원생~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역에 대한 애착심을 배양하고 지역의 미래에 대한 관심을 두게끔 하는 캐리어교육에 노력해 왔다. 하지만 이러한 교육이 중학생까지로 되어 있었기에 고등학생, 대학생, 사회인을 대상으로 한 인재육성 프로그램이 요구되었다. 이에 부응하기 위해 2011년부터 '지역 프로듀서 육성 강좌'를 도입 실시해 오고 있다.

'지역 프로듀서 육성 강좌'는 기수별로 약 6개월간 진행되며, 강좌는 지역 자원 찾기, 지역 문제점 발굴하기, 지역 미래를 위한 계획 세우기 등의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기수별로 약 15명 전후의 지역 청년들[29]이 참가하고 있으며 참가자의 평균 연령은 약 30세이다. 강좌의 성과로는 첫째, 지역인재가 발굴되고 연대할 수 계기가 만들어졌다는 점이다. 강좌를 참여한 지역 청년들 간의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지역 인재육성을 위한 플랫폼이 구축되었고, 지역 외 청년들도 일부 참가하게 됨에 따라 운난시를 외부에서 지원해 줄 인재도 발굴 되는 기회도 되었다. 둘째 참가자들이 작성한 지역 활성화 계획이 실제로 실현되고 있다는 점이다. '지역 프로듀서 육성 강좌'의 최종 목표는 참가자들이 지역개발 전문가로 구성된 강사들과 함께 지역활성화 계획(강좌에서는 'my plan'이라고 함)을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만들어진 계획 일부가 실제로 운난시 지역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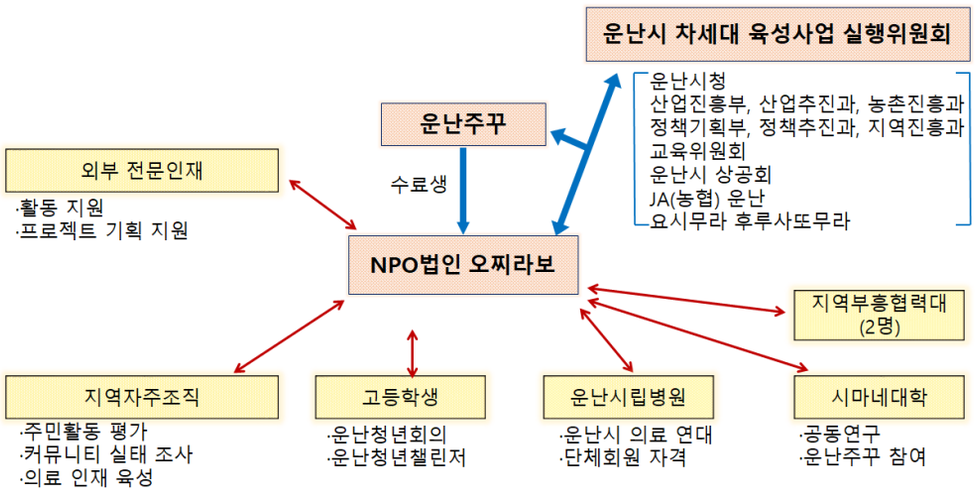
29) 운난시에 거주하지 않은 청년도 참여할 수 있음

[그림 3-49] 운난시 지역인재 육성사업과 지역 서포트 사업

다) 지역 서포트 사업

상기에서 설명한 '지역 프로듀서 육성 강좌' 에 참여한 수강생들이 강좌 수료 후에도 지속적인 지역 활동을 추구하고자 NPO법인 '오찌라보'를 2013년에 설립하였다. '오찌라보' NPO법인은 지역 활성화에 관심 있는 지역 내외 청년들의 지역 만들기 거점이라 할 수 있으며, 2015년 기준으로 상근 4명, 비상근 3명으로 운영되고 있다.

주요 활동 내용을 보면 '운난시 청년회의' 운영, 운난시 병원들과 연계한 의료 축제 개최, 운난시 의료기관 투어 실시,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창업 강좌 실시, 지역 커뮤니티 조사(지역문제, 주민 요구 등), 지역대학과 지역평가 연구, 지역만들기 학습회 개최 등이다. 이렇듯 NPO법인 '오찌라보'가 중심이 되어 지역 내 주체(주민조직, 학교, 병원 등)들과 연계하여 다양한 지역 활성화 사업을 지원하거나 직접 시행하고 있다.



[그림 3-50] NPO법인 '오찌라보'와 지역조직 간의 연계

3. 소결

농촌지역(농촌주민) 측면에서 바라본 관계인구에 대한 중요성과 정책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 농촌지역주민 대상 설문조사 및 전문가 자문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농촌사회가 국면하고 있는 인구감소 문제와 더불어 고령화, 과소화로 인해 표출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방안으로 관계인구의 필요성이 증대되었다는 점이다. 즉, 위기에 처해 있는 농촌지역 입장으로 볼 때 관계인구가 갖는 의미와 기대감이 적지 않다고 해석할 수 있다.

둘째, 농촌주민들은 외부 주체들로부터 마을 발전을 위한 전문적 자문과 컨설팅에 대한 수요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는 점이다. 다음으로 소득 창출을 위한 6차산업화(농촌융복합산업) 지원 및 마을 환경 개선을 위한 일손 부족 현상을 관계인구로부터 해결하고 싶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렇듯 농촌주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고 효율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도농상생 매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셋째, 전문가들은 관계인구를 창출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관계인구가 되는 계층(속성)을 명확하게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예를 들면 청년, 중장년, 학생, 주부 등 다양한 속성을 고려해서 속성별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지를 잘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즉 인구학적 속성과 목적을 함께 고려해서 다양한 형태의 관계인구 창출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넷째, 농촌지역 내부의 누구와 관계를 맺느냐가 매우 중요한 요소라는 점이다. 외부 주체들의 일방적인 주도로 농촌지역과 관계를 맺는 것보다 농촌지역 내부의 사정을 잘 아는 사람들과 충분히 서로 간 의견조율이 필요하다. 따라서 관계인구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농촌지역 내부의 역량강화도 중요하다.

한편 국내외 관계인구 창출 우수 사례 분석을 통해서 얻은 시사점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도시의 청년층을 대상으로 농촌지역과 관계를 맺기 위해 적극적, 창의적 방안을 제시하고 현장에서 그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청년층을 대상으로 농촌지역에서 창업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 제시를 통해 안정적이고 지속적 정착을 유도하고 있다.

둘째, 최근 도시민의 농촌, 농업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농촌지역 살아보기, 주말농장 등 농촌농업과 접할 기회를 만들고 있다는 점이다. 즉 도시민이 농촌지역에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 경험 등을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찾고자 하는 경향이 강하다. 기존의 단순한 농업노동력 제공, 농촌일손 돕기, 1사1촌 등 농업 지원 활동에서 벗어나 문화 활동, 창업 활동, 봉사활동 등 다양한 측면에서 농촌지역 및 농촌주민과의 관계맺기를 추구하고 있다.

셋째, 일본 사례의 경우 앞으로 농촌지역을 짊어질 인력 양성에 노력하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고등학교 매력화 사업, 지역 프로듀서 육성 강좌 사례에 그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즉 지역주민은 물론 도시주민을 대상으로 지역에서 취업 또는 창업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여 미래 지역 인재를 확보하고 있다는 것이다.

넷째, 도시지역의 다양한 속성을 지닌 주체들과의 관계인구 형성에 노력(기업, 대학, 청소년, 중장년층 등)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점이다. 다양한 계층(주체)들과의 여러 형태를 통해 농촌지역 내 산적한 복잡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해 가면서 심층적 관계를 맺고 있다.

제 4 장

관계인구 창출 및 활용 전략

1. 기본 방향
2. 세부 전략

1. 기본 방향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관계인구 창출 및 확대 전략의 기본 방향은 ① 상호보완적 상생 관계, ② 지속적·심층적 교류, ③ 관계인구 대상 확대, ④ 사회적 관계자본 형성, ⑤ 유형별 관계인구 창출에 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농촌지역(농촌주민)과 도시지역(도시민)간의 상호보완적 상생 관계를 중요시한다. 어느 한쪽의 일방적이고 맹목적인 지원 또는 일회성 교류가 아닌, 농촌과 도시, 도시와 농촌이 서로 필요로 하는 부분을 상호 보완하는 것에 초점을 둔다. 상호보완적 관계를 형성,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농촌지역(농촌주민)과 도시지역(도시민)간의 신뢰가 매우 중요하기에 상호 간 신뢰를 바탕으로 관계를 맺는 것이 기본이다.

둘째, 일시적이고 단순한 교류가 아닌 지속적이고 심층적 교류를 중요시한다. 기존의 일반적인 농촌체험활동이나 농촌민박처럼 농촌지역 주민들과 특별한 교류가 없는 것은 관계인구 형성과 거리가 멀다. 보다 친밀하고 장기간의 교류활동을 통해서 농촌과 도시 상호 간의 관계를 형성해야 한다. 따라서 관계인구 형성을 위해서는 농촌주민과 도시민간 친밀하게 접촉하고 교류하는 것이 필수 조건이다.

셋째, 관계인구 대상을 확대하고자 한다. 관계인구 대상 확대는 관계인구를 어떠한 목적으로 맺느냐와 직결되어 있다. 농촌지역 내부에서 스스로 풀지 못하는 복잡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소멸위기에 처해 있는 농촌의 다면적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외부 주체와 관계인구로서 연결하는 것이 중요

하다. 또한 대면교류가 아닌 ICT기술 등을 활용한 가상의 공간에서의 정보교류 및 각종 지원활동도 가능하다. 더나가 외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교포들과 관계를 맺는 것도 또 다른 형태의 관계인구가 창출될 수 있다.

넷째, 농촌과 도시의 관계인구 창출의 궁극적 목표는 '사회적 관계 자본(Social Capital)'의 형성에 있다. 앞서 기술하였듯이 농촌주민과 도시주민 간의 관계 형성은 상호보완적이며 상호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계 형성을 통해 기존의 농촌공동체 내 국한된 '사회적 관계 자본'이 아닌 보다 확대된 '사회적 관계 자본' 축적을 목표로 한다. 이렇게 축적된 '사회적 관계 자본'은 농촌사회 활성화에 큰 힘이 된다.

다섯째, 유형별(유형1~유형3) 관계인구 창출 방안을 제시한다. 관계인구의 범위, 성격에 따라 다양한 유형으로 구분이 가능하나, 여기에서는 농촌지역에 체류하는 기간과 관계하는 정도[30]에 따라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유형1은 농촌지역에 장기적, 정기적으로 체류하는 관계인구이다. 유형2는 단~중기적, 비정기적으로 농촌지역에 체류하는 관계인구이며 유형3은 실제 농촌지역으로 방문 또는 체류하지 않는 형태로 관계를 맺는 유형이다. 마지막으로 유형1~3에 속하지 는 않지만 관계인구 창출을 위해 필요한 기반 구축 방안도 제시하고자 한다.

30) 본 연구에서는 관계의 정도를 명확한 시간 단위로 구분하지 않음. 유형을 구분한 기준에 대해서는 본문 27~28페이지 참고

[그림 4-1] 관계인구 창출 및 확대전략의 기본 방향

2. 세부 전략

본 연구에서는 관계인구 창출 및 활용 전략을 관계인구가 농촌지역에서 체류 또는 교류하는 기간, 형태에 따라 몇 가지 유형을 구분하여 유형별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유형1: 충남 도농상생 주말농장 조성 사업

〈표 4-1〉 충남 도농상생 주말농장 조성 사업 개요

구분	내용
정책 목표	유형별(농촌, 어촌, 산촌) 주말농장 조성
정책 대상	20대 이상의 전 국민
공간 범위	충남 내 농지, 유어장, 산림을 포함한 주말농장
추진 주체	충남도 농촌활력과 또는 충남농촌마을지원센터
정책 유형	H/W + S/W

(1) 추진 배경 및 목적

2020년 농촌경제연구원 연구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농업·농촌에 대한 도시민들의 공익적·다원적 인식이 확대되고 귀농·귀촌 의향이 증가 된 것으로 나타났다[31]. 2023년 발표 된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에서는 은퇴 후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이 2022년 기준 약 37.2%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32]. 이외에도 코로나 블루에 따른 우울증, 정서적 치

31) 이명기 외. 2020. 코로나 19 이후 농업·농촌에 대한 도시민의 인식과 수요 변화. 농촌경제연구원.
32) 농림축산식품부. 2023. 2023~2027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유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과 기대가 높아지면서 치유 농업이나 농업 체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농업·농촌에 대한 도시민의 관심이 높아지고는 있으나 실질적으로 도시민들이 손쉽게 주말농장을 체험할 수 있는 기반에는 한계가 있다. 특히, 수도권에 위치한 지자체체가 주체가 되어 관리하는 주말농장의 경우 경쟁률이 매우 치열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수도권과 지리적으로 인접한 충남권에 도농상생형 주말농장 조성하여 도시민과 농촌지역 주민이 향후 상생을 위해 적응 해 나가는 시스템이 필요한 시점이다.

주말농장이란 비농업인이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農地)를 일컫는다. 농지는 헌법 제121조의 경자유전 원칙 실현을 위해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만 소유할 수 있다. 다만, 도시인 등 비농업인이 농지를 주말, 체험영농 등의 목적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세대당 1,000㎡(약300평) 미만 범위 내에서 취득할 수 있도록 2003년 1월부터 농지법이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33]

충청남도는 수도권 및 대도시권과 인접하다는 지리적 이점을 갖고 있으며 농촌, 산촌, 어촌 등 다양한 형태의 주말 농장 조성이 가능한 지형적, 입지적 요건을 갖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농촌형 주말농장, 어촌형 주말바다농장, 산촌형 주말산림농장조성사업을 제안하고자 한다.

(2) 추진 내용

① 농촌형 주말농장

농촌형 주말농장은 지자체 별 유휴 농지 가운데 경치가 좋고 일손이 부족하

33) 시사상식사전(pmg 지식엔진연구소). '주말농장'. 2023년 10월 검색

여 농사를 짓기 어려운 경작지를 대상으로 도시민에게 1년 단위로 임대를 해주는 형태로 조성한다. 도시민이 주말이나 휴일에 와서 소규모로 계절별 채소를 길러보며 농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조성하고 농촌마을과 지역 주민 간에 융화될 수 있는 환경 및 기회를 제공한다. 규모는 1구획당 16~20㎡규모로 분양한다. 신청은 개인, 단체(직장, 어린이집 등) 단위로 받되, 신청 회원수에 따라 적정규모로 배분한다.

본 사업에서 주요한 전략은 주말농장에 참여하는 도시민이 농촌에 스며들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대다수의 주말농장은 농장대로 분리 되어 구획별 농장 임대자가 농업활동 이후 작물만 재배 하여 집으로 귀가 하는 것이 대부분이 이었다. 하지만 충남의 농촌형 주말농장에서는 주말농장과 농촌사회를 연결해야 할 것이다. 농촌형 주말농장과 농촌사회 연결을 통해 향후 주말 농장 참여자가 농촌사회에 융화 되거나 정착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농촌형 주말 농장 참여자와 주말농장이 위치한 마을 주민들은 서로간의 생활문화와 농업활동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기초적인 교육을 할 필요성이 있다. 기초 교육 이후에는 주말농장이 입지하는 곳의 농촌지역 주민과 주말농장 참여자가 교류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농업활동에 대한 서로간의 이해를 돕는다. 그렇게 차츰 관계를 형성하면서 주말농장 참여자는 주말농장과 인접한 곳에서 농사를 짓는 마을 농민들에게 농업에 관한 다양한 지식을 전수 받을 수 있는 있을 것이다. 관계가 견고해지다보면 농촌지역에 일손이 부족할 시에는 주말농장 참여자와 참여자의 지인들이 농촌활동을 돕는 경우도 생겨날 것이다. 도시민과 농촌지역민이 상생하는 주말 농장 조성을 통해 사회적 관계자본이 형성 되는 것이다.

② 어촌형 주말바다농장

어촌형 주말바다농장은 충청남도 내 해안을 끼고 있는 6개 시군(아산시, 당진시, 서산시, 태안군, 보령시, 서천군)을 대상으로 조성 한다. 그간 도시민들이 어촌체험마을에서 소정의 체험비 내고 일회성 어촌체험을 하는 것과 달리 주말바다농장 참여는 향후 귀어귀촌에 관심을 갖고 있는 참여자에게 어촌과 어업을 체험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말바다농장이 조성된 지역에는 마을 어촌계와 협의를 통해 농장 참여자에게 준어촌계원으로서 자격을 1년간 부여한다. 주말바다농장 참여자에게는 지정 유어장 내에서 1년간 일정량의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할 수 있도록 한다. 참여자는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농장별 수산동식물의 포획·채취 방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기초 및 심화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농장별 수산 동식물의 포획·채취 방법은 아래 표와 같다.

〈표 4-2〉 어장별 수산동식물의 포획·채취방법

유어장	유어행위(수산동식물 포획·채취 방법)
해조류 · 패류 · 복합양식장, 정치망어장, 정치성구획어업 구역에 지정된 유어장	- 해당 어장 또는 양식장에 면허되었거나 허가된 어업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
마을어장·협동양식장에 지정된 유어장	- 손 및 낚시, 투망, 쪽대, 호미, 틀이, 집게 등 간단한 도구를 이용한 수산동식물 포획·채취 - 맨몸 또는 수중자가 호흡기를 착용하고 잠수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 - 지인망·건간망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
어류등양식장에 지정된 유어장	- 해당 양식장에 면허된 양식업의 방법으로 수산동 식물을 포획·채취 - 낚시를 이용한 수산동물 포획(가두리 또는 축제식을 이용한 양식업으로 해당 양식장에 허가된 양식대상 어종만 해당한다)

자료: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별표 2] 〈개정 2020. 8. 28.〉 해양수산부

농촌형 주말농장과 같이 어촌형 주말바다농장에서도 어촌 주민과 도시민간 서로의 문화와 생활환경을 이해할 수 있는 교육과 관계 지속을 위한 교류 활동

이 이어져야 한다.

③ 산촌형 주말산림농장

산촌형 주말산림농장은 충청남도 내 산촌으로 지정된 8개 시군(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보령시, 부여군, 아산시, 천안시, 청양군)을 대상으로 조성 한다. 산림기본법 시행령 제 2조에 따른 산촌은 행정구역 면적에 대한 산림면적의 비율이 70% 이상인 지역으로 인구밀도가 전국 읍·면의 평균 이하(106명/㎢)인 특징을 갖는다.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10년에 한 번씩 실시되는 산촌기초조사에 따르면 충남에는 8개 시군 19개 읍·면이 산촌에 해당한다.

앞에서 서술한 두 유형과 같게 산촌형 주말산림농장도 향후 귀산촌에 관심을 갖고 있는 참여자에게 산촌생활과 임업을 체험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말산림농장이 조성된 지역에 구획을 지정하고 도시민에게 1년 단위로 임대를 해주는 형태로 조성한다. 주말농장 참여자가 주말이나 휴일에 와서 산촌생활을 기반시설을 조성하고 초보 임산물 생산자인 도시민 편의를 야생동물 침입 방지시설, 진입로, 수분공급을 위한 관수 등의 시설을 조성한다. 주말산림농장 참여자가 재배 가능한 임산물은 아래 표와 같다.

〈표 4-3〉 주말산림 농장 재배 가능 임산물 종류

구분	임산물
과실류	밤, 감(떫은감), 잣, 호두, 대추, 은행, 도토리, 개암, 머루, 다래, 복분자딸기, 산딸기, 석류, 돌배
버섯류	표고, 송이, 목이, 석이, 능이, 싸리, 꽃송이버섯, 복령
산나물류	더덕, 고사리, 도라지, 취나물, 참나물, 두릅, 원추리, 산마늘, 고려엉겅퀴(곤드레), 고비, 어수리, 눈개승마(삼나물)
약초류	삼지구엽초, 삽주, 참쑥, 시호, 작약, 천마, 산양삼, 결명자, 구절초, 약모밀, 당귀, 천궁, 하수오, 감초, 독활, 잔대, 백운풀, 마

구분	임산물
수목부산물류	수액(樹液), 나뭇잎, 나뭇가지, 나무껍질, 나무뿌리, 나무순 등 나무(대나무류를 포함한다)에서 나오는 모든 부산물
약용류	오미자, 오갈피나무, 산수유나무, 구기자나무, 두충나무, 헛개나무, 음나무, 참죽나무, 산초나무, 초피나무, 옻나무, 골담초, 산겨릅나무, 산사나무, 느릅나무, 황칠나무, 꾸지뽕나무, 마가목, 화살나무, 목단
관상산림식물류	야생화, 자생란, 조경수, 분재, 잔디, 이끼류

자료: 산림청(https://www.forest.go.kr/)

이와 더불어 산촌마을 지역과 참여 도시민이 교류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산촌의 생활문화에 대해 도시민이 이해 할 수 있고, 산촌 지역주민이 도시민 참여자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준비를 돕는다. 농촌형 주말농장과 같이 어촌형 주말바다농장에서도 어촌 주민과 도시민간 서로의 문화와 생활환경을 이해할 수 있는 교육과 관계 지속을 위한 교류 활동이 이어져야 한다.

(3) 추진 주체 및 체계

본 사업은 충청남도 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특히 기존에 추진되어 오던 주말농장 사업과는 차별화를 두어 각 시군별 주말 농장을 특성화하기 위한 세부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타 시도와 차별화 된 전략을 마련하여 수도권 및 대도시권 관계 인구를 유입해야 할 것이다.

주말농장 유형(농촌, 산촌, 어촌)별 권역을 설정 하되 각 시군에서 자율적으로 주말농장 사업대상지를 공모하도록 하고 주말농장을 지구화하여 주말농장을 일구고자 하는 수요자에게 다양한 정보 및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한다.

특히 주말농장 참여자로 선정 된 도시민을 대상으로 단계별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여 원활하게 지역사회 내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다. 교육은 기초, 심화, 실전 단계로 구분하여 주말농장 경영을 위한 농촌, 어촌, 산촌 관련 관계 법령부터 계절별 재배가 유리한 다양한 농법 기초 교육을 실시해 주말농장을

일구는 즐거움과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돕는다. 교육은 시·군내 농업기술 센터 및 귀농귀촌센터, 충남어촌특화지원센터, 농촌진흥원, 임업진흥원, 산림조합 등의 유관기관과 협조를 통해 농장별 유형에 따른 맞춤형 교육 및 관련 사업을 실시하도록 한다.

또한 도시민이 참여하고 있는 주말농장이 소재 한 농산어촌 마을과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향후 귀농·귀촌이 가능할 수 있도록 커뮤니티 활동도 적극 지원하도록 한다.

(4) 기대 효과

대전·세종 등 대도시권에 인접한 충남에 지역에 농촌, 어촌, 산촌 등 유형별 주말농장을 조성하여 최근 증가하고 있는 주말농장 수요 유입을 통한 관계인구 유입·창출이 가능할 것이다. 더불어 기존에 주말 농장은 단순히 농업에 기반을 둔 농작물 생산이라는 인식을 뛰어 넘어 충남의 바다와 산림 지역을 활용한 주말 농장을 조성하여 농산어촌의 주요 자원을 다원적으로 활용과 가치 창출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충남 도농상생 주말농장 조성을 통해 초보 농산어업 생산자로 역할을 하게 될 도시민과 농촌 지역 주민간의 지속적인 교류시스템 구축을 통해 도시민이 농촌지역과 관계를 맺고 향후 상호보완적인 상생관계 형성을 위한 매개사업이 될 것이다.

〈유사 사례: 주말체류형 농장〉

주말체류형 농장 전경

농촌체험마을과 연계(4계절 놀거리 제공)

[그림 4-2] 주말체류형 농장 예시(농촌형)

2) 유형1~2: 충남 체류형 Weekend-House

〈표 4-4〉 충남 체류형 Weekend-House 개요

구분	내용
정책 목표	체류형 Weekend-House 단지 15개 이상 조성
정책 대상	전국 도시민
공간 범위	마을~읍면 중심지
추진 주체	충남도 또는 충남농촌마을지원센터
정책 유형	H/W + S/W

(1) 추진 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는 2000년대 초반부터 다양한 도농교류사업(녹색농촌마을, 정보화마을, 아름마을, 농촌전통테마마을, 산촌생태마을, 어촌체험마을 등)이 시작되어 도시민들이 농산어촌에서 체험과 체류를 할 수 있는 공간과 프로그램이 개발되었다. 하지만 주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농업 체험, 만들기 체험 등 단시간에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에 국한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기존의 도농교류사업처럼 농촌지역에 단시간 체류하는 것이 아닌 장기간 체류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여 관계인구를 확보할 방안 마련으로 농촌지역에 장기간 체류하면서 지역주민들과 교류하는 “충남 체류형 Weekend-House” 사업을 제안한다. 체류형 Weekend-House 일반적으로 도시 근교에 조성을 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으나, 자연경관이 좋은 호수나 산속에 오두막 형태로 주말 동안 도시민들이 머무르는 세컨하우스의 개념도 포함한다. 이러한 주말 체류형 주택은 짧게는 몇 개월에서 길게는 수년 동안 그 지역과 관계를 맺으며 지속적인 방문을 유발할 수 있으며, 최종적으로는 관계인구 창출 및 확대를 목적으로 한다.

(2) 추진 내용 및 체계

체류형 Weekend-House 사업은 도시민들에게 농사 질 수 있는 농지만 임대 해주는 일반적인 주말농장이 아닌, 개별 숙박시설까지 포함해서 임대 해주는 전용 농원을 조성하는 것이다. 또한 체류자들 간 공동으로 사용하는 교류공간, 창고 등 공용 공간도 함께 설치한다. 한편 체류공간을 조성하는 것 외에 지역주민들과 교류 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원한다. 예를 들면, 상호 지식 공유 프로그램, 농산물 수확제, 꾸러미 사업 등이다.

본 사업은 충청남도 차원에서 추진하기보다는 시군 또는 읍면 단위에서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그 이유는 각 시군 또는 읍면의 지리적, 지형적, 기후적 특성 등을 살린다면 그 지역만의 차별화가 가능한 유형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정원형 Weekend-House', '소규모 스마트 농업형 Weekend-House', '휴양형 Weekend-House', '자연농법형 Weekend-House' 등이다. 이러한 점이 기존의 일반적 전원주택단지 조성과는 다른 접근이라 할 수 있다.

〈표 4-5〉 Weekend-House의 유형별 특징

구분	특징
정원형	- 텃밭이 아닌 개인 정원을 가꾸는 형태 - 중장년층 대상
소규모 스마트 농업형	- 소규모 스마트팜, 정밀농업을 실현하는 형태 - 귀농에 관심이 있는 층 대상
휴양형	- 건강, 치료를 위해 심신을 휴양하는 형태 - 중장년층 대상
자연농법형	- 유기농, 노지농업을 실현하는 형태 - 귀농 및 환경에 관심 있는 층 대상

체류형 Weekend-House의 입지는 새롭게 조성하는 것 보다 이미 조성된 농촌체험마을 공간 또는 폐교 공간 가운데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거나 거의 가동되지 않는 곳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유사 사례: 유럽의 체류형 주말 주택〉

〈표 4-6〉 유럽의 체류형 주말 주택

국가	명칭	내용
독일	Klein Garten	농막허용면적 20m² 200~300m²의 구획으로 나눠짐 축산은 허용되지 않고 화훼, 과일, 채소를 재배할 수 있음
노르웨이	히떼(hytte)	일상의 문명에서 벗어나 원시와 가까운 상태의 자연과 소통하는 별장
핀란드	뫼끼(mokki)	핀란드 인구 5백만에 뫼끼 50만개로 추정(2~3가구당 1개소 보유) 핀란드인의 삶에서 빠질 수 없는 곳으로 휴일을 즐기는 장소이다.
러시아	다차(dacha)	러시아인들의 여름 별장으로 도시의 집 외에 시골에 따로 집을 가지는 의미에서는 별장이지만 좁고, 난방도 안 되기 때문에 농막에 가까운 간이 별장과 텃밭으로 주말이나 휴양철에 휴식을 즐기는 곳이다.
덴마크	할당정원 (allotment garden)	햇볕을 맞으며 식물을 가꾸는 시간은 도시인의 정서를 치유하는 돈 안드는 복지정책

덴마크 할당 정원

독일 크라인가르텐

러시아 다차

[그림 4-3] 유럽의 체류형 주말 주택

(3) 기대 효과

도시민들이 녹색 환경의 자연 속에서 주말을 지낼 수 있다는 것에서는 도시를 떠나 타 지역(농촌)과 지속적인 관계를 갖는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주말 또는 휴가철에 체류형 주말주택에서 머무르면서 지역 및 지역주민과 교류할

수 있다면 농촌지역 관계인구를 효과적으로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최근 농지에 무허가 농막이 난립하여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현실 속에서 체류형 주말주택은 이러한 수요를 법의 테두리 내로 흡수 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이며, 지역에 관계인구를 늘릴 수 있는 중요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농촌지역 내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유휴시설과 공간을 활용하여 지역사회 활성화에 기여할 수 기회를 마련할 수 있다.

〈유사 사례: 일본 체재형 시민농원, 전원주택 단지〉

효고현 다가쵸 체재현 시민농원

효고현 기비고원 전원도시

〈유사 사례: 양평군 수미마을 체재형 작은텃밭조성사업〉

- 위치: 경기도 양평군 단월면 목장길 92(봉상리 539번지)
- 건물: 20㎡, 복층구조, 주차 가능
  · 1층: 거실 및 침실, 화장실, 싱크대, 세면대
  · 2층: 침식
- 내부시설: 인터넷, 와이파이 공유기, TV, 에어컨, 전기인덕션, 냉장고
- 텃밭: 약 30평
- 임대료(건물 1동과 텃밭)
- 예치금(50만원), 임대료: 12개월(350만원), 9개월(300만원), 6개월(200만원), 3개월(120만원), 1개월(50만원)
- 관리금: 전기, 상하수도, 정화조, 인터넷 등 관리비 매달 정산

체재형 주말농장 펜션

[그림 4-4] 체류형 Weekend-House 사례

3) 유형1~2: 충남 농촌Enjoy-Study(유학;遊學)[34] 사업

〈표 4-7〉 충남 농촌Enjoy-Study(유학;遊學) 사업 개요

구분	내용
정책 목표	전국 중장년층 충남 농촌지역 유입 기회 제공
정책 대상	전국 도시민(중장년층)
공간 범위	
추진 주체	충남 지역 소재 대학 또는 충남농촌마을지원센터
정책 유형	S/W

(1) 추진 배경 및 목적

최근 1960년~1970년대에 출생한 세대를 '50^{+} 신중년 세대'라 일컬어지고 있다. 이 세대는 새로운 삶의 전환 시기이며 제2의 직업을 찾고자 하는 욕구가 강한 속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농촌을 새로운 삶의 전환 공간으로 인식하는 경향도 동시에 증가하고 있으며, 다양한 사람들이 어울리는 비공식적 공공생활의 장소로서도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신중년 세대들이 도시지역에서 축적한 경험, 지식 및 인적 네트워크 등을 농촌지역에서 발휘하게끔 유도하는 것도 관계인구 창출에 주요한 포인트이다.

'충남 농촌 Enjoy-Study' 사업은 도시의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농촌에서의 새로운 삶이 가능하도록 유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지방대학의 학생 수 감소 및 방학 기간 귀향 등으로 인해 지방대학이 소재한 지역의 경제와 사회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본 사업을 통해 충남 지역 소재 대학과 해당 지역 사회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도 목적이라 할 수 있다.

34) 유학(遊學)의 사전적 의미는 자기 고향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공부하는 것임. 하지만 여기에서는 농촌 지역의 매력을 만끽하고 즐기면서 공부한다는 뜻을 지님

(2) 추진 내용 및 체계

본 사업의 핵심 주체는 지역대학이다. 지역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적 인적 역량과 대학 내의 기숙사, 강의실, 세미나실 등 각종 시설을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 지역대학은 대학의 특성에 맞게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한 독특한 '충남 농촌 Enjoy-Study' 커리큘럼을 구상하고, '충남 농촌 Enjoy-Study' 을 운영하는 동안 학교 내(또는 지역 내)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해당 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준비한다. 커리큘럼은 필수 과목으로 해당 지역 알아보기, 농촌에 대한 이해, 농업농촌이 가지는 공익적 기능 등을 포함하고, 선택 과목은 향토요리 교실, 지역 문화재 탐방, 농업 입문하기, 지역 고유의 생활기술(Life-Tech), 적정기술 등 수강생이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과목을 설정한다. 커리큘럼 설정 시 해당 대학의 특성을 살린 과목 설정도 중요하다. 예를 들어 농업 부문, 예술 부문, 문화 부문, 농촌 창업 부문 및 외국어 부문 등 해당 대학의 특성을 살려 선택할 수 있다.

해당 자치단체에서는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각종 살아보기 프로그램을 제공하거나 지역 내 관광지를 둘러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또한 최근 개소한 '충남라이즈센터'와 연계하여 자치단체와 지방대학이 협업하여 본 사업을 구상하는 방안도 충분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본 사업 추진은 기본적으로 지역대학이 주체가 되나, 관할 행정기관의 적극적 참여와 협조가 중요하다. 지역대학에서는 커리큘럼 설계, 수강생 모집, 사전 설명회, 수료식 등의 역할을 하고 자치단체에서는 사업 홍보, 수강생 안전 지원, 농특산물 제공 등을 지원한다.

'충남 농촌 Enjoy-Study' 사업의 추진 절차는 모집 공고 ⇒ 사전 설명회 ⇒ 수강생 접수 ⇒ 수강생 심사 및 선정 ⇒ 교육 실시 ⇒ 수료증 수여 순으로 진행

한다. 수료한 수강생에게는 해당 지역의 명예주민증을 발급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게끔 유도할 수 있는 방안 마련도 필요하다.

(3) 기대 효과

본 사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는 충남 농촌지역을 도시의 중장년층에게 새로운 삶의 터전으로서 유도하는 유인책이 될 수 있다는 점과 침체된 지방대학에 활기를 불어넣어 줄 수 있다는 점이다.

4) 유형3: “충남&경기 도농상생 한마당의 날”

〈표 4-8〉 “충남&경기 도농상생 한마당” 개요

구분	내용
정책 목표	베이벨리 메가시티 지역 간 관계인구 창출
정책 대상	충남&경기 지역민
공간 범위	-
추진 주체	충청남도, 경기도
정책 유형	S/W

(1) 추진 배경 및 목적

충청남도 농촌지역 관계인구 창출을 위해서는 인구 과밀지역인 수도권 지역 간 상생 협력이 중요하다. 특히 그동안 충청남도와 경기도는 ‘Bey Valley 메가시티’ 구축을 위해 다양한 연계협력 사업을 발굴, 추진을 위한 노력을 해 오고 있다. 이 시점에서 양 지역주민 간의 상생 협력 또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동안 쌓아 온 양 지역 간 신뢰와 네트워크를 통해 공공기관이 마중물 역할을 하고 이를 통해 민간차원의 교류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충남&경기 도농상생 한마당 날’ 사업은 양 지역 주민간의 상생·협력으로 지역 간의 인적·

물적·정보 교류를 증대시키고 이를 통해 충청남도의 관계인구 창출과 확대를 도모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추진 내용 및 체계

‘충남&경기 도농상생 한마당 날’을 13일[35]로 제정하여 충청남도와 경기도 주민 간의 상생 협력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발굴·추진한다. 이를 위해 충청남도는 ‘(가칭)충남&경기 도농상생추진단(이하 도농상생추진단)’을 조직하여 양 지역 간의 교류협력에 대한 핵심 역할을 한다.

‘충남&경기 도농상생 한마당 날’에는 양 도지사 주관의 상생 토크쇼, 충남 농촌마을과 경기 도시지역과의 상생 MOU, 관계인구 심포지엄, 관계인구 우수사례 포상제, 고향사랑기부제 협력 모델 구축 및 홍보, 지역축제 및 농특산물 교류 활성화, 합동 향우회 등을 실시한다. 매년 3월 13일은 ‘큰 한마당’으로 대규모 행사로 추진하고 그 외는 분기별로 주제를 정해 소규모로 추진한다.

본 사업의 주관은 충청남도 농촌활력과에서 추진하되 지역상생을 위한 다양한 사업의 추진을 위해 TF팀을 구성하는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재원은 인구감소지역의 지역소멸대응기금 또는 고향사랑기부금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표 4-9〉 충남&경기 도농상생 한마당 날 행사 예시

구분	내용
1분기(3월)	양 도지사 주관 도농상생 토크쇼, 충남-경기 도농 MOU, 관계인구 국제 심포지엄 등
2분기(6월)	충남 농촌체험마을 순회 탐방, 충남 농촌마을 탐방 프로그램
3분기(9월)	충남&경기 농특산물 홍보전, 충남 귀농귀촌 홍보전
4분기(12월)	충남&경기 합동 향우회, 관계인구 우수사례 경진대회

35) 2023년 3월 13일 충청남도와 경기도는 베이벨리 메가시티 건설을 위한 협약을 맺은 날임. 이 날을 기념하여 ‘충남&경기 도농상생 한마당 날’을 13일로 하는 것을 제안함

(4) 기대 효과

충청남도와 경기도 간 도농 교류협력사업 추진은 범국민적인 관심을 유발하고 관계인구 창출의 성공적인 사례와 모델을 만들어 낼 수 있다. 또한 관계인구 증가를 위한 도민들의 인식을 제고하고 관계인구 증가와 관련된 이해관계자들 간의 정보교환의 장과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관계인구 증가와 관련 사업 추진에 대한 추진동력을 확보하고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

〈사례: 전북-수원시 관계인구 협력 사례〉

[그림 4-5] 시-도간 관계인구 협력 사례

5) 유형3: “충남 관계 서포터즈”

〈표 4-10〉 “충남 관계 서포터즈” 개요

구분	내용
정책 목표	연간 500명 이상 서포터즈 배출
정책 대상	전국 도시지역민
공간 범위	마을~읍면 중심지
추진 주체	충남도 농촌활력과 또는 충남농촌마을지원센터
정책 유형	S/W

(1) 추진 배경 및 목적

저출산과 고령화, 젊은층의 인구 유출로 충남 농촌지역의 인구소멸 위기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 발전에 필요한 새로운 동력을 확보하고 지원해 주는 응원군을 양성할 필요가 있다. '충남 관계 서포터즈' 사업을 통해 충남도의 농특산물 판매를 촉진하고 지역으로 관광객 유치를 촉진하는 등 충남 관계인구 창출을 도모하고자 한다. 이뿐만 아니라 충남도의 든든한 홍보도우미로 활용하고 지역 농특산물이나 관광홍보 등에도 활용하고자 한다.

(2) 추진 내용 및 체계

충남에서 관계인구 증가를 위해 충남 외 거주자들을 대상으로 서포터즈를 모집하거나 현재 시행중인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충청남도에 기부한 자들에게 자동적으로 서포터즈 자격을 부여한다. 서포터즈에게는 지역 농특산물과 관광지 입장료 등에 대한 할인 혜택을 제공하거나 이들이 충남의 홍보도우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하면서 충청남도 관계인구 창출로 이어지도록 한다.

충남도는 본 사업 추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 범국민적인 관심을 유발하고 참여할 수 있는 홈페이지와 모바일 시스템을 개발해야 한다. 또한 판매장과 관광지, 숙박시설, 식음료시설 등 충남도와 협약시설을 발굴하여 할인 혜택 제공 등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사업은 충남도 농촌활력과에서 주도하고 인구정책, 관광, 유통, 농식품, 농어촌마을, 농촌융복합산업 등 여러 실국과의 협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충남 관계 서포터즈 운영을 위한 TF팀을 신설하고 충남관광재단, 충남마을만들기지원센터, 충남농촌융복합산업센터 등이 참여할 수 있다.

또한 충남관광협회 등이 참여하여 숙박, 식당, 관광지 등의 협약체결로 지역 내 관광객 유치를 위한 다양한 할인 혜택 등이 발굴되어야 한다.

〈표 4-11〉 충남 관계 서포터즈 개요

구분	내용
가입 대상	충남 외에 거주하며 충남과 관계를 맺는 사람 누구나
주요 역할	충청남도내 생산물품 판매 촉진, 관광홍보, 방문객 유치 등
가입 혜택	가입자에게 모바일 충남 관계맺기 도민증 발급 농수축산물 구매 및 숙박, 관광지 입장료 할인 혜택 제공

(3) 기대 효과

충남을 응원하고 실제 지역상품 구매와 방문으로 이어지는 잠재적 인구를 선점하고 이를 통해 물적, 인적교류를 활성화하여 관계인구 증가로 발전할 수 있다. 관계인구 증가를 통해 충남에 대한 인지도와 애착심이 증대되고 충남으로의 잠재 관광객 확보 및 방문객 증대로 이어질 수 있다. 충남 각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고향사랑기부제와 연계하여 추진한다면 고향사랑기부제 참여자를 증가시키고 국민적인 관심을 유발할 수 있는 정책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사례: 전라남도 사례〉

전남사랑 서포터즈 사례

전남사랑도민증 발급 사례

[그림 4-6] 전남사랑 서포터즈 사례

6) 기반 구축: 충남 도농상생 관계 플랫폼 구축

〈표 4-12〉 충남 도농상생 관계 플랫폼 구축 개요

구분	내용
정책 목표	충남 농촌지역과 전국 도시지역과의 관계 형성 및 유지
정책 대상	충남 농촌지자체
공간 범위	충청남도 전역
추진 주체	충청남도 농업정책과, 충남마을만들기지원센터
정책 유형	SW

(1) 추진 배경 및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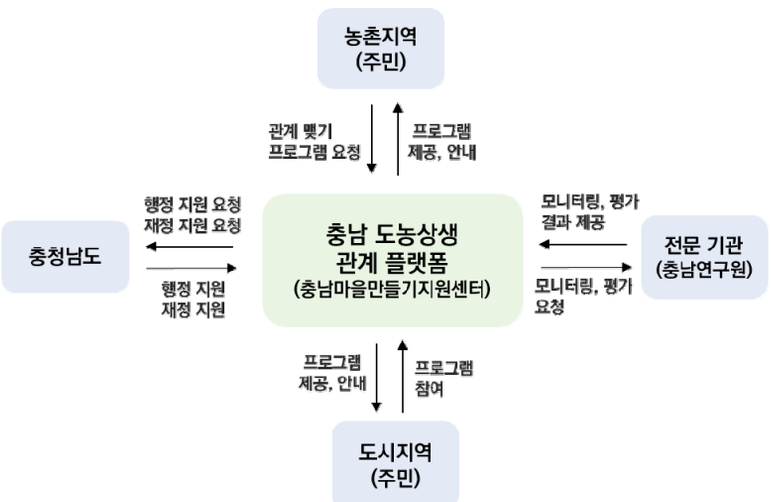
관계인구의 창출과 확대를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는 총괄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플랫폼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즉, 농촌지역(주민)과 도시지역(도시민) 간 연결고리 역할을 하며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게끔 해주는 시스템(사람, 제도, 재원 등이 서로 원활하게 연결되는 틀)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러한 시스템을 여기서는 '충남 도농상생 관계인구 플랫폼 구축 사업(이하 '플랫폼 구축 사업')' 이라 한다. '플랫폼 구축 사업' 은 충청남도 전체를 통합해서 하나의

플랫폼을 구축할 수도 있고 기초 자치단체 단위에서 개별적으로 특성을 살려 구축할 수도 있다. 하지만 여기서는 충청남도 주도로 시행하는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추진 내용 및 체계

'플랫폼 구축 사업' 핵심 내용은 관계인구 창출 및 확대를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관련 주체간의 긴밀한 연결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다. 또한 농촌지역(농촌주민)과 도시지역(도시민)간의 상호 관계를 맺기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구상, 시행하는 것이다. 사업의 예로서는 충청남도 워케이션 개발 및 시행, 고향사랑 기부제 운영·홍보 및 관계인구 관련 사업 시행 등이 있다. '플랫폼 구축 사업' 의 실제 운영은 충청남도 관련 실과에서에서 직접 운영할 수도 있으나, 충남마을만들기지원센터 또는 관련 민간조직(단체)에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플랫폼 구축 사업'을 운영하는 조직(단체)에서는 관계인구 창출을 위한 사업 및 프로그램을 개발, 시행 등 총괄 관리하며 충청남도는 플랫폼 운영 및 관계인구 관련 사업비에 대한 행정, 재정 지원을 한다. 충남연구원에서는 플랫폼 운영에 대한 모니터링 및 평가를 실시한다. 그리고 충청남도 농촌지역(주민) 및 도시지역(주민)은 플랫폼에서 운영하는 각종 프로그램에 참여, 활동하는 구조이다. 아래의 그림 4-3은 '충남 도농상생 관계 플랫폼'의 기본 구상도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4-7] 충남 도농상생 관계 플랫폼 구축 체계도

(3) 기대 효과

도농상생 플랫폼은 단순한 도시농촌 교류에서 벗어나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관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도, 지원할 수 있다. 또한 충청남도의 관계인구는 물론 생활인구 창출 및 확대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제 5 장

결론

1. 요약
2. 정책 제언

1. 요약

최근 국내외적으로 농촌인구 문제 해결 방안으로 ‘관계인구’에 대해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며 관련 실천 사례도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 지속되고 있는 고령화, 과소화로 인해 농촌지역 주민만으로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것에는 분명 한계가 있으며, 농촌지역의 건전한 발전과 유지를 위해서는 외부로부터의 인적 공급이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여 쇠퇴·소멸 위기에 놓여 있는 농촌지역 활성화 및 재생을 위해 필요한 인적자원을 관계인구라는 관점에서 접근하였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다.

제1장 서론 부분에서는 연구의 배경과 목적,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론과 연구 틀을 제시하였다.

제2장 이론 고찰 부분에서는 관계인구는 물론 생활인구, 교류인구, 체류인구 등 관련 용어를 비교 정리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관계인구를 생활인구, 교류인구 개념에 일부 포함되지 않는 범위에 속하면서 농촌지역에 주민등록을 하지 않은 형태의 인구로 조작적 정의하였다.

제3장 관계인구 수요 및 사례 분석 부분에서는 농촌 및 도시지역 주민 대상 설문조사, 전문가 자문을 시행하였다. 그 결과 ① 인구문제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방안으로 관계인구의 필요성이 증대되었다는 점, ② 도농상생 매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점, ③ 관계인구 창출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관계인구가 되는 계층(속성)을 명확하게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 ④ 농촌지역 내부의 누구와 관계를 맺느냐가 매우 중요한 요소라는 점을 도출하였다.

한편 국내외 관계인구 창출 우수 사례 분석을 통해서 얻은 시사점은 ① 도시의 청년층을 대상으로 농촌지역과 관계를 맺기 위해 적극적, 창의적 방안을 제시하고 현장에서 그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다는 점, ② 최근 도시민의 농촌, 농업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농촌지역 살아보기, 주말농장 등 농촌·농업과 접할 기회를 만들고 있다는 점, ③ 앞으로 농촌지역을 짊어질 인력 양성에 노력하고 있다는 점, ④ 도시지역의 다양한 속성을 지닌 주체들과의 관계인구 형성에 노력(기업, 대학, 청소년, 중장년층 등)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점을 도출하였다.

제4장 관계인구 창출 및 확대 전략 부분에서는 ① 상호보완적 상생 관계, ② 지속적·심층적 교류, ③ 관계인구 대상 확대, ④ 사회적 관계자본 형성, ⑤ 유형별 관계인구 창출이라는 5가지 기본 방향을 제시하였다. 또한 관계인구 창출 및 확대 전략(안)으로 충남 도농상생 주말농장 조성 사업, 충남 체류형 Weekend-House 조성 사업, 충남 농촌 Enjoy-Study 사업, 충남&경기 도농상생 한마당의 날, 충남 관계 서포터즈, 충남 도농상생 관계 플랫폼 구축을 제시하였다.

제5장 결론 부분에서는 연구 내용을 요약하고 충청남도 및 기초자치단체가 관계인구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정책 제언을 몇 가지 제시하였다.

2. 정책 제언

본 연구에서 제안한 관계인구 창출 및 활용을 위한 방안이 충청남도 또는 충남도 기초자치단체가 정책화(사업화)를 위한 기획 단계에서 고려해야 할 점은 아래와 같다.

첫째,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소멸 위기 처해 있는 자치단체의 인구정책 방향을 인구의 양적 증가 전략과 함께 본 연구에서 강조하고 있는 인구의 질적 증가 즉 관계인구 창출 전략을 이원화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그 이유는 절대 인구를 늘리는 것은 국가 전체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볼 때 결코 쉽지 않다는 점이다. 한편 관계인구가 지역 사회의 다양한 측면에서 활성화를 시킬 수 있다는 사실이 여러 사례에서 실증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관계인구 창출의 의미는 단순히 인구문제를 해결하는 것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도시민들에게 농촌·농업에 대한 중요한 가치를 인식시켜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둘째, 관계인구 창출 방안은 여러 측면에서 다양한 접근이 가능하다. 따라서 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는 특성과 실정을 고려하여 독특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른 지역의 성공사례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자치단체의 형편에 맞게 실천할 수 있고 실효성이 담보될 수 있는 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 예를 들어 본 연구에서 제시한 도농상생 주말농장 조성사업의 경우 지역의 특성에 따라 농촌형, 어촌형, 산촌형을 선택할 수 있으며, 충남 체류형 Weekend-House 사업도 지역의 실정에 맞게 정원형, 소규모 스마트 농업형, 휴양형, 자연농법형

가운데 선택할 수 있다.

셋째, 충청남도 민선 8기 핵심 정책 가운데 하나인 '충남&경기 Bey Valley 메카시티 구축'에 양 지역 주민 간의 인적교류 사업을 포함할 것을 적극적으로 제안한다. 충청남도와 경기도가 다양한 연계협력 사업을 발굴, 추진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양 지역 주민 간의 교류 협력은 매우 의미가 크다고 본다. 충남의 농촌지역과 경기도의 도시지역과의 인적 교류가 활성화된다면 관계인구 창출 및 확대에도 분명 큰 역할을 할 것이다.

넷째, 관계인구 창출 및 확대를 위한 재원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고향사랑기부제에서 확보한 기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관계인구 창출을 통해 소멸 위기에 처해 있는 고향(농촌)을 지키고 활성화하는 것이 고향사랑기부제의 본연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고향사랑기부제의 효시인 일본의 경우에도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확보한 재원으로 교류인구 창출, 관광인구 창출, 시민활동 지원 등 관계인구와 관련된 분야에 많이 활용되고 있다.

참고문헌

김광선 외. 2022. 2022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정책 우수사례집.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병진, 민현정. 2022. 새로운 인구개념의 도입을 통한 지역활성화 제안 관계인구와 생활인구 관점에서. 한국산업경제학회

농림축산식품부. 2023. 2023~2027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농림축산식품부. 2022.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정책 우수사례집

다나카 데루미. 윤정구 외 옮김. 2021. 인구의 진화. 더가능연구소.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2021), 농어촌 정책의 새로운 방향과 과제

류영진. 2020. “일본의 관계인구 개념의 등장과 의미, 그리고 빈판적 검토”. 지역사회학. 21(1): 5-30.

류연수. 2020. 경북형 클라이가르텐 조성 기본방향, 대구경북연구원

박진욱·유학열·오형은(2021) “우리나라 농촌의 현황과 농촌 활력”, 대한민국 2030 미래농업기술전망

서울시. 2023 서울농장 농촌힐링 워케이션 소개서

성주인 외. 2021. 농산어촌 관계인구 현황과 의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성주인 외. 2022. 균형발전을 위한 농산어촌 관계인구 활용방안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손혜미 외. 2009. 복수 거주의 개념에서 살펴본 체재형 주말농장 클라인가르텐의 실태와 과제. 한국주거학회.

송미령 외. 2021. 농산어촌 마을 패널조사사업(2/10차년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안소현 외. 2022. 체류인구를 활용한 지역유형별 대응전략 연구. 국토연구원.
양진홍 외. 2021. 수도권의 인구분산과 지역활성화를 위한 다지역-순환거주 전략 연구. 국토연구원.
유학열 외. 2022. 지방소멸위기에 대응한 충남 농어촌 과소지역 활성화 전략. 충남연구원.
유학열. 2019. 국외연수 결과보고서. 충남연구원 내부자료.
유학열. 2022. 지방소멸위기에 대응한 충남 농어촌 과소지역 활성화 전략 - 사람·공간·공동체를 중심으로, 충남연구원
이명기 외. 2020. 코로나 19 이후 농업·농촌에 대한 도시민의 인식과 수요 변화. 농촌경제연구원.
이소영 외. 2021. 작지만 강한 연결-관계인구를 활용한 인구유입.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이소영. 2021. 지방소멸대응을 위한 관계인구 활용전략. 한국징방행정연구원.
정수경. 2022. 인구감소에 대응하는 일본의 관계인구 정책 동향. 한국지역개발학회
장주연, 김주미, 박소희. 2022. 산촌 관계인구 개념과 확대방안. 산림정책이슈 제 159호
조승국, 임재빈. 2022. 비수도권 지역의 관계인구 네트워크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개발학회
조원지 외. 2022. 전북 농촌 활성화를 위한 관계인구 활용 방안. 전북연구원.
조원지 외. 2022. 전라북도 농촌 활성화를 위한 관계인구의 개념과 정책과제. 이슈브리핑 271호
조원지 외, 2023, 농촌 활성화를 위한 관계인구 활용 방안. 한국주민자치학회
차미숙. 2021. 지역활력 증진과 관계인구 활용. 국토연구원

하혜영, 류영아. 2022. 새로운 인구개념인 생활인구의 의미와 향후 과제.
한주성. 2019. 농업교육과 체험에 의한 관계인구의 지역활동 - 서울시와 지방과의 교류를 중심으로 -. 대한지리학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21. 지방소멸대응을 위한 관계인구 활용전략.
한국관광공사. 2022. 2022 한국관광데이터랩과 함께하는 지역 맞춤형 관광컨설팅
田中輝美. 2017. 関係人口をつくる. 木楽舎.
大西隆. 2011. 集落再生. きょ小田切徳美. 2019. 関係ツ人口と国土形成. 土地総合研究
千本直男. 2019. 潜在型の関係人口化手法における空き家活用の可能性に関する調査研究. 市政研究センター
前嶋了二. 2019. 関係人口を活用した人口減少自治体の観光政策に関する考察. 九州大学
Kuwabara Yoshiki. 2016.「地域サポート人材事業に関する研究の動向と展望」
Tsukamoto Takayuki. 2011.「地域外部人材誘致配置施策の展開に関する報告」うせい
강원도민일보. 2019. [창업 톡톡 스토리] 47.강릉 파도살롱, 2019.09.02. 보도자료.
경북일보. 2021. 문경시, '경북형 작은정원' 조성 공모사업 최종 선정. 2021.04.13. 보도자료.
대구·경북뉴스. 2023. 가야산그리네 백운마을, 경북형작은정원 조성사업 추진 박차. 2023.04.21. 보도자료
오마이뉴스. 2021. 자립하려는 도시청년들, 이마을로 오세요, 21.01.22. 보도자료

프레시안, 마을 조상들의 철학을 닮은 유기농쌀 토고미로 20년째 마을자치를 운영하는 마을이 있다, 2020.10.03.
KOSIS 국가통계포털(https://kosis.kr)
강릉살자 공식홈페이지(http://liveingangneung.kr)
더웨이브컴퍼니 공식홈페이지(http://thewavecompany.co.kr/padosalon)
경상북도 홈페이지(www.gb.go.kr)
공공데이터포털(https://www.data.go.kr/)
더웨이브컴퍼니 공식홈페이지(http://thewavecompany.co.kr/padosalon)
별무리학교 홈페이지(www.bmrscchool.met)
세화리 마을 강의자료(2023)
야치요 시민농원 홈페이지(https://www.town.ibaraki-yachiyo.lg.jp/)
산림청(https://www.forest.go.kr/)
서울농장 공식홈페이지(https://sangsaeng.seoul.go.k)
인천뉴스 2023년 5월 25일 자
토고미 마을 홈페이지(https://tour.invil.com)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공식블로그(https://blog.naver.com/kreipr)

부 록

부록 1

[설문조사표]

충남 농촌지역 관계인구 실태 및 정책수요 파악 설문조사

충청남도 출연기관인 충남연구원에서는 2023년 전략연구로 “충남 농촌지역 관계인구 형성 및 확대 전략 연구” 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관계인구 실태 및 정책 수요조사하고 있습니다. 바쁘시더라도 잠시 시간을 내시어 아래의 질문에 답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답해주신 조사 결과는 충남 농촌지역 관계인구 형성 및 확대를 위한 새로운 정책 구상에 유용한 자료로 쓰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문의처: 충남연구원 지역도시문화연구실 유학열 선임연구위원 (041-840-1201)
충남연구원 경제산업연구실 조소진 연구원 (041-840-1278)

Ⅰ. 기본 항목

1. 귀하가 살고 있는 지역은 어디인지요?
( )시/군 ( )읍/면 ( )리

2. 귀하의 성별은 어떻게 되는지요?
① 남성 ② 여성

3. 귀하의 마을에서 귀하께서 맡고 계시는 역할은 무엇인지요?
① 이장 ② 노인회장 ③ 청년회장 ④ 부녀회장 ⑤ 기타 ( )

4. 귀하의 연령대는 어떻게 되는지요?
① 20대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 ⑤ 60대 ⑥ 70대 이상

Ⅱ. 관계인구 실태 및 필요성에 대해서

1. 귀하의 마을에서는 외부의 조직(단체, 기관 등)과 자매결연(1사1촌 운동 등)을 맺고 있는지요?

① 맺고 있다 (⇒ 아래 1-1, 1-2, 1-3, 1-4로 이동)
② 전에는 맺고 있었으나 현재는 맺고 있지 않다 (⇒ 아래 2로 이동)
③ 전에도 지금도 맺은 적이 없다 (⇒ 아래 2로 이동)
④ 잘 모름 (⇒ 아래 2로 이동)

1-1 자매결연을 맺고 있다면 최근(작년) 1년 동안 어느 정도 교류하고 있는지요?
① 맺고 있으나 전혀 교류를 하지 않고 있다
② 1년에 1번 교류하고 있다
③ 1년에 2번~3번 교류하고 있다
④ 1년에 4번 이상 교류하고 있다

1-2 어떤 조직(단체, 기관 등)과 교류를 하고 있는지요?
① 민간기업
② 자치단체(시/군), 공기업 등 공공기관
③ 시민단체(NGO 등)
④ 학교, 연구기관
⑤ 기타 (직접 기입:)

1-3 자매결연 조직(단체, 기관 등)과 주로 어떤 활동을 하는지요? (※해당되는 사항 모두 선택)
① **농산물 생산, 판매 활동:** 농사일 돕기, 농기계 보수(수리), 농로 보수, 농산물 판매
② **주거환경 개선 활동:** 독거노인 생필품 구매 지원, 농가 보수(도배, 장판 수리 등)
③ **주민 복지, 의료지원 활동:** 독거노인 방문 케어(건강 확인, 영양 관리), 의료봉사
④ **마을활성화 지원 활동:** 마을 홍보(홈페이지 개선 등), 마을발전계획 수립, 마을축제 지원
⑤ **마을환경 개선 활동:** 마을 주변 풀베기 활동, 마을 주변 미화 활동
⑥ 기타 ( )

1-4 자매결연으로 인한 교류가 마을 발전(활성화)에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요?
① 마을 발전에 매우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② 마을 발전에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③ 어느 쪽도 아니다.

④ 마을 발전에 별로 기여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
⑤ 마을 발전에 전혀 기여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

2. 귀하의 마을은 출향민의 모임(향우회 등)이 있는지요?
① 있다
② 전에는 있었으나 지금은 없다
③ 전에도 지금도 없다
④ 잘 모름

3. 귀하의 마을은 학교 동창회 모임(초등, 중등, 고등학교 등)이 있는지요?
① 있다
② 전에는 있었으나 지금은 없다
③ 전에도 지금도 없다
④ 잘 모름

4. 귀하의 마을에서는 외부 사람들이 참여(함께)하는 행사, 축제가 있는지요?
① 있다
② 전에는 있었으나 지금은 없다
③ 전에도 지금도 없다
④ 잘 모름

5. 귀하는 외부 주체(조직, 단체, 기관)들과의 교류 또는 외부인들이 귀하의 마을로 이주(귀농, 귀촌)에 오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① 마을 발전을 위해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② 마을 발전을 위해 바람직한 일이다
③ 어느 쪽도 아니다.
④ 마을 발전에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다.
⑤ 마을 발전에 전혀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다.

6. 귀하의 마을 발전을 위해서는 외부 주체(조직, 단체, 기관) 들과의 교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요?
① 매우 필요하다.
② 어느 정도 필요하다.
③ 어느 쪽도 아니다.
④ 별도 필요 없다

⑤ 전혀 필요 없다

7. 귀하의 마을이 소멸되지 않고 지금처럼 유지되기 위해서 외부로부터 지원을 받는다면 어떠한 지원이 가장 필요한지요? (※ 3가지만 선택)

① 농사일 돕기(농업인력 지원) 지원
② 마을발전 계획 및 추진에 필요한 전문가 자문 지원
③ 독거노인, 고령자 방문 돌봄 서비스 지원
④ 마을 청소, 하천 정비 등 마을 환경, 생태 개선 지원
⑤ 마을 자원을 활용한 6차산업화 등 마을 소득사업 지원
⑥ 마을 행사(축제) 활성화 또는 부활을 위한 지원
⑦ 청년층의 농촌지역에서의 창업(일자리) 지원
⑧ 지역주민들의 문화, 여가활동(프로그램) 지원
⑨ 지역주민들의 교육(노인대학, 평생교육 등) 지원
⑩ 다문화가정을 위한 각종 교육 지원
⑪ 기타 ( )

8. 귀하는 귀하의 마을의 연간 활동계획 수립, 회계 정리, 마을 행사 추진 등 마을 공동체(총회, 자치회 등) 활동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외부의 사람들로 구성된 지원단이 있다면 지원 요청을 하실 의향이 있는지요?

① 지원을 요청할 의향(가능성)이 매우 많다.
② 지원을 요청할 의향(가능성)이 있다.
③ 어느 쪽도 아니다.
④ 지원을 요청할 의향(가능성)이 없다.
⑤ 지원을 요청할 의향(가능성)이 전혀 없다.

부록 2

[설문조사표]

충남 농촌지역 관계인구 실태 및 정책수요 파악 도시민 대상 설문조사

충청남도 출연기관인 충남연구원에서는 2023년 전략연구로 “충남 농촌지역 관계인구 형성 및 확대 전략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관계인구 실태 및 정책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바쁘시더라도 잠시 시간을 내시어 아래의 질문에 답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답해주신 조사 결과는 충남 농촌지역 관계인구 형성 및 확대를 위한 새로운 정책 구상에 유용한 자료로 쓰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문의처: 충남연구원 지역도시문화연구실 유학열 선임연구위원(041-840-1201)
충남연구원 경제산업연구실 조소진 연구원(041-840-1278)

※ 관계인구란
농촌지역(마을~읍면)에 실제 거주하지 않고 다양한 형태(인적지원, 재정지원, 물적지원, 정보지원 등)로 농촌지역의 유지와 발전에 이바지하는 사람(인구)을 말한다.
※ 농촌지역
기초자치단체의 마을(행정리)~읍면 소재지

Ⅰ. 관계인구 개념에 대한 인지 및 필요성

1. 귀하는 관계인구 개념(의미)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① 잘 알고 있다 ② 알고 있다 ③ 들어는 봤다 ④ 모른다 ⑤ 전혀 모른다

2. 귀하는 관계인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필요하다 ② 필요하다 ③ 잘 모르겠다 ④ 필요없다 ⑤ 전혀 필요없다

(①,② ☞ 2-1로 이동)

2-1. 귀하는 관계인구가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최대 2가지 선택)

① 농촌지역이 가지고 있는 공익적 기능 유지를 위해 필요하다
② 농촌지역 활성화(발전)를 위해 필요하다
③ 인구소멸 대응을 위한 정책 방안으로 필요하다
④ 관계를 맺은 사람들 간의 정서적 안정 및 상호 교류를 위해 필요하다
⑤ 농촌지역의 새로운 재원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
⑥ 기타(　　)

II. 농촌지역과 관계 및 활동 실태

3. 귀하께서는 과거 농촌지역에 거주하신 경험이 있습니까?

① 있다 (☞ 3-1로 이동)　　② 없다 (☞ 4로 이동)

3-1. 귀하는 출향민 모임(향우회 등)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① 참여 하고 있다
② 전에는 참여 하였으나 지금은 참여 하지 않는다
③ 전에도 지금도 참여하지 않는다

3-2. 귀하는 학교 동창회 모임(초등, 중등, 고등학교 등)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① 참여 하고 있다
② 전에는 참여 하였으나 지금은 참여 하지 않는다
③ 전에도 지금도 참여하지 않는다

4. 귀하께서는 현재 농촌지역과 어떤 유형의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해당 사항 모두 선택)

① 통근·통학　② 고향(부모님댁) 방문　③ 봉사활동·재능기부　④ 농촌체험마을 방문
⑤ 출향민　⑥ 고향사랑기부제 기부　⑦ 농특산물 방문 구매　⑧ 귀농귀촌 교육 이수
⑨ 5도 2촌 거주 (별장, 농막 등)　⑩ 농촌 여가·관광 활동 (등산, 캠핑, 낚시 등)　⑪ 농촌관련 유튜브 및 SNS 구독　⑫ 온라인 농특산물 구매
⑬ 주말 농업(농장)　⑭ 해당 없음　⑮ 기타(　　)

5. 귀하께서는 지난 1년 간 농촌지역에 어느 정도 방문하셨는지요?

① 연간 12회 이상　② 연간 9~11회　③ 연간 6~8회　④ 연간 3~5회
⑤ 연간 1~2회　⑥ 방문하지 않았음

6. 귀하께서는 지난 1년 간 농촌지역에서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요?(해당사항 모두 선택)
① 농촌지역에서 소비 활동(식음, 숙박, 농산물 구매 등)

② 마을 청소, 하천 정비 등 마을 환경, 생태 개선 지원
③ 농촌 축제, 체험, 교육 프로그램 참여·지원
④ 농촌지역 문화관광·여가활동(프로그램) 참여
⑤ 농사일 돕기 참여
⑥ 금전적 후원 및 지원 활동
⑦ 독거노인, 고령자 방문 및 봉사활동
⑧ 해당 없음
⑨ 기타( )

7. 귀하께서는 향후 농촌지역과 관계를 지속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① 매우 있다 ② 있다 ③ 잘모르겠다 ④ 없다 ⑤ 전혀 없다

(①,② ☞ 7-1로 이동) (④,⑤ ☞7-3로 이동)

7-1. 귀하께서는 향후 농촌지역과 어떤 유형의 관계를 맺고 싶으십니까?(모두 선택)

① 통근·통학 ② 고향(부모님댁) 방문 ③ 봉사활동·재능 기부 ④ 농촌체험마을 방문
⑤ 출향민 ⑥ 고향사랑기부제 기부 ⑦ 농특산물 방문 구매 ⑧ 귀농귀촌 교육 이수
⑨ 5도 2촌 거주 (별장, 농막 등) ⑩ 농촌 관광 (2회 이상 관광) ⑪ 농촌관련 유튜브 및 SNS 구독 ⑫ 온라인 농특산물 구매
⑬ 주말 농업(농장) ⑭ 해당 없음 ⑮ 기타( )

7-2. 귀하께서는 향후 농촌지역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싶으십니까?

① 농촌지역에서 소비 활동(식음, 숙박, 농산물 구매 등)
② 마을 청소, 하천 정비 등 마을 환경, 생태 개선 지원
③ 농촌 축제, 체험, 교육 프로그램 참여·지원
④ 농촌지역 문화관광·여가활동(프로그램) 참여
⑤ 농사일 돕기 참여
⑥ 금전적 후원 및 지원 활동
⑦ 독거노인, 고령자 방문 및 봉사활동
⑧ 해당 없음
⑨ 기타( )

7-3. 귀하께서 향후 농촌과 관계를 지속할 의향이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시간이 없어서

② 금전적 여유가 없어서
③ 농촌지역 접근이 불편하고 멀어서
④ 농촌지역 주민과 갈등이 있어서
⑤ 농촌지역에 기여할 수 있는 바가 적어서
⑥ 더 이상 관계를 지속할 사람이 없어서
⑦ 기타(　　)

8. 귀하께서는 관계인구가 농촌지역 활성화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농촌지역 활성화에 매우 도움이 될 것이다.
② 농촌지역 활성화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이다.
③ 어느 쪽도 아니다.
④ 농촌지역 활성화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⑤ 농촌지역 활성화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Ⅲ. 응답자 일반사항

9.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① 남성　② 여성

10. 귀하의 연령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 20대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　⑤ 60대　⑥ 70대 이상

11. 귀하의 현 거주지는 어디이십니까?

(　　)시/도 (　　)시/군 (　　)동/읍/면

12. 귀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① 사무직　② 자영업 ③ 생산기술직 ④ 판매서비스직 ⑤ 전문직 ⑥ 학생
⑦ 농림축산업 ⑧ 공무원 ⑨ 군인　⑩ 무직　⑪ 기타

설문에 응답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집필자

연구책임자 유학열 충남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참여연구진 조소진 충남연구원 연구원

자 문 위 원 정환영 공주대학교 교수

이정윤 충남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 연구원

전략연구 2023-11

충남 농촌지역 활성화를 위한 관계인구 창출 및 활용 전략

발행인 유동훈
발행처 충남연구원
인쇄 2023년 12월 31일
발행 2023년 12월 31일
주소 충청남도 공주시 연수원길 73-26 (32589)
전화 041-840-1114(대표)
팩스 041-840-1129
홈페이지 http://www.cni.re.kr
ISBN 978-89-6124-659-0

ⓒ 2023. 충남연구원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기하면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습니다.
■ 무단전재하거나 복사, 유통시키면 법에 저촉됩니다.
■ 연구보고서의 내용은 본 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